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금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며,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참부처는 안에 앉아 있다.

-조주 종심-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신심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02-737-669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2월 2일 수요일(주간) 제 256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찰이다. 가상공간에서 불교를 만나고자 하는 네티즌들 역시 사찰 홈페이지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사찰 홈페이지는 사이버 포교의 기본 트대가 된다. 도심 프교를 위해 포교당을 개원하듯 사이버 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웅전을 짓고 단청하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시대에 으뜸불사는 사찰 홈페이지 개설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사찰 홈페이지는 역사, 문화재를 담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편과 권의시설 소개도 곁들인 살아있는 불교정보 도량이 돼야 한다. 네티즌들은 법회 등을 동영상화해 언제 어디서건 클릭 한번으로 타종소리를 듣고 큰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과 방명록을 활용하고 대화방도 개설해 주지스님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등 신행상담의 장으로 드나들고 싶어한다. 이에 더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인터넷 법회도 볼 수 있도록 하자.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정보화시대 으뜸불사

불자들이 소극적이어서 불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불자가 아니어도 사찰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사가 탱화라면 스님이건 언제든지 가른 한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들렀다 갈 수 있다. 비불자가 왔다가 불교에 호의를 품고 간다면 포교의 한걸음은 이미 내디딘 것이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달마넷에 홈페이지 등록을 한 사찰은 모두 350여 곳. 사찰 소개와 사찰 사진 몇 장, 교통안내 등이 전부인 곳이 아직까지 많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자료를 올리지 않다면 이것은 퇴락한 사찰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사찰마다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담당자가 한 명씩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찰은 상호교류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나고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포교에 문을 열어야 한다. 〈관련기사 5면〉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포교사 해외파송 '열세'

불교 105명뿐…개신교 6898명 · 천주교 568명

문화부 인터넷발표

해외에서 활동중인 포교사는 조계종 진각종 등 종단과 단체 16곳에서 파견한 105명으로, 개신교 136개 단체 6,898명, 천주교 568명, 원불교 230명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1월 13일 인터넷 자료실에 발표한 해외포교사 파송현황에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스님과 선교사, 해외파견 선·포교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지원단체 선정기준안을 만들고 있지만 교계의 해외포교 파송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계종에서 95년부터 배출한 국제포교사도 68명에 불과하며 해외파송보다는 영문판 한국불교 포교자료 발간준비와 연수및 교육, 국내 주요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계의 해외포교사 파송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포교인력 양성 △현지사찰과의 네트워크 구성 △재도적 토양 마련 등으로 함축된다.

포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원과 중앙승가대에 외국어강좌를 개설하거나 활성화하여 기본교육기관 이수와 함께 해외문물을 접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해외포교승을 파견하고, 유학승들도 해외포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생불자들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과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들을 포교사로 선발하여 1년간 파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히 해외포교승이나 포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2~3개월 과정의 해외포교교육원을 설립하여 해외포교 방법과 현지의 종교제도및 현황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내보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현지 포교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종단협의회와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과 현지 불교협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는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국제포교사인 김종걸교수(성균관대 시스템공학부)는 "매년 서구사회의 불자성장률은 100%이며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호감이 매우 높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개념을 확립하여 해외포교에 나선다면 포교효과는 극에 달할 것이다"며 "종단에서 해외포교대책을 세우고 포교사의 해외파송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회문제 대응 자문기구 구성키로
종단협 이사회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1월 26일 불기 2544년도 1차 이사회를 열어 정기총회에 제출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회 활동 강화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제교류·남북불교교류·환경보존·소비자보호·인권 등 5개 위원회에 2천5백만원을 조사 및 연구비로 책정, 지원키로 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인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키로 했다.

또 무분별한 종단 난립과 무자격 승려의 양산을 통제하기 위한 가칭 승단발전연구위원회의 구성, 한·중·일 학술 세미나 및 수행체험단 상호방문 등의 사업계획을 오는 3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 '온겨레 손잡기운동' 기지회견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강원용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 운동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온겨레 손잡고 화해-평화 기원

"3·1절 150만명 인간띠 만든다"

종교-시민단체 앞장…해외동포도 동참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단체와 2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온겨레 손잡기 운동본부'의 상임공동본부장 정대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1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념 계층 지역 종교간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온겨레 손잡기는 3월 1일 오후 3시 관문점-서울-수원-대전을 잇는 '평화의 휴먼라인', 목포-광주-전주-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화해의 휴먼라인'을 형성하며, 850km 구간을 150만명이 참가해 인(人)을 형상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교지도자 333인의 평화선언문도 낭독된다.

운동본부는 북한의 참여를 위해 명예대사로 위촉된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할 때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에서 거류민단·조총련계 동포들이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소속 사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peaceline.org), 전국 9개의 지역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운 기자

전통사찰 보호 조례제정 요청

조계종, 지자체에

조계종총무원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개정된 전사법은 1월 12일자로 공포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전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계종은 특히 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전통사찰의 수행·포교환경 침해방지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등의 기본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교구본·말사에도 공문을 보내 조례가 시급히 재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전통사찰 농지취득 허용"

농림부, 조계종에 알려

그동안 농림부 농지과의 반대로 어려웠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졌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1월 25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해 "조계종의 청원에 따라 농지취득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5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청계사 등학사 실상사 위봉사에서 신청한 2만8천여평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취득신청한 농지 가운데 임야화되었거나 주차장 등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사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려의 수행과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통사찰에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림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사실상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불국사 백양사 선운사 법흥사에서도 농지취득을 신청해놓고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계 환경정책실천협 발족

불교등 7대종교 참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7개교단을 대표한 인사 14명은 28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임기 2년)은 장연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환경정책실천협의회는 앞으로 신도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집중홍보·교육하는 한편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교회 부설 기도원과 산사 주변의 환경정화 등 다양한 관련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법종교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당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지난 1월8일 환경부 훈령(제448호)으로 제정된 '종교단체정책실천협의회' 규정에 의거해 발족된 협의회는 지난해 10월26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 초청 종교계지도자 간담회에서 법교단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와 실천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정례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구성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찰 조계종 문화부장과 양산 사회부장 스님 등 각 종교 대표14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재경 기자

경주 남산 벌목으로 훼손 2면
승복이 잿빛인 까닭 11면



맑은 물, 깨끗한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경주남산 벌목 '졸속행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두고 '악재'
97년 산불흔적도 그대로 방치

유네스코가 경주 남산일원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키 위해 오는 10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남산유적지 주변의 소나무와 잡목 5백여 그루가 무리하게 벌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97년 산불로 70.3ha 12만2천그루의 소나무가 불탄 흔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다 벌목사건까지 불거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경주시(시장 이원식)와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경주남산유적 중장기 보전정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노천불상에 이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관을 좋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삼릉골 국사골 용장골등에 산재한 20여 유적지의 10년 이상된 소나무 수백그루를 잘라냈다.

직경 25cm 가량의 나무와 바위틈에서 운치있게 뻗어있던 나무들도 벌목됐으며 10여 그루에서 30여 그루씩 잘려나간 유적지는 곳곳에 잘린 부분이 흉하게 드러나 있고, 베어낸 나무들도 한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폭4km 길이8km에 36개 골짜기를 가진 남산은 4백여개의 불교유적이 흩어져있어 지난 85년 6백만평에 달하는 전체면적이 사적 제311호로 지정되었으나 무허가 분묘가 난립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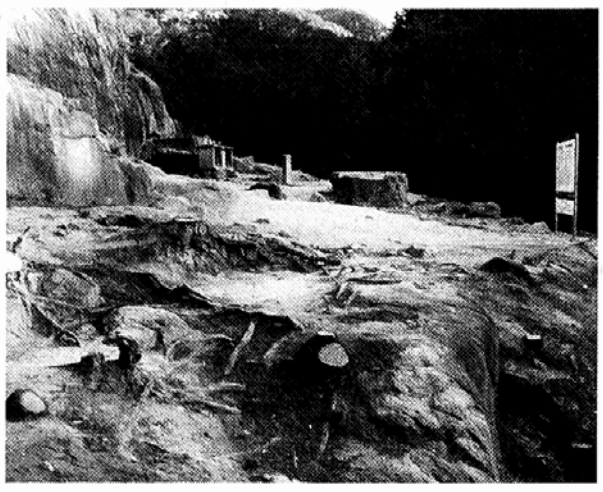
시민들은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남산정비사업에 녹장을 부리다 유네스코 조사가 임박하자 신중한 논의없이 벌목을 단행하는등 졸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산을 20여년간 다녔다는 한 경주시민은 "남산의 석질은 여물지가 못해 풍화가 잘되는 편"이라며 "비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들까지 벌목해 오히려 훼손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경주 남산을 비롯 대릉원, 월성, 황룡사, 산성지구 등 5개지구 8백60만 여평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지정을 신청했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사적지협의회(ICOMOS)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유끼오 니시무라교수(동경대 도시공학)를 경주로 파견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2월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6~7월에 열릴 집행이사회에서 등재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재권고로 판가름날 경우 12월에 열릴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등재가 최종확정된다.

경주=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경주 남산의 삼릉골 선각육존불 진입로 및 전면과 측면의 수목 30여 그루가 벌목되어 황량하다.

조계종 소장 성보 5만5천건

총무원 문화부 첫 집계

조계종 본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총 5만 5천여 건이며, 1910년 이전에 조성돼 지정 가치를 지닌 성보는 1만 2천여 건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성보문화재 관리 및 보존의 대계(大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실시한 6개 교구본사 소장 성보문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해 집계한 것.

이 조사에서 성보문화재는 사찰당 평균 30건이며, 이중 22%(6건)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계종 1,840 곳의 본말사는 총 55,320건의 성보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정 가능한 성보는 12,148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번 추정 집계를 토대로 본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정밀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올해 해인사와 화엄사 본말사에서 정밀실측 및 도면작성, 탁본, 감정 등을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18기 행자교육
3월12일부터 해인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9일 행자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8기 행자교육원을 합천 해인사에서 열기로 했다.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23일 동안 열리는 제18기 행자교육원은 사미·사미니 율의, 초발심자경문, 위의문, 조계종사 등 10개 과목이 개설되며 교수사는 도법, 혜능, 정락, 무관, 무비스님 등이다.

김원우 기자

포교우수법사 포상제 추진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진흥회는 올해 군법사 군종병에 대한 사기 진작사업을 증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포교우수법사 포상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5일 개최 예정인 정각스님(법륜종 종정)의 회장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올해 사업은 각 종단 포교부장들과도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장병 포교를 위한 후원자 확대를 위해 면담 전화 방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법당이 없는 군부대에 군법당을 건립하고 20년 이상된 군법당 보수 및 법당 사무용품 지원 등 군법당 지원업무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금년부터 지원법사 제도를 도입해 군승법사가 없는 부대를 파악해 법사가 직접 찾아가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교사단과도 연계해 법사 포교사 한명당 한 부대를 지속적으로 맡아 주말에 법회를 운영함으로써 군장병 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또 현지 중사, 상사 불자들을 규합해 통신교육 등을 통해 군포교사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백령도에서 군불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대회, 군불자를 위한 설악산 캠프, 승병장들의 활동을 새롭게 조명하는 세미나, 호국위령음악제, 군종병 교육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는 정관도 일부 수정해 운영을 합리화,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불자 12명 명단포함

총선시민연대가 1월24일 발표한 공천반대 인사명단 66명중 불자 인사는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3월3일 현재 국회 정각회 소속 불자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노갑(새천년민주당 前의원), 김명윤(한나라당, 전국구), 김운환(새천년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김정수(한나라당, 부산 진을), 김태호(한나라당, 울산 중), 노기터(한나라당, 경남 창녕), 박철언(자민련, 대구 수성갑), 서석재(새천년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상배(한나라당, 경북 상주), 이인구(자민련, 대전 대덕), 정재철(한나라당 前의원), 함종한(한나라당, 강원 원주갑) 등.

김재경 기자

"봉사-지계-법회동참 신행근간"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

재가불자의 바른 신행 정립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월 2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 전통에서 살펴 본 재가불자의 신행'이란 주제로 제1차 신행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전재성 한국빨리성전협회 대표는 "보편적인 붓다의 가르침 자체를 신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의식의 생활화, 일상생활의 신앙화'를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기 경전에는 일상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가르침이 가득하다"며, 108배의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귀로 만들어 매번 절할 때 낭송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중표교수(전남대 철학과)는 '대중불교에서의 재가불자의 신행'이란 발제문을 통해 해탈을 얻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혜시(惠施) 지계(持戒) 다문(多聞)'을 제시했다. 봉사·자선활동(혜시), 계율실천(지계), 법회참여(다문)야말로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바람직한 재가불자의 신행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회는 교리강좌나 축원불공이 아닌 참회와 수계를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27일 열린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호영교수(충북대 철학과)는 "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종교적 성격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자비를 강조한 나머지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과)도 "진정한 불국토 건설을 위해선 사회적 실천과 개인적 수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 임등현 기획실장은 "이번 세미나가 신행혁신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3·4월에도 세미나를 개최해 신행활동의 방향을 정립한 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신도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올해를 '신행문화 혁신의 해'로 정하고 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3차에 걸쳐 실시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능관스님 입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운봉당 능관스님 영결식이 1월 25일 서울 경국사에서 중앙종회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경국사 조실 지관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1월 23일 입적한 능관스님은 62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해인사 강원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문경 대승사 주지와 조계종종무원 교무국장 사업부장 사회부장, 8·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잘 보존돼야…

"불교문화재 보호 국가적 지원"

문화부보고서 '해외 종교현황과 제도'

문화관광부는 1월 24일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종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21세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펼쳐야할 종교정책 방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문광부에 의뢰에 따라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과 류성민 한신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펴냈으며, 연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고유한 종교적 전통과 전형적 다종교 상황에 따른 종교정책을 수립하고, 구미 선진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천사업으로 △한국종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종교정책의 적극적 시행 △종교단체의 대사회적 활동 권장 △종교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종교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9개국의 종교제도와 현황을 통해 단일국가, 다종교국가, 우세종교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정책으로 분류한뒤 외국의 종교정책도 분석했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불교 기독교등 우세종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관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것은 사회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종교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쟁을 막기위한 종교법인법의 제정도 필요하나 자칫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화재와 관련하여 정부는 특정종교와의 관련성을 떠나 국가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를 법적조치로 철저히 보호하고 언제든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재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교계 협조없이는 문화재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종교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해당종단과 국가기관, 관련전문가가 협의하여 기존법령에 대한 개정과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삼·부·농·산·은·슴·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황토삼백초 건초

♣ 차나 승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 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목어

새로운 물결

요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낙선 운동은 구시대적 사고에 맞서 새로움을 갈망하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의 제도가 일단 정착하면 그것이 처음 설립된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제도에 기생하는 족속들이 배출될 수 있다. 본래 정치는 국가 대사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정당 내의 역학 구조만을 이용하여 보신하거나, 겨우 지역민의 감정에만 연합하여 나라의 앞길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적지 않다.

자기 당 소속 의원의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방탄조끼 역할을 하고, 걸핏하면 국회를 비워 두고 특정 지역에 내려가 대중 선동을 일삼는 당을 적극 경고하고, 지난 날 독재적 권력에 줄서기하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정치가의 국회 진출을 막는 일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후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은 정보화(인터넷)로, 충분히 정당이나 국회의사당을 거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게 되었다.

정보화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간의 국경이나 학문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나아가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경계도 사라지고 새로운 장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은 NGO의 힘에 밀려 기존의 특권을 하나씩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날뛰는 언론, 경제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아무리 파렴치한 행위를 해도 자기가 소속한 기관, 기업의 장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성원을 보내는 일도 막을 것이다.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한 시민단체는 결코 특정 집단의 오만을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정보화의 물결과의 충돌에서 야기된 카오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낡은 부정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새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시대 착오적인 자세를 버리는 일만이 생존의 지혜가 될 것이다.

김용운(창의기획학회장 · 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개념설명 치중 도식화로 홀러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❹선어록 해설의 문제점



박영록
충주대 교수
중국어

중국 명나라때의 선어록 해설서인 〈소선록〉에 나오는 얘기다. "한 선사가 어떤 처사에게 만가지 인연을 쉬게 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오경까지 앉아 있노라니 문득 전에 아무개가 보리 한 말을 꾸어가고는 아직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그는 아내를 불러서 깨우며 말했다. '선사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좌하고 있었더니 이익이 있구료. 하마터면 그 아무개에게 보리 한 말을 떼먹힐 뻔 했으니.'"

만약 이 사람이 "좌선하니 효험이 있다"고만 말하고 뒤에 "보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실 사람의 머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선어록에 등장하는 선사들의 말이라면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정상아닐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사들의 말을 이해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그 들이 항상 '법의 세계'에 거한다는 전제 아래, '본래 구족과 평상심'의 관점으로 어구를 풀고, '절대, 평등, 무차별'로 수식한다는 공식이다.

근래에 간화선(看話禪)으로는 깨달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간화선이 초기의 생명력을 잃고 도식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도식화는 알게 모르게 선어록 해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근한 예를 들 수 있다. 가끔 '선은 활발발(活潑潑)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선, 최소한 선어록의 기록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도식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활발발'이 살아있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선어록을 한두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말이므로 동질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 그대로 '활발발'하게 살아있는 어휘는 아닌 것이다.

나는 선어록 해설에서 도식화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핵심 언구'에 천착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어록강의에서 "선에서 평상심은 흔들리지 않는 여여한 절대무심의 세계"라고, 또 "한 수좌가 운문선사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죽 먹고 밥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의 세계에서 죽과 밥은 단순한 양식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다"고 해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설이 100점짜리 답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나로서는 씹어도 씹히는 맛이 없고 배도 불러오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는 '행위'이지 '밥'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위 해설이 '죽 먹는 행위'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죽'에 대한 개념을 해설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평상심' 역시 마찬가지다. '평상심을 가진 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여한 절대무심의 세계'라고 하지 왜 '평상심'이라고 표현했을까? 도대체 '평상심'을 '절대무심'으로 치환한다고 해서 무엇이 밝혀진 것인가?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인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조주스님은 남전스님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않고 짚신을 머리에 쓰고 방에서 나갔다고 한다. 조주스님이 왜 발에 신어야 하는 짚신을 머리에 썼을까? 이것이 핵심대목이지만, 가끔은 비본질적인 부분에도 눈길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 나는 한동안 엉뚱하게도 왜 조주스님이 방에 짚신을 신고 들어왔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평소의 생활환경에 따른 무의식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방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사는 우리 습관상, 어떻게 조주스님이 방안에서 짚신을 머리에 쓸 수 있었을까하는 점이 궁금했던 것이다. 일부러 짚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쓰고 나갔을까?

이런 의문은 중국, 특히 북방에서는 추위 때문에 법당안이나 요사채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도 쉽게 풀려버렸다. 사실 중국인들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어록을 읽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네 절집만 머리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어록 해설서들은 짚신을 머리에 이는 전도(顚倒)된 행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 우리 관습과 달리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리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 '핵심' 언구에만 매달려 있고,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이나 우리문화와의 차이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생긴다. 주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사들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어떤 '어휘'가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천착한다면 도식적 해석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 선어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종단 이미지 통일화…해외포교 역점

주요종단 새해설계 진각종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연구한 바를 종합해 종단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또 2년뒤로 다가온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에도 전 종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종단의 이미지 통일화작업(CIP)을 거의 완성하고 오는 3월 공식 발표한다. 불교종단중에서는 최초로 CIP작업을 시도한 진각종은 이번 이미지통일화작업을 통해 밀교종단으로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한편 포교 교육 복지 등 3대 종무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꾀함은 물론, 홍보매체의 시각화와 일치감을 통한 종단 홍보와 포교활동 극대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사회부 산하에 있던 포교국을 확대, 부(部)로 승격시킨 것 또한 포교에 종단적인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진각종은 네팔과 스리랑카에 개설한 진각복지재단 지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동남아시아 포교 거점으로 삼고 국제불교연구소와 진각복지재단을 주축으로 국제구호활동과 지원, 교류,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해외에 나가있는 신교도를 조직화해 전문 포교사로 활용한다. 통일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불교계 지원 등 각종 교류활동에 견인차역할을 하며 상반기중 북경에서 열리는 통일토론회와 고려대장경 번역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진각종은 올해 업무전산화 예산을 지난해 보다 90%이상 대폭 늘렸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종단의 의지를 보여준다. 종단 홈페이지를 더욱 새롭게 구축하고 종단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고 종단의 자료실과 사이버심인당을 개설하며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도입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교구청 산하기관, 단체와의 인트라넷을 구축해 신행안내는 물론 밀교자료와 출판물의 정보제공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

또한 올해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법당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군불교 지원을 계속하며 숙원사업인 종립 위덕대학교가 군승지정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군불교진흥백서도 발간한다.

교화자료집인 '교화연구'와 계간 '생활불교' 발간을 추진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밀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밀교교리대법회를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순회 개최한다.

종조법어집 출간과 진각의범 제작을 위해 사안별 정리작업을 추진하며 전법 및 수계관정불사의 체계성을 완비하여 스승전법관정불사(4월중)와 수계관정불사(11월중)를 봉행한다. 종조법어연구팀을 정비 운영하고 대일경과 삼십칠존 관련 의궤에 관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밀교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위해 1차년도 3개년 계획으로 밀교전서목록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도 실시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진각종은 통일시대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북한불교계와의 각종 교류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중인 진각종 대표단이 평양 창광유치원을 방문한 모습.

작년 조계종 종회 '부실'

18일간 개의…분과활동도 저조

종회보고서 나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가 1월 25일 펴낸 '불기 2543년도 중앙종회 활동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모두 8차례(138~145회)의 본회의를 열었으며, 종회법에 규정된 60일의 회기 중 18일만 개의했다. 1일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3분에 머물렀다. 안건은 모두 90건을 처리, 회기당 평균 11.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종회로 이월시킨 안건은 116건으로 처리한 안건보다 26건이나 많았다.

7개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도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분과위원회가 19회, 재정분과위원회가 8회에 걸쳐 열렸을 뿐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1~5회만 열렸다. 사회분과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그쳤다.

10월 정화개혁회의가 제기한 총무원장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사태의 여파도 있지만 5일 이상 본회의를 개의한 적은 단 한차례로 나타나는 등 지난 해 종회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배정됐던 2억2천여만원 가운데 1억5천여만원만 지출됐다.

중앙종회 활동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펴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18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지난 해 본회의 및 상임분과위, 특별분과위 개의 일수와 처리된 안건 등을 담고 있다. 종회사무처는 매년 보고서를 펴내 종회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6일(총 15주)
■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 · 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강좌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선학의 이해 참선실수 중국선사상사
	2	인도선정사상사 선천개설 육조단경
2	1	한국선사상사 선어록 강독 선과 서양철학
	2	경허.만공선사상 선과 현대사회 선과 노장사상
교수진		법산(동국대), 현각(동국대), 종호(동국대),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각성(전해인사 강주), 심재룡(서울대),윤원철(서울대), 김호성(동국대) 한중광(동국대), 박영재(서강대), 신규탁(연세대) 계속 초빙중
※ 졸업 후 전문 참구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구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입학식
■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원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02)541-0002~3 팩스:02)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i.net

"성보 발굴·보호에 일생 걸었지요"

새 천년을 뛰는 불자 〈5〉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관 **한 성 욱**

전통사찰 지표조사 주력
복장 유물 관리에도 관심
"성보 관리 프로그램 절실"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경내·외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는 종단 차원에서 연차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해야 하며,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찰들은 전문기관에서 발굴조사를 자발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한성욱(38) 학예연구관은 사찰과 폐사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불자다. 광주공항에서 문화재 밀반출·입을 감시하며 4년간 근무했던 '문화재 감정관실'을 떠나온 것도 성보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는 일에 원력을 세웠던 탓이다.

현재 성보박물관을 개설한 사찰은 모두 23곳에 이른다. 그러나 학예연구관이 상주해 있는 사찰은 통도사, 송광사, 대흥사 등 7곳에 불과하다.

94년 전남 화순군 쌍봉사지 발굴 때 만난 고경스님(송광사 성보박물관장)과의 인연으로 일하게 된 한씨는 현재 송광사 박물관을 매장문화재 전문 박물관으로 키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여념이 없다. 매장문화재 보호에는 '발굴'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분포지역과 사료적 가치를 평가해 놓는 게 차선책이다.

"지난해 전남 화순군 만연사와 구례군 연곡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박물관 차원의 조사였다는 게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사에는 50여 개의 말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3곳이 전통사찰이다. 만연사와 연곡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일과중 한씨가 가장 정성을 쏟는 것은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전화다. 지표조사나 시굴을 해보자는 것이다. 불사를 앞둔 사찰은 더할 나위도 없다.

"스님들이 사찰 외형을 키우고 가꾸는 만큼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씨에 따르면 송광사 말사 중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여러 곳 되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사찰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씨는 지표·시굴조사를 의무화 하는 종법이 제정되고 또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성보문화재 관리와 행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외에도 한성욱씨는 복장유물 관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한 번 봉안된 복장물을 꺼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껏 '관리'의 개념을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씨는 '일본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복장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쥐나 해충에 의한 복장물 훼손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고흥 능가사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조사한 사천왕상 복장물 역시 설치류에 의한 훼손이 심각했다. 그래서 한씨는 요즘 복장물에 대한 교계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불교 경전과 문헌 등의 자료를 탐독하기에 여념이 없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모 일섭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식

불교미술 금융일섭 문도회(회장 신언수)는 1월 24일 불교미술의 거장인 故 일섭 대불모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고향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했다. 또 이날 문도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문도의 결속과 상호 유대를 강화해 근대 불교미술의 터전을 마련해 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미술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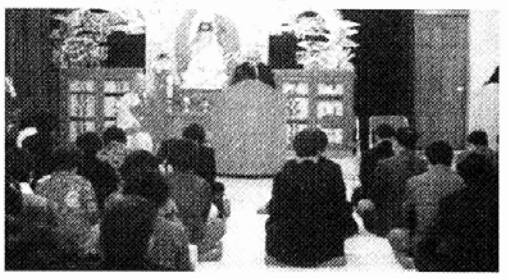
대구 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

대구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1월 26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범룡스님을 비롯 보광원조실 화산, 원로회의 부의장 도원, 대적사조실 영봉, 동화사주지 성덕, 대구사원련회장 원명,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 前 동화사주지 무공스님과 최등원 제9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 종단협 창립법회

대구지역 5개 불교종단으로 구성된 대구불교종단협의회가 1월 22일 보현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재출범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주지 성덕,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재만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효암정사,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주지 문덕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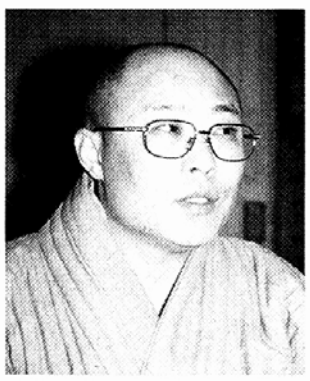


부산 불교실업인회 신년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는 1월 25일 삼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서춘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서춘석 회장은 "2000년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심으로 극복하고 불교병원설립 등을 구체화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다.

"깨끗한 선거로 정토사회 구현"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장 법안스님



"불교계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동참하고 정토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1월 21일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임된 법안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정치인이 자율적인 정치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불교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스님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낙천자 명단에 포함돼 보수 세력의 저항이 거센만큼 설날 이후 개신교 천주교 등이 참여하는 종교협의회와 연대해 종교계가 낙천·낙선 운동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스님은 총선시민연대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승가회와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실무간사 2명을 파견하는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등 16개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2000년 총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월말에 열리는 실천승가회 총회에서 총선관련 안건을 상정, 회원들이 있는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총선시민연대의 명단 발표자 중심으로 낙선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스님은 불자의원 12명이 낙천자 명단에 선정된 것과 관련 "굳이 종교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불교계가 종교편향적인 언행을 일삼은 국회의원이나 농지법, 전통사찰보전법 등 불교관계법 입법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일주문

방생법회·고운사 순례



혜광 법주사 주지는 14일 정초방생법회 및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방생법회는 안동댐에서, 답사는 고운사와 봉정사로 간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전



범하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은 1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오피스텔 906호로 성보문화재연구원을 이전했다. (02)521-6830

은평구 바른선거모임 회장에



자용 서울 수국사 회주는 '은평구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 모임' 회장을 맡아 1월 27일 은평구청 5층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사하구불교련 신년하례

자인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회장은 1월 27일 사파이어 호텔에서 신임 회장단과 전회원이 하나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해동고 박장호·김지혜 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부산지원 새해맞이 촛불제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은 9~11일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맞이 촛불제를 봉행한다.

불심사 창건 8돌 기념법회



혜인 불심사 주지는 12일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볼룸 3층에서 불심사 창건 8주년 및 회갑기념회를 갖는다.

日 벳부·입정대와 교류협정



손제석 위덕대 총장은 환동해권 학술네트 구축 일환으로 1월 25일~28일 일본 벳부대 및 입정대를 방문하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사랑이라는…' 출판기념회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부회장은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강당에서 〈사랑이라는 빛을 진 남자〉 출판기념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김천경찰서 행정위원장에



이양길 김천직지사 연수원장은 1월 21일 김천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행정위원장으로 위촉되어 경찰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불교문화번역연구소 창립



백원기 불교문화번역연구소장(동대 전자계산원 교수)은 1월 24일 동국대 그릴에서 불교문화번역연구소 창립식을 가졌다.

EBS서 '고건축의 미' 강의



신영훈 해라시아문화연구소장은 7일, 14일, 21일 저녁 7시 20분 EBS 세상보기에서 '우리 고건축의 미(美)'를 주제로 강연한다.

흑석동에 사무실 개소



홍성범 前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공보팀장은 1월 29일 동작구 흑석동 225-26 중앙빌딩 3층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02)824-0117

한국언론인협 초대회장에

성대석 전 KBS 앵커(SM미디어 대표)가 1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제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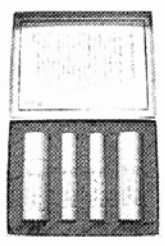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양곳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홈페이지는 정보시대 포교창구

홈페이지 만들기 ①

국제불교연맹등 무료계정 제공

동영상 자료 사이트 활용해볼만

스님, 불자들 사이에도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이버 법당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불교정보센터, 사이버 템플이 서서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비하면 불교 홈페이지의 숫자는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이번 기회에 우리 불자들도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나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에 접속하고 홈페이지 계정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해야 한다.

국제불교연맹(www.buddhism.org)에서는 홈페이지 공간을 무료로 불자들에게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방명록과 게시판도 제공하는등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네띠앙(www.netian.com)은 회원에게 20MB의 홈페이지 계정을 무료로 부여한다. 홈페이지 제작 마법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초보자용과 여러페이지 구성용으로 나눠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코리아 뮤직넷(www.koreamusic.net/cgi-bin/homepage)은 음악에 관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10M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불교음악에 대한 서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만드는 것이 안성맞춤이다. 방문횟수에 따라 추가용량을 지원해 준다. CGI서버 코리아(www.cgiserver.net)는 회원들에게 무료 방명록 게시판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메일과 홈페이지 계정을 준다. 트라이포드(www.tripod.co.kr)는 초보네티즌을 위한 단계별 홈페이지 만들기와 파워네티즌을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코너를 따로 만들어 수준에 맞는 제작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메일도 준다.

홈페이지 자동제작 사이트인 미투유투(www.me2u2.co.kr)도 최근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안내 순서에 따라 마우스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면 기본적인 사양을 갖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본사양은 개설자 소개, 홈페이지 설명, 즐겨찾기, 관련사이트 연결, 갤러리, 제품이나 하는 일 소개, 게시판, 공지사항, 방명록, 전자우편 보내기 등 13개 가운데 6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식물 사람 문양 캐릭터를 갖다 쓸 수도 있다.

계정을 주는 사이트에서 제작 마법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모웹에디터(www.namo.co.kr)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홈을 제작하는 것.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무료기능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트라이포드가 제공하는 초보네티즌을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Ventije의 집'(user.yongsan.co.kr/cgi-win/jump.cgi?ID=233)을 방문하면 홈페이지에 필요한 움직이는 그림 파일들을 다운 받아 쓸 수 있다. '경만이의 홈페이지'(user.yongsan.co.kr/cgi-win/jump.cgi?ID=402)에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인 HTML배우기부터 카운터 방명록 게시판 달기, 페인트샵·포토샵 등 그림프로그램 다루는 법, 홈페이지 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

홈페이지에 부처님 사진이나 사찰 사진을 올리고 싶다면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 국보보물 검색을 해보자. 각 유물의 사진과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데 사진을 내려받기해서 내 홈에 붙이면 된다.

다음호부터는 나모 웹에디터로 홈페이지 만들기 코너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기법을 연재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철도청 불교대표자협 발족

10여개 법우회 참여…활동영역 확대 기대

철도청 각 지역 승무사무소의 불교법우회 임원들이 1월22일 조계종 포교원에 모여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는 불교연합법우회 구성을 위해 발족된 것으로 각자 활동해 오던 전국 10여개의 철도청 불교법우회가 뜻을 모아 모임을 가진 것이다.

협의회의 사업은 △철도청 연합 법우회 창립의 건 △철도청 내 불교 신행단체 합수련회 △철도청내 연합 사찰순례 법회 △철도 안전운행 기원 대법회 △불탄일 기념 주요역사 연등 및 장엄물 설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이날 협의회는 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4개 종단에 지도법사를 요청하고 조계종 봉축위에서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초파일 역사내 등달기 협조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의장은 박창식 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장, 수석부의장은 이경재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장, 간사장은 황국진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불자회 총무가 맡았다. 이외에 자문위원으로 이일승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불자회 장이, 사무국장으로 정찬연 성북승무사무소 포교사와 박창수 구로승무사무소 포교사가 각각 위촉됐다.

연합법우회가 발족되면 각 지역 철도청의 법우회 확대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의장 박창식씨

"올 상반기중 연합회 구성"



"철도청에 대표자협의회를 정식 활동 단체로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전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연합법우회 발족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연합법우회가 창립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 연합법우회가 뿌리를 내려야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요."

철도청 불교 신행단체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맡은 박창식 회장(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앞으로 협의회 활동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철도청 법우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은 거의 기관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박 의장은 법우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사관급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교섭하고 있다. 연합법우회는 1년에 한두차례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초파일 행사에 같이 동참하며 공문을 띄워 사찰순례회에 임원들이라도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박창식 의장은 "훼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자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철도청 연합법우회가 창립되고 전국적으로 연합불자회들이 많이 결성돼 불자들이 단결한다면 훼불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말했다.

강지연 기자

MBC불교연 부석사서 연합수련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어 불심을 다지고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 새벽3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을 올리고 부처님 전 앞에 머리 숙여 참회했다.

MBC 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가 1월22~23일 전국 연합 명산 대찰 순례법회를 영주 부석사에서 가졌다.〈사진〉 서울 대구 마산 울산 청주 안동 등 6개 방송국 불교연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명산 대찰 순례법회에서는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이 법문했다. 23일에는 인근 소수서원을 방문해 관람하는 등 문화재의 향기에도 젖어 들었다. 매월 셋째 목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MBC 불교연구회는 IMF 이후로 회원이 40여명이나 줄어드는 아픔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회원들이 똘똘 뭉쳐 불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불교연구회는 연 4차례의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하는데 다음 순례법회는 4월경 봉암사로 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클릭! 새 홈페이지

■보장사(http://cafe.daum.net/bojangsa)
1월20일 개설. 안양 보장사 청년회 카페. 안양 보장사 청년회 소개와 정보전달. 보다 나은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자료 모음의 장.

■경희선불회(http://cafe.daum.net/sunbuldang)
1월21일 개설. 경희대 불교학생회 선불회 동문들의 모임.

■머무르지 않는 마음(http://cafe.daum.net/challa)
1월22일 개설. 공주대학교 불교학생회의 방.

■고창 룸비니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24680)
1월23일 개설. 개설자는 고창의 모든 고등학생 불자들의 모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구 태 회 ·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원무부장〉

B형!
오늘이 대한(大寒) 하루전인데 제모습을 찾아서 그런지 출근 길이 귀가 얼 정도로 춥더군요. 귀를 감싸며 길을 걷다보니 문득 해인사 원당암(願堂庵)에 있으면서 큰 절로 논강(論講)하러 가던 일이 생각납니다. 벌써 33년전 일인데….

나는 서울에 살지만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차공간이 넓지 않으므로 병원의 책임자로서 솔선해야겠다는 점도 있지만,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길을 걸으면서 계절마다 느끼는 감회는 남다른데가 있거든요.

B형!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이 지난해 11월1일 개원하여 3개월째 접어듭니다. 많은 불자 및 고객들의 신뢰로 운영이 벌써 정상궤도에 접어들었답니다. 지난 성도재일에는 철야정진은 못했지만 틈을 내어 병원 법당에 올라가 좌선을 했답니다. 차소리 바람소리가 뒤섞이고 시끄럽긴 하지만, 한 생각 다잡으니 그 소리들이 풍경소리같이 들리기도 하여 정말 출·재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불자로서의 길이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겠지요.



B형!
일상의 생활에서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아침 4시경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고 원효성사의 발심수행장을 심송합니다. 5시반경에는 조깅으로 새벽을 가로질러 장부다운 기개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친구가 나에게 "아깝게 됐다"고 말한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지금 생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불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출가시의 발원이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세계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도량이 청정하고 대중이 화목하고 불사가 원만성취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였다면, 지금은 한창 공부하고 있는 2남 1여 어린자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바르게 성장하여 불법의 큰 외호동량이 되도록 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지요.

B형!
언젠가 내가 말하였듯이 불심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도 나는 "원행(願行)의 싹이 곧 불심(佛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원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단지 그 원행이 욕망으로 기울어져 혼란을 일으킬 뿐이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결국은 불자가 아니겠어요.

21세기에는 "이럴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설파하고 신문지상에도 필왕필래하고 있지만 나는 초세기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인간 존엄성 보장되는 사회 발원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소망인 행복추구권이 짓밟히는 사회라면 인터넷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정보통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한많은 생을 마감했겠어요. 그것을 타파하신 부처님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선구자요, 인류의 최고 가치를 창출하여 현시하고 선언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최고의 헌장이 아니겠어요.

B형!
우리 병원에는 맨위 9층에 법당이 있는데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셨어요.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을 위하여 열 두가지의 서원을 세우셨기에 모셨는데 환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고 해요. 우리 교직원들도 바쁜 근무시간 틈틈이 법당에 올라가 절도하고 좌선도 하고 염불도 하는 소규모 총림이지요. 오랜만에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보니 좀 산만하게 되었는데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필경에는 함께 성불하도록 합시다. 형의 건강을 빌며.

佛紀 2544年 庚辰年
發願已歸命禮三寶 새 천년 복국토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대 산
부종정 각 화
승정원장 신 수

중앙종회의장	혜 공	총무원장	석 봉
사정원장	혜 승	부원장	진 봉
재정원장	혜 광	사서실장	지 겸
교육원장	정 봉	총무부장	청 명
포교원장	법 진	재무부장	혜 원
호법원장	대 안	사회부장	지 하
수선원장	대 심	감찰부장	서 겸
문화원장	청 봉	홍보부장	지 도
교리연구원장	〈공 석〉	포교부장	지 안
		교학부장	혜 연
		수련부장	도 경
		문화부장	지 〈공 석〉
		교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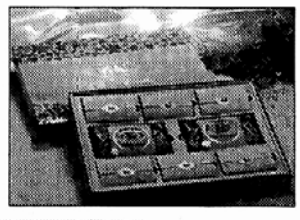
"새천년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진합시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02)3216-0165~6 FAX 02)3216-0166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물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온겨레 손잡기 운동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이 올 3.1절에 전국 규모로 열리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종교지도자들이 이 자리에서 새천년 3.1절을 '화해와 평화의 날'로 선포한다.

81년전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을 내세우며 전국 방방곡곡을 만세 함성으로 뒤덮었던 3.1정신은 이제 이렇게 새천년의 가장 큰 화두를 분단된 민족과 인류앞에 던져 놓는다.

화해와 평화야말로 전세기(前世紀) 인류의 비원이었으며 세기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지난 세기 독립선언서를 통해 인류를 향해 이 비원을 호소한 바 있다.

평등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독립선언서는 오늘에도 생동감 넘치는 호소력을 여전히 지닌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정치적 술수로 인해 틈이 깊어지고만 동시의 갈등으로 인해 민족 모두는 지금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3.1독립운동은 한국역사상 유일하게 한민족의 마음을 웅대한 인류적 이상앞에 하나로 묶게했다. 일본측 공식집계로 당시 1919년 전국 2백만명이 참가한 만세운동은 당시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1천5백여회의 시위 도중 7천5백여명이 사망하고 5만3천여명이 검거됐으며 1만6천여명이 다쳤다. 그러함에도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는 회의와 함께 부정적 시각 또한 없지 않으나 이 숭고한 정신이 4.19와 5.18등의 항쟁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1운동은 필요할 때면 어느때고 분출돼 나오는 거침없는 민족기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기가 바뀌면서 3.1운동은 '저항을 통한 평화'에서 '화해를 통한 평화'로 거듭나려 한다. 자주권을 잃어 지도자를 가질수 없었던 81년전 당시, 만해·용성 스님 등 불교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 이끌었던 운동이 아니었던가.

'저항'이 '화해'로 성숙되는 과정이 오히려 당연해 보이는 소이가 아닐수 없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이 종교지도자 3백33인의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그렇다.

북한동포의 참여까지 기대하며 판문점에서 대전을 거쳐 목포 부산을 거대한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이어보겠다는 '온겨레 손잡기 운동'은 21세기의 3.1정신운동이 될 것이다. 만세 부르던 그 손을 서로가 잡아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선언하게될 이번 행사에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적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이버 훼불 대책 세우자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맞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종교간의 갈등 문제일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종교간의 갈등으로 수없는 인명이 스러져가는 참혹한 사태가 이곳 저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서 종교간의 큰 분쟁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한 형편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일부 특정 종교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다시 일부 광신자들의 타종교에 폭력적인 공격행위로 증폭되어 나타날 때이다.

이런 행태가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까지 만연되고 있다. 요즘들어 인터넷 사이트와 PC통신등에 불교비방·폄하등의 훼불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종교간의 갈등으로 얼룩질 수 있는 비극적 가능성을 암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태를 단지 일부 몰지각한 광신도들의 행위로 치부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으로, 미래의 새로운 공간에서나마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의 방식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우선은 이런 폭력적 행위의 중심인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여, 모든 종교의 화합이 밝은 미래 건설의 기본이라는 것은 함께 선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열려진 세계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지나친 신앙심' 정도로 치부하고 있던 소위 '건전한 신앙인' 그룹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바로 자신의 종교에 대한 해교행위이며, 공동의 미래를 망치는 범죄적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종교간의 화합에 가장 열린 틀을 지닌 불교계가 앞장 서서 건전한 종교 문화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을 창출하여 건전한 지성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사이버 훼불 행위에 대한 방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또 엄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이버 공간을 미래 종교화합의 새로운 공간으로 일구어나가는 큰 비전으로 불교의 종교적 관용성이라는 장점을 꽃피워내는 것만이 사이버 훼불을 근절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열린마당

사찰 관광특구개발

21세기 문화·관광의 세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불교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만도 10여 곳. 정부가 지난 97년 13개도 17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이후 매년 불교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는 사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교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등 부수적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불교관광코스 개발을 입안한 지자체 관계자와 해당 사찰,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신앙공간 특징 부각

이수찬〈동화사 기획과장〉

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문제는 현실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족전통문화와 국민의 휴식공간이 수려한 명산의 대부분을 불교사찰이 소유한 데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한편으로는 불교인의 신앙생활과 스님들의 수행공간 보호라는 두가지 상반된 현실에 기초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사찰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 일반의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은 말 그대로 사찰의 불교신앙적 황폐화와 박제화된 공간으로의 역할을 강요받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발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경향이 교계의 기본정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사찰 수입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관계기관과 이를 적극 추진하거나 권장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관광지화된 유수의 사찰에 가보면 불교의 신앙 성보인 탑과 각종 전각 그리고 불상은 대상화된 관광거리일 뿐이며 골동품화된 문화재로 취급받고 있다. 그들은 안내문의 경고나 불교신앙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이 사진찍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큰소리로 웃고 떠들고 심지어 사찰의 법회마저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어차피 전통사찰 공간의 문화적 개발이 사회적 요구로써 피할 수 없다면 불교계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수립하고 신앙적 공간을 보존하는 내적역량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선진화된 관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한다면 수행과 전법이라는 사찰고유의 역할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문화 보존우선

양산스님〈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장〉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사찰주변 관광지화 및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종교적 성지로서의 사찰은 국민들의 휴양처이며 정신적 귀의처로서 편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널리 홍보해야 할 두가지 과제를 사찰이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마땅히 이 시대의 불교가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사찰주변은 무분별한 위락단지의 조성과 유흥상가 등으로 수행공간의 청정함은 일주문 밖을 나서면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얼마전 무산된 해인골프장 건설 계획부터 최근 지리산 식수댐 건설 문제까지 사찰과 주변환경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커다란 건설이나 위락단지 조성의 문제가 아닌 '역사' '문화'와 관련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그 관점에 따라 개발이 결국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을 망쳐놓은 결과를 우리는 곳곳에서 목도케 된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불교관광지화 및 개발에 있어 우리는 막연한 포교의 효과나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나무'에 가려 소중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 및 문화환경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그 목적이 어떠하건 간에 영리를 염두에 둔 각종 개발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사찰은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 대안과 계획을 먼저 제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환경보존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야 한다. 종단과 사찰환경보존위원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개발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홍보·수익증대 기여

설재훈〈전남 곡성군청 지역개발과〉

곡성군은 몇해전 오산면 소재 관음도량인 관음사 사적기에서 '심청전'의 원형이라고 할 연기설화를 발견하면서 관광코스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청전'의 무대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라는 기존의 설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철저한 고증작업을 거치기 위해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사업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군의 경우처럼 사찰을 낀 관광코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실무자들은 우리 군과는 다른 경우이지만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지역민들에게 종교적인 오해를 사는 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은 불교관광지 개발 사업이 아니다. 다만 불교가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일 뿐이다.

사찰 중심의 관광사업 증진은 지역 수익을 증대시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자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역 문화재 및 문화를 보존하고, 특화시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자하는 데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계획에 불교계에서는 반기는 곳이 있는 반면 개발로 인한 사찰 주변 환경 및 불교문화재 훼손, 스님들의 수행공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곡성군은 당해 사찰과의 협조와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그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과 불자들도 채찍대신 지자체가 더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드린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성보박물관 운영苦

문화의 세기를 맞아 불교계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의 운영 실태와 소장 유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성보박물관은 이미 완공돼 운영중이거나 공사를 진행중인 곳을 합쳐 모두 16곳이며 자체 유물전시관을 보유하거나 건립중인 사찰도 7곳에 달한다. 그러나 조계종 문화부가 지난달 개최한 '학예연구관 1차 간담회'에 따르면 23개의 박물관과 전시관의 운영이 순탄하지 않다는게 간담회에 참여했던 9명의 학예연구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간담회에서는 "성보박물관 유지비 지원이 절실하다" "유물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예연구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경우, 한 달 평균 1천만원의 유지비가 사용된다. 다른 박물관 역시 수백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재정이 튼튼하다는 본사급 사찰이라도 매달 이와같이 적잖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용주사와 수덕사 등이 박물관 개관을 늦추는 이유도 재정적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찰에서 학예연구관 외에 박물관 상근자를 채용하기는 힘들다. 자연히 학예연구관의 일은 성보 연구와 관리 외에도 박물관의 일반 행정도 도맡아야 할 만큼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모사찰의 성보박물관에서 일하던 학예연구관은 4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올해 예산에 '박물관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고 한다. 일견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액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600만원선. 조계종 총무원은 "지금은 유물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성보박물관 일선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종단적 차원에서 성보박물관의 운영 실태와 유물 관리에 대한 반성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독자의 소리

음악극 '일식' 보며 환희심

지난 일요일 대학로 문예회관에서 공연중인 음악극 '일식'을 관람했다. 월명스님의 도솔가를 모티브로 한 이 음악극은 제목자체로는 아무런 불교적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음악극 곳곳에서 불교적 감흥과 사상을 체험하게 했다. 우선 등장인물들의 면모가 그렇고, 음악적 소재로 사용된 범패와 그 표현 도구로 사용된 목탁 등도 우리 연극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불교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찡하게 다가왔던 것은 월명스님의 '도솔가'를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창작해 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도솔가'라는 제목만을 국어책에서 배웠을뿐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도솔가'를 연극적 모티브로 읽어낸 연출가의 의도에 감탄하면서,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뮤지컬 등 대중 문화산물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18일 서울대 총학생회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나는 달라이 라마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 솔직히 크게 관심도 없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왜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고려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이상하다. 중국은 탈북동포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이미 외교마찰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는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물의 방한을 허용했다고 해서 외교마찰이 일어난다면 그런 나라와의 외교관계는 오히려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정조영(경기도 용인시 남동)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범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총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클래식과 불교창작곡의 만남

니르바나실내악단 27일 정기연주회


◇니르바나실내악단은 창작불교음악과 정통고전음악을 한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동양 정신의 마르지 않는 샘인 불교사상을 서양악기의 현으로 퍼올리는 무대가 준비된다. 이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로운 세기 문화의 화두인 퓨전(fusion)의 음악적 시도이기도 하다.

불교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창작음악 개척과 실내악의 대중화를 모색해 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제2회 정기연주회를 27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다.

니르바나실내악단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연주가들이 모여 지난해 2월 창립한 교계 최초의 실내악단이다. 불교 전통에 바탕을 둔 창작곡을 포함, 서양 고전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을 소화해 내며, 그동안 창립음악회와 산사음악회 등에서 수준높은 음악을 연주해 왔다.

이번 정기연주회도 서양 고전음악과 현대 불교 창작음악을 선보여, 불자들에게는 고전음악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창작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대사이자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인 폴 칼슨씨를 초청, 특별 연주도 선보인다.

니르바나실내악단은 제1부에서 로시니의 '현을 위한 소나타 제3번'을 연주하고, 폴 칼슨과 바이올리니스트 유정미씨(니르바나실내악단 단원)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협연한다.

제2부에서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예불 의례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한 정부기교수(중앙대)의 관현악을 위한 '예불'이 초연된다. 사물놀이와 판소리 등 우리나라 전통음악 양식과 서양음악의 실내악적 요소까지 겸비한 이 곡은 신비로운 음향과 출세간(出世間)적 정서로 청중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 동아콩쿨 등에서 활동해 온 젊은 불자작곡자 최명훈씨의 '찬불가를 모티브로 한 메들리 연주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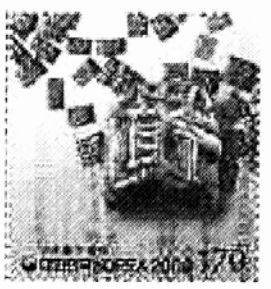
단장 강형진씨는 "성악과 합창 위주로만 발전돼 온 불교음악계에 기악중심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불교적 마인드를 담은 수준높은 연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실내악단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이번 공연을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활동을 외국에 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02)3663-4663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우표속 성보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봉정사극락전


◇밀레니엄 시리즈 中 팔만대장경.


◇밀레니엄시리즈 中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

팔만대장경,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 봉정사 극락전 등 불교문화유산을 담은 우표가 제작된다.

이 우표들은 정보통신부 우표디자인실이 새 천년을 맞아 기획 제작한 밀레니엄 시리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선사시대부터 8·15광복 이후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 사건과 인물을 시대별 11개의 묶음으로 나눠 선보이는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유물로 선정된 것이다.

우표디자인실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묶음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시작으로, 두번째 묶음 삼국~통일신라시대 유물과 유적, 세번째 묶음 고조선~통일신라시대 사건과 인물 등을 이미 발행했다.

팔만대장경과 최초의 금속활자 직지는 오는 3월 2일 네번째 묶음인 고려시대 사건과 인물편에서 선보이게 된다. 이 네 번째 묶음에는 과거제도와, 안향, 문익점 목화씨 전래 등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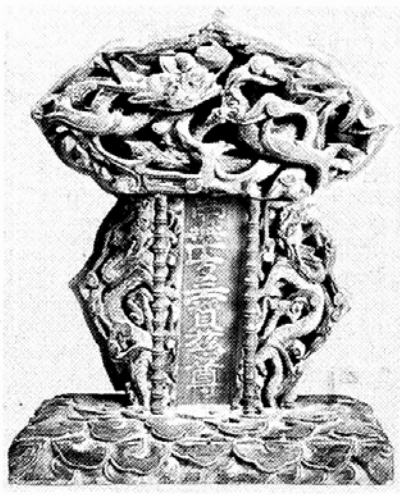
팔만대장경 우표는 사진작가 주명덕씨가 수년전 해인사에서 찍은 스님이 인경(印經)하는 모습을 기본 모델로 윗부분에 경관이 배경으로 오버랩 되고, 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됐다. 사진속 모델은 당시 해인사에 주석했던 지현스님(현 송광사 율원장)이다.

우표디자인실 이혜옥실장은 "팔만대장경이 지니는 현대적 가치와 불교적 이미지를 표현해 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면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스님이 인경하는 사진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팔만대장경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 우표는 〈직지심체요절〉의 첫부분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입체형의 금속활자본을 얹어 놓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봉정사 극락전은 일곱번째 묶음 고려~조선전기의 유물과 유적편에 고려청자, 하회탈, 경복궁, 몽유도원도, 조선의 과학기기 등과 함께 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98년 세계문화유산등록 당시 특별우표로 해인사 장경각과 경판의 모습을 담은 2종의 우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은자 기자


◇용이 새겨진 송광사 목조시방보패

龍전시회 2곳

호림박물관 '용의 미학전'

경기도박물관 '새천년, 우리의 미르'

설날을 앞두고 고미술품에 다채롭게 표현된 용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는 용관련 전시회가 두 곳에서 열린다.

서울 호림박물관은 이번달 말까지 특별전 '용의 미학전'을 연다. 호림박물관 이전 개관 이후 첫 특별전인 이번 전시회는 용과 제왕·고려시대 용·불교 속의 용·조선초기 도자기에 보이는 용·조선중기 혼든기의 용·조선후기 양반과 용·용과 민속 등 총 7개 주제로 나눠 전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표적인 작품들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보물 1022호 청자상감동채용문병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61호 청자비룡형주자, 호암미술관 소장 국보 136호 용두보당 등 도자기와 금속공예, 목조공예, 문방용구, 고서 등 용과 관련있는 고미술품 70여점이다. (02)858-2500

경기도박물관은 20일까지 '새천년, 우리의 미르'전을 연다. '미르'는 용을 지칭하는 순수한 우리말. 이 전시회는 12지(十二支)중 다섯번째 동물인 용의 상징성을 '불교에서의 미르', '민간신앙에서의 미르', '왕실에서의 미르', '생활 속의 미르', '경기도 땅 이름에서의 미르' 등 주제별 전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에서의 미르 편에서는 용이 새겨진 통도사 목조시방삼보패, 송광사 금동요령, 법당 도리 위의 용두조각, 사찰 입구의 용두보당과 당간 장식, 기와에 새겨진 용면 등 불교 조형물 속에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통해 불법(佛法)을 수호자로서의 용을 만날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미르에서는 무당들이 행하는 용왕굿, 가정신앙에서 사용되는 용단지, 세시풍속인 용궁맞이, 민속놀이인 용마놀이 등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용을 살펴본다. 또 왕권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용의 이미지는 용안, 용위, 용상, 용좌, 용가, 곤룡포 등 왕실문화 속에서 조명한다. (0331)285-2011

설공연 '풍성'

문화재 보호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남산골 한옥마을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공립 공연장에서 다채로운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설날맞이 공연-미르 해의 새울림'을 5일 오후 5시 국악원 예악당과 축제마당에서 연다. 양금, 단소연주 '수룡음', 궁중무용 '학·연화대·처용무', 판소리 심청가 중 '용궁에 간 심청이는 무엇이 되었을까', 창작풍물 '용비소리' 등을 선보인다. (02)580-3300.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설날맞이 특별무대 '천년의 희망을 품는 용의 설날'을 5~6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와 전통공예관에서 갖는다.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5일 신년재수굿 보유자인 김유감 등이 출연, '신년재수굿'을 공연하고, 6일에는 한국의집 민속예술단이 나와 시나위, 봉산탈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으로 흥겨운 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02)566-5951.

국립민속박물관은 '새 희망 설 문화축제'를 연다. 4~6일 우리관 앞마당에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윷점보기가, 5~6일 우리관 장승동산에서는 새해 소망을 적은 소지를 금줄에 끼워 소원을 비는 소지끼우기가 열린다. (02)734-1341.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4일 '새 천년 새 봄왔네, 어화둥둥 만사형통'이, 5일과 6일에는 '남산골 설날 큰잔치'가 각각 마련된다. (02)2266-6937.

광주박물관에 불교미술실 개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광주·전남지방의 불교문화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불교미술실이 개설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와 전남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방출토 불교관련 문화재와 사찰자료를 모아 1월 25일 불교미술실을 열었다.

75평 규모의 불교미술실에는 광양시 옥룡면 중흥산 폐사지출토 국보 제103호 쌍사자석등을 비롯,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출토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화순 운주사 출토 금동보살입상,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도갑사출토 청동문수동자상 등의 불교조각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 출토지 미상의 아미타불화와 시왕도 등의 불교회화, 광주 서오층석탑출토 금동사리장엄구와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출토 청동범종 등의 불교공예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광주 무등산 원효사, 광양 옥룡사지, 순천 금둔사지 등의 발굴유물 90여점을 주제별, 시대별로 전시해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불교미술실 개설을 통해 지역 관람객들에게 광주·전남지방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문화소식

'문학의 밤' 아이디어 공모

새로운 예술의 해 추진위원회는 문학분과의 첫 번째 사업인 '하이퍼 텍스트 문학의 밤'을 위한 작품 아이디어를 3월말까지 공모한다.

이 행사는 문학의 경험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문학을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퍼 텍스트를 도입한 작품을 가지고 있거나 구상중인 문학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02)3471-7192

아트선재 7인의 '느림전'

산업화, 과학화, 현대화를 거치는 동안 발전과 진보의 다른 이름이 되어 온 '빠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제동을 거는 7인의 '느림'전이 3월 5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빠름'으로만 변질되어버린 속도의 개념을 재고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김수자, 김영진, 박홍천, 배병우, 육근병, 이불, 최정화 등 7인의 젊은 작가는 서로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속도를 작품을 통해 구현한다. 액체 속을 유영하는 텍스트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시간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작품, 새벽이 밝아오는 실제시간을 영상에 담아낸 작품,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통해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 등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빠름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꼬집고 있다.(02)733-8945

공연예술 아카데미

웃는돌 공연예술센터는 3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공연예술아카데미를 연다. '노자와 공연예술', '공연예술의 서사적 구조와 기능', '성악가를 위한 음성론적- 방법론', '샤머니즘과 공연예술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0344)675-0661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童蒙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敎)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



정좌요결
명나라 말기의 사대부 원황(袁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체득한 지관수행법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서술한 글

육묘법문
좌선수행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수(數)·수(隋)·지(止)·관(觀)·환(還)·정(淨)의 측면에서 설명한 수행지침서

동몽지관
좌선수행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완성까지 10단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수행입문서

사 념 처
근본불교의 선정수행법인 사념처관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조명한 수행론

天台大師 · 袁黃 지음 남민수 옮김/신국판 356쪽/ 값 12,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23-1679, 팩스 723-5961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율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과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30-2500, 팩스 723-5961

화엄경의 품은 넓고 크고 깊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후 최초 37일간의 설법을 수록한 〈화엄경〉은 분량과 내용, 그리고 문학성에 있어 으뜸 경전으로 꼽힌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화엄경〉에 펼쳐지는 세계관, 우주관, 연기관을 비롯 보살도 사상, 수행 계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파에서부터 사람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화엄의 대종장들이 여러 생을 바쳐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요약 정리하여 후인들에게 화엄의 깊은 뜻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다.

방대하고 심오한 부처님의 교설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잇따라 나온 2권의 화엄서는 주목할 만하다.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하늘북)와 〈60화엄 탐현기 합편〉(전 2권·승가대학원)이 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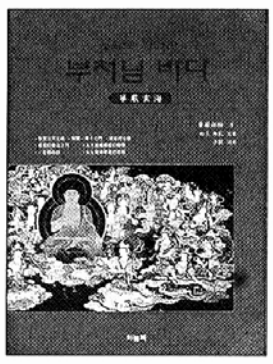
■ 화엄서 2권 출간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바다
60화엄 탐현기 합편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는 전통경학연구 결사도량인 승가대학원에서 화엄의 여러 저술들을 한데 묶어 출간했던 〈화엄현해〉의 내용 가운데 요긴한 내용만 발췌, 원문과 함께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책은 두순선사가 저술한 〈화엄법계관문〉에 대한 청량국사의 주석서인 〈화엄법계현경〉을 시작으로 〈화엄일승십현문〉, 〈화엄경지귀〉, 〈화엄경의해백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화엄요해〉가 풀이돼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경전은 두순선사를 비롯 지엄·법장·청량선사 등 화엄 대종장들이 저술한 것으로, 그들의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승가대학원에서 삼학을 연찬하고 있는 역해자 고경스님은 "화엄의 세계와 참선의 세계를 합치한 사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부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화엄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승가대학원장인 무비스님이 내놓은 〈60화엄 탐현기 합편〉은 화엄경 이해의 필독서인 현수 법장스님의 〈탐현기〉를 경전 연구자들이 편리를 위해 새롭게 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합편의 구성은 경전의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그 사이사이에 법장스님의 기문을 삽입해 경전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무비스님은 서문에서 "〈60화엄 탐현기 합편〉은 한국불교교학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선각자들의 연구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체제로 〈탐현기〉내의 과목을 밖으로 끌어내어 내용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합편의 의의를 밝혔다.

〈화엄경〉을 읽은 사람들은 "인류 사 최대의 사건은 세존의 대오이고, 최대의 작품은 바로 〈화엄경〉이다"고 극찬한다. 이러한 화엄의 바다에 빠져보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거쳐야할 필생의 과제가 아닐까.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바다〉 값 2만7천원. 〈60화엄 탐현기 합편〉(전 2권) 값 2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반성적 시각으로 본 20세기 한국불교

김광식씨 '…한국불교백년'



90년전 만해 한용운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20세기 불교의 진로를 '목마름의 불꽃'으로 표현했다. 불교 유신의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다시 새 천년의 문턱에서 만해스님이 절규가 되살아 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만해스님이 고민을 거듭했던 불교의 뒤틀린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광식씨(대각사상연구원)는 "21세기 한국불교사의 명암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 달려있다"며 "자기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 수 없는 나약한 현실인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김광식씨는 바로 이러한 불교관을 〈우리가 살아 온 한국불교 백년〉(민족사)이라는 책으로 풀어냈다. 반성적 시각에서 한국불교를 살핀 이 책은, 20세기 한국불교의 주요 흐름을 연대별로 요약 정리하고 있다.

근대불교의 여명(1900~1905년)을 시작으로 식민지 불교의 성립, 3·1운동과 불교, 한국전쟁과 불교, 불교개혁의 출범, 그리고 최근 개혁의 시련까지 100년간의 불교사를 개괄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뇌하는 이 시점에서 출간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값 4천원.

김중근 기자

성보문화재의 뒷이야기

진홍섭씨 '묵재한화'



한국불교의 성보문화재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 앞에 있을까. 잦은 병란과 외침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난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문화재이고 보면 당연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홍섭(한국미술사학회 이사) 씨가 펴낸 〈묵재한화〉(대원사)를 보면, 옛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극성을 부렸던 성보 문화재 도굴꾼들의 행각과 조선시대 성보 문화재의 수난사를 소상하게 알 수 있다. 또 신라의 대찰 영묘사의 위치, 부석사에 웅크리고 있다는 석룡(石龍)의 진위, 고려 문종의 4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이 초대 주지를 맡은 흥왕사의 사격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손목을 자른 '도탄'이라는 인물을 추적해 낸 대목을 보면 그저 허망할 뿐이다. 훼불자는 조하망(1682~1747)의 문집 〈서주집〉에 실린 칠언시 '실상사견철불유음'에 나온다. "불상을 물리침은 원래 유자의 일이니/ …/ 도탄에게 다시 배울 줄 어찌 알았으랴." 도탄은 중종 24년부터 선조 30년까지 생존하던 변사정의 호다.

또 이 책에는 고려시대 동종은 물론이거니와 몇점 남지 않은 신라 동종도 국내 현존하는 것보다 일본에 더 많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인구청담록〉(왜인들이 구하기를 청한 물품과 기증 여부를 기록한 장부책)엔 조선 건국 이후 약 250년간 각종 불경, 사경, 범종 등 성보 문화재를 모두 127회 청구했는데 조정은 이 가운데 80%를 승낙했다는 것이다. 성보 문화재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겠다.

이렇듯 50여년간 문화재와 함께 해 온 진씨의 이야기 스물 여섯 편을 좇다 보면 성보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생생한 증언과 함께 지금은 도굴돼 사라진 성보 문화재들의 빛바랜 옛 사진들을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값 1만2천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소설로 쓴 생태마을 보고서

홍석화씨 '청산에 살어리랏다'



토종·틧간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화씨(51)가 토종생태마을 건설과정을 그린 소설 〈청산에 살어리랏다〉(세계인)를 내놓았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귀농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보고서'이자 '다큐멘터리'이기도 하다.

일종의 '유토피아' 소설인 이 책의 무대는 한백산(한라산+백두산) 자락에 위치한 남향마을이다. 옹기의 멋에 심취한 이영식, 죽염을 굽는 최현배, 남자 미용사 김대교, 민간의학자 서한일, 농사꾼 박경인·김금순부부 등은 우선 영농조합을 결성해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이들은 에너지 절약형 가옥으로 전환, 오폐수 처리를 위한 개량변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풍력발전, 건강 유지를 위한 황토 쑥 찜방 등을 통해 토종생태마을을 건설해 간다.

마을건설의 중심축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다. 식(食)·주(住)·의(衣) 등 생존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요양원을 통해 의료 문제를 해결한 뒤, 대안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농사→요양원→학교로 줄거리가 이동하는 것도 그러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생태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출간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농촌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일에서부터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석화씨는 "이 이야기의 무대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토종마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귀농하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귀농하여 살고픈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불교학자의 삶과 사상

정태혁 수상집 '불교산책'



동국대 정태혁 명예교수의 수상집 〈불교산책〉이 동문선에서 나왔다. 정교수는 〈인도철학〉 〈밀교의 세계〉등 학술서를 낸 적이 있으나,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만으로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체험하고 보여 준 지혜의 등불을 높이 치켜들고, 냉철한 현실비판의 지성과 너그러운 동포애의 포용력과 뜨거운 통일의 열정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등불, 그 지성, 그 포용력, 그 열정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다."

불자들이 평화통일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불교사상으로 본 평화통일의 원리'로 이 책은 시작된다. 이어서 '종교·기도란 왜 필요한가', '불교의 바른신앙' 등의 신행적인 측면에서부터 불교학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대한 정교수의 생각이 녹아 있다.

〈불교산책〉은 종교일반에서부터 요가와 선, 그리고 힌두교와 밀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의천대각국사(김화수 지음, 추전서당)= 천태사상을 꽃피운 의천대각국사(1055~1101)의 행장을 좇아가는 구도소설. 글쓴이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등 의천대각국사의 발자취를 답사하고 쓴 이 책은,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적고 있다. 값 9천원.

▲그때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안덕상 지음, 인화)= 87년 〈현대시학〉에 '보리'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 활동을 시작한 안덕상씨(KBS라디오 기술국)의 세번째 시집. 글쓴이에게 있어 도피안사 철불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요, 현실로부터 벗어남인 듯하다. 도피안사를 주제로 쓴 25편의 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값 5천5백원.

▲밀레니엄 문화읽기(박정진 지음, 불교춘추사)= 밀레니엄은 성공과 희망으로만 가득찬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 박정진씨가 밀레니엄의 출발점에서 문명을 여러 각도로 파헤치고 있다. 문명을 남성과 여성, 가부장제와 모성적 근본이라는 시각에서 본 '여자의 아이를 키우는 남자'를 시작으로, '종교는 인간의 본능이다' '신(新) 불교문명론'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혜총스님 지음, 부다가야)=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 불교방송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 모음집이기도 하다. 값 8천원.

▲사기꾼 잡는 역학(김덕영 지음, 명지사)= 운명을 짚어주는 역학 가이드. 역학의 정의와 역사를 다룬 기초편을 비롯 밀레니엄 아기의 운명감정, 사주로 풀어쓴 어린이 교육방법, 종교와 역학 등이 수록돼 있다. 값 1만5천원.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이야기(데이비드 벵슨 지음, 서민수 옮김, 도솔)= 개인별로 전생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제시하는 책이다.

또 종교인·학자·문인·정치인 등 모두 41명의 전생이야기도 담고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정주영, 김일성, 김정일 등 한반도의 정치사회지도자들의 전생이야기도 들어있다. 값 7천9백원.

◇ 금주의 베스트불서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노자와 21세기(하)	김용옥	통나무
6	풍경	원 성	이 레
7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9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10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책방 여시아문 집계 도서 안내:(02)737-0695

알고싶은 불교상식 100가지
100문 100답
정승석 교수의 명쾌한 풀이!
100문 100답! 개정판
불교를 쉽고 바르게 풀이한 100가지 문답!
불교의 기초가 되는 이 100가지만 알면, 누구라도 자신있게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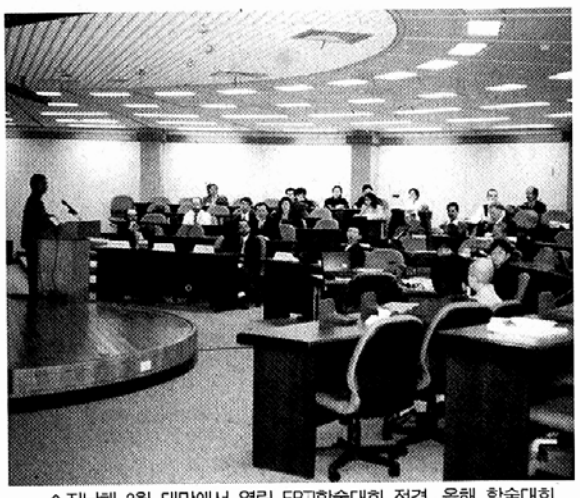

값 9,500
최고의 불교입문서!
언제 어디서나 얘기하고 싶은 불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불교!
100문 100답에서 찾아드립니다.
정승석 교수의 글은 잔잔하고 자상합니다.
정승석 교수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로 계시며 〈차한잔을 마시며 나누는 불교교리〉 〈고려대장경 해제〉 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교양대학 및 사찰의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대장경 사이트' '디지털 실크로드' 2백여학자 관심

전자불전협 美 국제학술회의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열린 EBT학술대회 전경.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통합대장경'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이 활발했다.

가상공간에서 불교 문화와 교리를 펴는 방법을 논의하는 전자불전협의회(이하 EBTI, 공동의장 종림 스님)와 전자문화지도협의회(이하 ECAI, 공동의장 랭카스터 교수)의 국제학술대회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켈리포니아 대학에서 16개국 2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아시아 불교권에서 수천 년 간 생산돼 온 문헌과 문화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EBTI와 ECAI 회의는,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경전을 공유하고 문학·예술 등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방법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대장경' 사이트의 정보와 이용 실례 그리고 신라시대의 고승 현장스님과 실크로드 관련 유물과 유적을 전자지도 상에 옮기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등이 크게 주목 받았다.

이외에도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과정을, 영국국립도서관은 돈황본 경전과 불교미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공개하는 등 60여 개의 연구 실적이 소개됐다.

그런데 당초 예상됐던 '이체자' 입력 방법에 대한 논쟁은 없었다. 1년전 대만 대회에서 한국, 일본, 대만은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 등에 수록된 이체자를 표현하는 데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세 나라의 대장경 입력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체자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CD롬을 배포하는 등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수요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은 이미 입력 작업이 끝났고, 대만에서 진행중인 〈신수대장경〉 입력 작업은 지금까지 32권 가량 마무리됐다. 따라서 이제부터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해 세계 불교학계에서의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연구 확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1월 1일 개설된 대장경 사이트의 접속 횟수는 지금까지 약 10만 건. 디지털 장경에 대한 세계 불교학계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이번 대회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전산화되지 못한 불교 정보는 사장될 수 밖에 없는 디지털 세계가 성큼 다가섰다"며 "각국의 경전 전산화 작업은 막바지에 이른 인상이며, 세계 불교학자들은 이제 문학 미술 건축 비석 탁본 등을 소재로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구 방향의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만 대회와는 달리 인터넷 상에서 전산화 된 불교문헌을 열람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불교전자도서관' '전자 사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등 국내에서 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한글·한문본 대장경이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장경 뿐만 아니라 불교 문학과 예술을 알릴 수 있는 전자도서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EBTI는 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를 소집, 다언어 통합대장경을 완성하기 위해 '표준화 기술 소위원회'를 결성했다. 또 2001년 대회는 5월 26~27일 동국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종교학회 불교분과 워크숍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는 12일, 13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불교의 근본사상에 대한 공통적 이해 기반 마련을 위해 '업과 연기' '무아와 윤회'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한사람의 기조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방법 대신,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분임토의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02)2260-3128

'고인쇄문화 6집' 발간

한국의 옛 인쇄문화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고인쇄문화' 제6집이 발간됐다. 이번 제6집에는 1305년 청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금강반야파밀경'에 관한 연구논문과 윤병태 충남대 명예교수의 '한국의 활자문화인쇄', 박문열 청주대 교수의 '인쇄술 기원설과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본에 관한 연구' 등 고인쇄 관련 논문 5편이 수록돼 있다.

정토학회장에 홍윤식교수

한국정토학회는 1월 22일 타워호텔에서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및 〈정토학 연구 제2집〉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홍윤식교수(동국대)가 정토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수석부회장에는 강동균교수(동아대)가 임명됐다. 〈정토학 연구 제2집〉에는 '21세기 정토사상의 시대적 요청', '한국 정토교의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새천년 정토신행의 포교방향' 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주요 국내불교사이트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는 사이버 공간에도 현실과 마찬가지의 불교세계가 펼쳐져 있다. '사이버 절'을 지어 놓고 인터넷 세계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불교를 알리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포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에 뿌리를 내린 불교사이트는 크게 두가지 정도의 경향을 보인다. 불교 색채를 약하게 하고, 내용도 쉽게 풀어 일반인이 부담 없이 다가서게 하는 '대중화'와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화' 등이다.

대중화-전문화 구분 개인사이트도 수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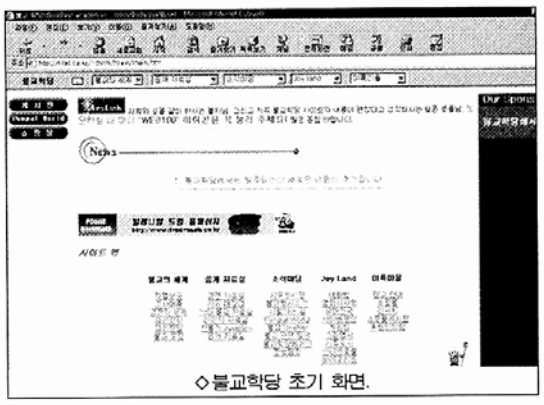
△대중화 : 예불 의식보다 불교 자체를 알리기 위해 스님들의 친근한 '법문'과 '경전 소개' '신행 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템플(http://cybertemple.org/)은 부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일반인이 불교에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심자를 위한 기본 교리 과정도 개설해 불교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1대 1의 문답식 풀이 과정도 개설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경〉〈반야심경〉〈화엄경〉〈수심경〉 등 주요 경전을 게재해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불교에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 관련 지식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평이하게 꾸며졌다는 게 특징이다.

△전문화 : 인터넷은 누가 어느 것에 보다 관심을 갖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역을 최대한 세분해,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법계(http://indra.indranet.net/)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경전, 명상 코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불교의 학문적 연구를 추구하는 교수와 학자들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대만의 경전을 수록한 '자유대장경'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각종 불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심이 깊고 불교에 대한 배움이 전문가 수준인 재가불자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개별 사이트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사이트는 자신의 신행 생활이나 교리 그리고 고승의 법문 등을 특성화하여 대중을 상대로 포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성철넷(www.songchol.net)은 경전 논문 저서 문화 등 선학과 불교학 관련 자료가 많다. 또 불교학당(http://user.interpia98.net/~mirrk/)은 자유대장경 등 불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재윤의 불교학당(http://studybud.buddhism.org)은 절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신도들에게 불교 입문에서부터 교리 연구, 법회, 관련단체 행사와 뉴스, 불교도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윤씨는 "불교는 자기수양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 각자가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정보사회에서 컴퓨터가 삶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학당 초기 화면.

남한산성 폐사지 5곳 본래모습 되찾는다

우리 나라 1,700여 개의 산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한산성 내 폐사지 다섯 곳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경원대,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남사모) 등은 1월 15일 '남한산성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회'를 발표하고, 남한산성을 '호국'과 '무예'를 중심으로 한 역사공원으로 정비한다는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회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복원사업' 일환으로 열린 것.

〈인조실록〉과 〈남한지〉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에는 신라 때 창건된 망월사 옥정사 등과 인조 2년 남한산성 축성 때 벽암 각성(1575~1646) 스님이 창건한 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한흥사 장경사 개원사 동림사 등 9개 사찰이 있었다. 당시 이들 사찰은 산성 수비와 보수를 위해 경내에 화약창고를 설치하는 등 호국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이것을 문제 삼아 산성 내 모든 사찰을 초토화 시켰다. 이중 4개 사찰은 복원됐지만, 동림사지 한흥사지 옥정사지 남단사지 천주사지 등은 억새풀에 덮혀 사지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이다.

전보삼(신구대)교수는 "한국토지공사의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남산 석탑7기 복원추진

경주문화재硏 창립10년 기념사업

'남산도록' 5월 발간

남산의 석탑들이 복원되고 또 지표조사와 발굴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깊숙한 골짜기의 문화재들도 이제는 그 빛을 발하게 됐다.

1월 30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폐탑 복원을 위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남산문화재 종합도록〉을 발간하며 12월에는 〈경주문화재연구〉(가칭)라는 학술지를 창간키로 했다.

연구소는 폐탑 복원을 위해 현재 남산의 국사골, 지암골, 기암골, 비파골, 용장골, 늠비봉에 소재한 7기의 석탑을 실측하고 부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월경 완료되는데, 연구소는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하는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년내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남산 전역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온 연구소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비롯, 7점의 석재 유물 등 많은 유적·유물을 새로이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유물은 삼릉골 입구에서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탑 옥개석, 삼릉골 제5사지의 옥개석, 지암골 제4사지의 사리탑 하대석(추정), 용장골 입구사지의 탑신석, 천동골 입구사지의 옥개석 등이다.

특히 고위산 정상 아래 천룡골 절벽 중간 지점에서 새로이 발견한 선방터(禪房址)는 고고·미술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미륵사지-황룡사지-안압지 CD롬 발굴보고서 나와

한국 고고학 발굴사에 큰 획을 그었던 전북 익산 미륵사지와 경주 황룡사지 및 안압지 발굴 보고서를 모은 CD롬이 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D롬 발굴보고서 발간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

이번에 나온 CD롬은 3개 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방대한 텍스트 자료는 물론 여기에 수록된 사진과 도면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번에 수록된 유적 중 미륵사지는 1980년 7월 발굴에 들어간 백제 고찰로 동서 세 곳에 강당을 두어 중심곽을 형성한 이른바 삼원병치의 가람임이 밝혀졌다.

고대사찰 중 미륵사와 쌍벽을 이루던 신라고찰 황룡사는 고려말 몽고침략 때 불타버렸다가 1976년~1983년 그 터를 전면 발굴함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비매품. 문의전화 02-737-9436

1999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증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격 : 1권 60,000원(발송비 5,000원 별도)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WHO가 공인한 최면요법
엔돌핀 100배 증가되는 놀라운 최면효과!
잠재능력 일깨워 나를 새롭게!

류한평 박사 최면교실

주요 내용 1. 자기최면, 타인최면 실기수련, 2. 유쾌감정 활성법
3. 불안, 공포, 불쾌감 완전소거법, 4. 속효의 기분전환 앵커법
5. 불면해소, 숙면법, 6. 연령퇴행, 전생퇴행법
7. 성공하는 금연, 다이어트법, 8. 마음의 병 고치는 NLP 최면법



일시/① 오전반 - 개강 : 2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이후 2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8회
② 저녁반 - 개강 : 2월 10일부터 격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총 7회)
참가비 : 39만원

류한평 박사
대한 심리연구소장. 미국 유니온대학 심리학 박사. 최면과 자율훈련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심리치료, 교육, 의료, 수사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태극권 名人 박종구 선생의
진가(陳家) 태극권
특별 공개시연회

2월 8일(화) 오후 7시 (참가비 1만원)

태극권 고수(高手)가 펼치는 太極拳의 정수는 어떤 것인가?



박종구 선생 (사단법인 한마음 문화연구원 밝은빛태극도관 원장)
북경에서 열린 중국 민간전통 우슈대회에 북경 오파태극권 연합회 추천으로 출전하여 중국 고수들을 줄줄이 격파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통 태극권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는 小成을 넘어 이미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거고 하늘의 비밀을 훔칠 수 있는 大成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종구 선생 특별지도 〈진가 태극권〉 전문수련반
기초부터 철저히 닦아 2년안에 小成을 이루게 하려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태극권전문 수련반입니다. 참가자에게는 태극권 수련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일생일대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2월 11일 개강(총 100회 과정)
회비 : 전과정 300만원(1년분 150만원씩 선납)/선착순 접수마감

정신세계원 (02)747~7033 서울 종로구 원서동 원서빌딩(비원 옆/3호선 안국역)

파계땐 갈마 · 작법따라 제재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4>

범계

계율 범하는자 보면 세번까지 권고
재가자는 출가자 허물 들추면 안돼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 소양을 계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최고의 봉사이기도 하다.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킬 의무가 있다. 불교인으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계를 받고 계를 배우는 목적은, 계를 지키는 데에 있다. 만일 계를 배우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입으로 밥을 말하기만 하고 남의 보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계율에 대한 알음알이만 넓혀서 한갓 얘깃거리로만 삼는 다든지, 혹은 저 스님은 계를 범했고, 법도에 어긋난다는 등 비평만 일삼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절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절 집안의 크고 작은 얘깃거리들은 대부분 불자들로부터 나온다. 좋지 않은 일을 재미삼아 들먹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서 서로 허물을 들추다보면 결국 청정한 불자는 하나도 없는 셈이 되고 만다. 이것은 불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면 삼보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자들이 계율을 잘 배우고 지킨다면, 설사 계율을 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어지럽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계율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험담으로 계율을 범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세 번까지 권고하여야 한다. 세 번의 권고와 충고를 하여도 계를 범한 자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다면, 율장에 정해진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갈마와 작법(승단의 회의 제도)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계(誦戒) 포살을 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죄를 들추어내어 대중의 뜻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떤 범계 행위라도 본 대로만 말해야 한다. 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계를 범한 자의 신분도 개의치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계를 범한 자가 "저 사람도 계율을 범했다"고 말할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계(說四衆過)'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妄語戒)'고 하는 계를 더 범한 것이 된다. 또 계를 범한 사실을 들추는 자가 출가인이라면 '삼보를 훼방하지 말라(毁謗三寶戒)'고 한 계를 하나 더 범한 것이 된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이 세 가지 계는 모두 무거운 계(重戒)로서, 재가자와 출가자를 막론하고 가장 무거운 벌칙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라이죄는 계체(戒體)가 소멸되고 죽은 뒤에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이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계율에는 차제가 있다. 이른바 신분상으로 엄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죄를 들출 때도 비구는 7중(衆)의 허물을 모두 드러낼 수 있지만 비구니는 비구를 제외한 6중(衆)의 허물만 드러낼 수 있다. 출가 대중은 재가자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지만 재가자는 출가 대중의 허물을 드러낼 수 없다.

이는 부처님께서 비구만을 보호하려고 제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구는 일체의 계율을 연구하여 일체의 사람들과 대중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중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구니는 비구계를 연구할 수 없고, 재가자는 대계(大戒, 비구·비구니계)를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범계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출가인에게는 출가인에 대한 승단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출가인이 계를 범하더라도 재가자는 출가인의 죄를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권고하거나 충고하는 것마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 보다는 스스로 계율을 지키라는 것이다.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므로 출가자는 출가인의 계율을, 그리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깨달음의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반드시 깨닫겠다는 보리심을 내십시오"

오늘은 보리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범부 중생으로 머물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서원입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부처와 범부중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리심은 세간의 재물이나 명예처럼 다른 것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목표가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손에 부스럼이 난 사람이 독약을 잡으면 독이 따라 들어가지만, 부스럼이 없는 이에게는 독이 들어가지 않느니라. 부스럼이라 함은 위없는 보리의 인연이요, 독이라 함은 가장 뛰어난 묘약이니라"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독에 비유하면서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잡았을 경우,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절에서는 돈 잘 버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길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차라리 시간 날 때마다 증권을 사고 팔든가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즘 말로 '정말 영양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내고 아둥바둥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욕심을 버려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보시하라'는 등의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일생에 도움이 안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를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니 자비니 봉사니 하는 손해보는 짓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스럼도 큰 부스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도 보통 큰 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다운 인간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과 지혜에 비한다면 세상의 헛된 가치들은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쓰레기를 위해 금강석과도 같은 깨달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심을 내는 순간은 독약과도 같이 쓴 맛일지 모르지만 일단 부처님의 광명을 맛보면 감로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재가신도들에게 '남에게 베풀어라(施論). 청정하고 바른 생활을 해라(戒論). 그러면 하늘나라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는다(生天論)'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 모두가 이 법회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을 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회중계

봉은사 일요법회

〈2000년 1월 30일〉



원혜스님 〈봉은사 주지〉

재물 권력 명예보다 자비 봉사하는 삶이 참다운 인간의 길

26개대학 인도학과 개설

세계의 불교학 〈4〉 독일-3

74년 달라이 라마 방문후 급신장
함부르크·쾨팅엔大등 연구 주도

독일의 대학에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인도학과'인데, 현재 인도학과를 개설해 놓고 있는 대학의 수는 26개이다. 이 수는 70년대에 1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약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진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가 독일의 수도 본을 방문했던 1973년을 기점으로 20여년 동안 독일의 불교학은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했던 것이다. 1995년 독일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4만여 명의 독일인들이 자신을 불교신자로 분명히 밝혔던 것도 이 같은 성장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불교학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프라이부르크·본·쾨팅엔·함부르크 대학 등이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쉬나이더(U.Schneider) 교수와 본 대학의 프랭크 리차드 함(Frank Richard Hamm) 교수는 빨리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올덴버그(Oldenberg) 시대 이후부터 독일불교학의 메카로 자리매김 해온 쾨팅엔 대학의 하인츠 벡헐트(Heinz Bechert) 교수도 괄목할만 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그의 저서 중에서 〈상좌부 불교에서의 국가, 사회 그리고 불교(Buddhismus, State und Gesellschaft in den Lndern des Theravada Buddhismus)〉는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정치와 국민의식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고대 경전만을 연구하는 틀에서 벗어나 아시아 불교국가의 당면 문제를 연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시작한 불교학 연구가 이제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초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6년부터 불교 연구 전담 교수직을 두었던 함부르크 대학의 불교학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의 프란츠 요셉 베르나르드(Franz Josep Bernard) 교수는 두 권의 법집요송경을 출판했는데, 불교를 토대로 한 중국학 연구의 시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빈 대학에서는 1974년부터 불교학과 티벳학을 각각 개설했으며, 독일불교학계의 석학으로 꼽히는 에르니스트 스타인켈러(Ernst Steinkeller) 교수가 이 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은 80·90년대 독일의 대학에서 운영했던 세미나와 연구소에서 '불교'와 관련된 시간을 배정하고 또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1996년 인도학과 관련된 세미나를 찾아보면, 오스칼 본 하이누빌(Oskar von Hinuber) 교수의 '부처님 생애'와 '불교와 산스크리트어'를 주제로 한 강좌가 마련됐다. 본 대학에서는 1996년 보겔(C.Vogel) 교수와 아인멀(D.H.Eimer) 교수 등이 〈장아함경(Dighanikaya)〉과 〈법화경(Saddharmapundarika)〉을 주제로 각각 여름 세미나 강좌를 개설했었다. 1996년부터 벡헐트(H. Bechert) 교수의 '인도학·불교학' 연구 방법론이 소개됐던 쾨팅엔 대학에서는 빨리어, 싱할리어, 미얀마어 등 불교국가들의 언어와 그 곳의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막스 뮬러(Friedrich Max Muller·1823~1900)의 〈동방의 성서(Scared Books of the East)〉에서 시작된 비교종교학을 비롯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불교 경전은 빼놓을 수 없는 텍스트로 자리잡아 갔다.

이 분야의 기본 저서로는 루돌프 오토(Rudolf Otto·1869~1937)의 〈성스러운 것〉 프라디히 하이리어(Friedich Heilier·1892~1967)의 〈불교 삼매〉 구스타프 멘싱(Gustav Mensching)의 〈불교의 정신적인 세계〉, 에크하르트(Eckhart)의 〈독일의 법사들〉 등이 있다.

특히 에크하르트의 저술에 나타난 종교적 체험은 비교종교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내 의식이 확 뚫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크하르트의 지적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불성 사상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독일의 불교학은 풍부한 원전을 토대로 번역 작업과 관본간 비교 그리고 사전 편찬 등의 성과를 쌓아가며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체화시켰다. 또 이같은 성과에는 인도학이 개설된 대학들끼리 교류를 확대해 연구 주제의 중복을 막는 등 '열려있는 사고의 틀'도 한몫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독일불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14대 달라이 라마.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 · 한방병원 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승복은 왜 잿빛일까



청빈한 삶

흑과 백 초월

원융의 색

◇성철스님이 40년간 입었던 누더기 두루마기.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사를 벗어나고자 발심한 출가 수행자에게 부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오직 옷 세 벌과 발우 한 벌.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바랑 정도가 고작이다. 머묾없이 언제 어디서건 구도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스님들. 그들을 가리켜 운수 납자(雲水衲子)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의 색깔은 구름의 빛깔을 닮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고 싶어 한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세련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끌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복식문화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행을 낳고 변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승복(僧服)은 그 끝없는 갈구에 종지부를 찍는다.

승복의 잿빛은 걸사의 정신으로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출가 승려들의 각오를 투영한다. 또한 은은한 잿빛에서 우러나는 그 절제된 힘은 중생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색,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숨겨놓고 있는 색. 그래서 승복 빛은 색의 니르바나일지도 모르겠다.

잿빛이 원래 우리 나라 승복의 고유색은 아니었다. 백의민족이니 당연히 흰색 옷을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행자의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을테고 무언가 그에 걸맞는 색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아궁이에 타다 남은 숯이었다. 그 숯가루를 곱게 빻아서 자루에 넣어 물에 옷감을 함께 넣어 치대면 짙은 푸르른 빛깔이 서린 회색빛이 우러난다. 그것은 흑과 백을 초월한 조화의 색이자 원융의 색이다.

승복은 크게 의식복과 평상복으로 나눌 수 있다. 의식복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옷은 '가사(袈裟)'이다. 인도 말로는 '카사야(kaśaya)'로 '무너진 색, 흩어진 색' 즉 흐린 색을 의미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청색, 황색, 백색, 흑색을 오종색이라고 하여 승가에서는 이 다섯가지 색을 지워서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한 것은 아니다. 다섯가지 원색을 피하고 황색의 나무 껍질이나 푸른 진흙, 빨간 돌가루 등으로 물들여 화려하지 않게 했다. 탐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 누더기 여러 조각을 기워서 입은 '납의(衲衣)' 가사는 출가 승려에게 의식복이자, 몸을 가려주는 외투이자, 추위나 더위 모기 등을 피하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무소유한 삶의 길을 걸고자 하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가사는 본래 인도에서는 그 하나만으로도 온전히 의복의 역할을 했으나 중국에 와서는 기후와 풍습 때문에 '편삼'이라는 윗옷과 '군자'인 아래옷을 합쳐 꿰맨 옷으로 입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장삼'이라는 옷으로 변했다.

장삼은 소매가 앞 뒤 여섯 쪽으로 이어져 회장 중심의 곱쳐진 선이 경계가 되어 앞 네쪽, 뒤 두쪽으로 매우 넓다. 또 허리 아래에는 여분을 풍부하게 두어서 움직한 맞주름을 앞뒤 각각 네 개씩 여덟 개를 잡은 '팔폭 장삼'으로 되어 있다. 이 회색 장삼 위에 조계종의 경우 황갈색 가사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으면 가장 엄숙한 순간인 예불시간에 맞는 옷차림새가 된다.

평상복은 '유고(褲袴)'라 불리는 속옷을 입고 바지인 '고의'와 저고리인 '적삼' 차림이 보통이다. 그 위에 '동방의(짧은 두루마기 비슷한 것)'와 '두루마기'를 입으면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 외출복이 된다. 여기에 '수대'라 불리는 회색 천으로 만든 네모난 가방을 들고 밀짚모자를 쓰고, 하안 고무신을 신고 나서면 더할 나위없는 품위가 묻어난다.

승가의 반듯한 의제는 전장의 병사에게 있어 갑옷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자들의 의제로 분소의(糞掃衣)를 한정했던 것처럼 무소유는 수행자에게 있어 든든한 자산이나 다름없다.

〈사분율(四分律)〉에 의하면 분소의는 10종류가 있다. △소가 밟은 옷 △쥐가 갉아 먹은 옷 △타서 눌은 옷 △여자의 생리로 더러워진 옷 △출산 때 더러워진 옷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버린 옷 △묘지에 버려진 죽은 사람의 옷 △신불에게 발원을 하고 버린 옷 △관에 걸쳤던 옷 △소임자가 자리를 옮겨서 쓸모가 없어진 옷 등.

그러나 요즘은 형편이 다르다. 승복과 그에 따른 착용 예절은 간소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조류와 맞물려 전통 자체가 단절될 위기에 있고, 종교 복식의 근엄함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평상복과 외출복의 경계없이 '동방의' 차림에 시내를 누비고, 잿빛 대신 파스텔톤의 갖가지 색의 승복은 승가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 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명주 승복은 오히려 옷을 모시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의제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미 의제법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승가 의제를 율장과 청규에 맞게 법제화해 승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다.

승복은 그 빛깔만으로, 그리고 스님이 입고 있는 모양새만으로 세간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신성함과 출가자에 대한 경외감, 구도열을 가속시킨다. 또한 승복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다. 두해 전 무대에 올랐던 연극 '만행'은 승복을 입게 된 두 도망자가 승복을 통해 '참다운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전했다. 옷이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승복은 '나'를 만들기도 하고 '타인'을 감응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와 정신을 조화시켜 니르바나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글=도필선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승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종교의 신성함, 출가자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 일으킨다.



◇스님들의 위의를 마무리하는 가사. '반가사'다.



◇장삼에 대가사를 걸친 모습.



◇큰바위 한면을 다듬어 전신광배 모양을 만들고 그안에 불상을 새긴 진천 사곡리 마애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진천 사곡리 마애불 입상

전신광배 안에 불상새겨

어깨까지 늘어진 큰 귀 특징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이 마애불입상은 큰 바위의 한면을 다듬어 전신광배(前身光背) 모양을 만들고 그안에 불상을 새겼다. 단아한 스님형의 얼굴표정과 삼도가 뚜렷한 목, 어깨까지 늘어진 큰 귀가 특징이다. 당당한 어깨에 걸친 통견의 법의는 U자형으로 흘러내리고 왼팔 등에도 촘촘하게 옷주름 선이 형성되어 있다.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 모양이다.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세부 표현과 엷은 미소의 묘사로 불상의 자비스러운 얼굴을 완성시켰으나 이완된 면이 보인다. 또한 특징적인 광배모양과 함께 도식적인 옷주름의 표현 등 전면적으로 형식화가 진행되는 고려불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이처럼 이 불상은 신라말의 마애불상 양식을 계승하여 고려시대에 성행한 거구의 마애불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되는 수준작이다. 이 옆에는 암굴과 목조전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 도 유형문화재 124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 카드모양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수백을 지단이는 동판에 금을 입히고 색색 개금 불자 날까지 양상 맑게 아시길 기원하며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 관음도와 지장보살님 카드모양도 제작되었습니다.
庚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 그림모양을 살리기 위해 색상은 컴퓨터 화면과 같습니다부드러운 솜으로 닦지 않으시면 흠집이 생깁니다.
■개금 정안비 : 15,000원

용도: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불안정한 분·건강유지 기획 금봉스님 제작·공급처 반야원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동참금온라인
대구은행 : 179-08-084837 예금주 : 연화선원
우체국 : 7022217-0031235

찾아오시는 길 반야원 (053)943-4170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⑧ -끝

或將妄心遏捺 切中更加箇切字始得
혹장망심알랄 절중갱가개절자득시
令妄心不起爲佛事 徑山云 大丈夫漢
영망심불기위불사 경산운 대장부한
此喚作失正念 如石壓草 決欲究竟此一段大事因緣
차환작실정념 여석압초 결욕구경차일단대사인연
又如剝芭蕉菓子 一等打破面皮
우여박파초엽자 일등타파면피
剝一重又一重 終無 性燥竪起脊梁骨
박일중우일중 종무 성조수기척량골
了底日子 或觀想身 莫順人情
료저일자 혹관상신 막순인정
如虛空不起念如牆壁 把自己平昔所疑處
여허공불기염여장벽 파자기평석소의처
此喚作失正念 玄沙云 貼在額頭上
차환작실정념 현사운 첩재액두상
便擬凝心斂念 攝事歸空 常時一似欠人萬百貫錢
변의응심염념 섭사귀공 상시일사흠인만백관전
卽是 落空亡外道 被人追索 無物可償
즉시 낙공망외도 피인추색 무물가상
魂不散底死人 總而言之 怕被人恥辱 無急得急
혼불산저사인 총이언지 파피인치욕 무급득급
皆失正念故 無忙得忙 無大得
개실정념고 무망득망 무대득

의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깨부셔라
용맹심 내어 간절하고 간절하게

大底一件事 方有就向分
대저일건사 방유취향분

어떤 이는 망심을 가지고 억눌러서 망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공부로 삼는데, 이는 바른 생각을 잃고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으며 또한 과초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아 한 겹 벗기면 또 한 겹이 생겨나서 끝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이 허공 같다고 상상하여 담장처럼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바른 생각을 잃은 납자라 부른다.

현사(玄沙; 835-908) 스님도 "마음을 단단히 굳혀 단속하고 모든 현상을 공으로 귀착시키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단견(空無)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魂)만 흩어지지 않았지 실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하였다. 통틀어 말하면 모두가 바른 생각을 잃은 데서 오는 병통이다.

參工夫 疑情發得起 參공부 의정발득기
更要撲得破 若撲不破時 갱요박득파 약박불파시
當確實正念 發大勇猛 당확실정념 발대용맹

참선할 때 의심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그것을 깨부수어야 한다. 만약 그 의심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고 용맹심을 내어, 간절하고 또 간절합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될 것이다.

경산(徑山 : 1088~1163)스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장부가 일대사 인연(一大事因緣)을 결판내려 한다면 체면도 괭개치고 조급한 마음으로 꼿꼿하게 앉아 남의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평소 품어오던 의심을 붙들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치 남에게 백만관의 빚을 져서 그 사람이 잡으러 오는 상황에서, 갚아줄 돈 한 푼 없어 남에게 치욕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하여 급할 것도 없이 급해지고, 바쁠 것도 없는데서 다급해지고, 큰일 날 것도 없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 듯이 참구해나가야만 비로소 이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였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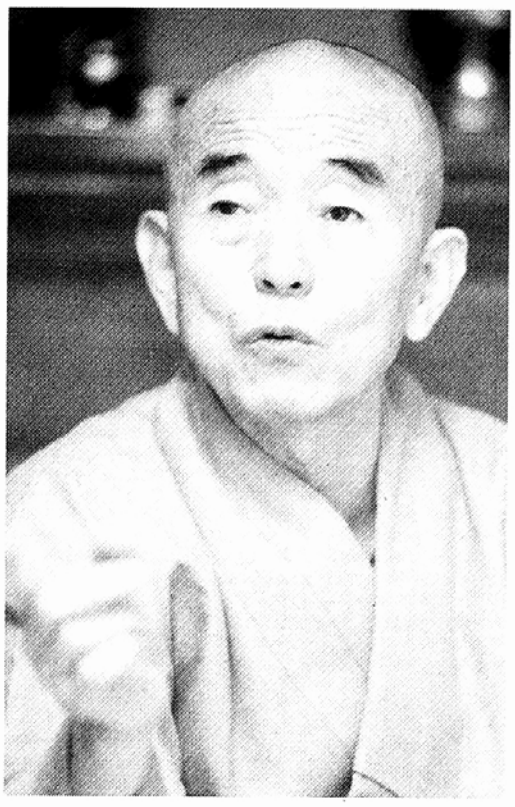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종성스님
임제선원장

1900년대의 말과 2000년의 초기를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을 지배하는 단어는 IMF,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이다. 반면 '나는 무엇인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 선을 찾고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200년, 300년 뒤 역사가들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라고 대답했다. 토인비는 요즘의 상황을 예측했던 것일까? 동양의 선이 멀리 동구라파의 헝가리에까지 퍼지고 있다. 서울 봉천동 임제선원에서 불조정법을 펴시는 종성스님을 만나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왜 그런지,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들었다.

"禪은 내가 주인되는 이치"



- 1930년 전북 부안 生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교에서 불교학 전공
- 68년 백양사에서 서옹선사를 은사로 득도
- 현재 서울봉천동 임제선원을 개당, 주석
-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辨' 등 논저 다수

"참사람은 높고 낮음 떠나 걸림없는 사람"

—스님께서는 일찍이 재가 시절에 선수행을 독실히 해서 견성인가를 얻으시고, 그후 출가하시어 평생을 선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스님을 선으로 이끈 계기와 공부과정이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나는 재가 시절 25세에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마음에 대하여 깊이 의심하던 중 홀연히 그 의심을 타파하고 호남의 선지식이신 부안 서래선림의 해안(海眼)선사께 입실하여 인허(認許)를 받고 여러 해 안거를 했습니다. 출가해서는 그저 이를 보임(保任)하여 서옹선사로부터 다시 인허를 받았습니다.

내가 선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직전의 격동기였는데, 당시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풍미하던 때였어요. 나 역시 그때 사상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기독교 서적도 공부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유신(唯神), 유물(唯物)사상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전지전능한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그러한 피조물들 역시 완전해야 할텐데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인간은 원죄의 그늘 속에서 죄악을 범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신의 섭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을 결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유물론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모두 물질로써 이루어졌고, 물질이 고도로 발전하면 사람의 정신현상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마치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담에서 담즙이 분비되는 현상과 같다는 설명이었지요. 그런데 과학적인 인과법칙상 물질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기적인 물질이지 유기적인 정신현상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이론상 크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불교에서 삶의 길을 찾았다는 말씀인데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심(唯心)사상이야말로 불합리한 사상을 지양한 절대적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체가 마음이 지은 바이니 그 마음만 바로 알고 깨달으면 우주와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서 본래로 영원한 광명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실상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보고자 대학시절 선학(禪學)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이 〈선가귀감(禪家龜鑑)〉 〈수심결(修心訣)〉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선학 서적들이었어요.

참으로 초목와석(草木瓦石)이 마음으로써 방광설법(放光說法)을 하고 있으며, 초롱초롱하고 고요하며, 본래 신령스럽고 밝은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본성은 성성적적(惺惺寂寂) 소소영영(昭昭靈靈)한데 왜 나는 그렇지 아니 한가? 하고 크게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칠일칠야 식음을 전폐하고 참구하던 중 상기가 되어 대열병을 앓기도 했어요. 다시 의심덩어리를 단전에 내려가지고 한번 조식(調息)하면 찰나 칠통(漆桶) 같던 의심이 타파되었으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희열과 광명이 내 몸과 마음과 우주에 충만하고 있음을 실제로 체득했습니다. 일본의 선승 야마다 레이닝(山前靈林)이 쓴 〈선학독본〉에 '참선 중에 상기가 될 때는 가만히 기운을 내려서 단전에 화두를 들고 조식(調息)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를 하라' 는 가르침대로 한 것이었지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선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의 관심은 언론의 주요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구라파에서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선원과 명상센터가 미국에만도 천개가 넘고 수행하는 사람은 천오백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코 물질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가 있어야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계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게 변해가고 있어요.

선에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 그러니까 처해진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인 '나' 를 찾는 것이 선이고요. '내' 가 있으면, 이 자리면 어떻고 저 자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주인인데.

외국에서 선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선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가부좌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들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로 알아 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종단의 시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화두 들면 그런 것 싹 없어집니다. 화두일념이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언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라고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천수경 · 반야심경 · 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샤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토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차돌암벽의 특급생수), 바람굴(더운바람, 찬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용맹정진 : 토요일 저녁 8시~일요일 아침 8시
※수행내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와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축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건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멸,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신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홧병, 냉병, 감기몸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차지 않고 혈덕대지 않으며 단전혈, 용천혈, 노궁혈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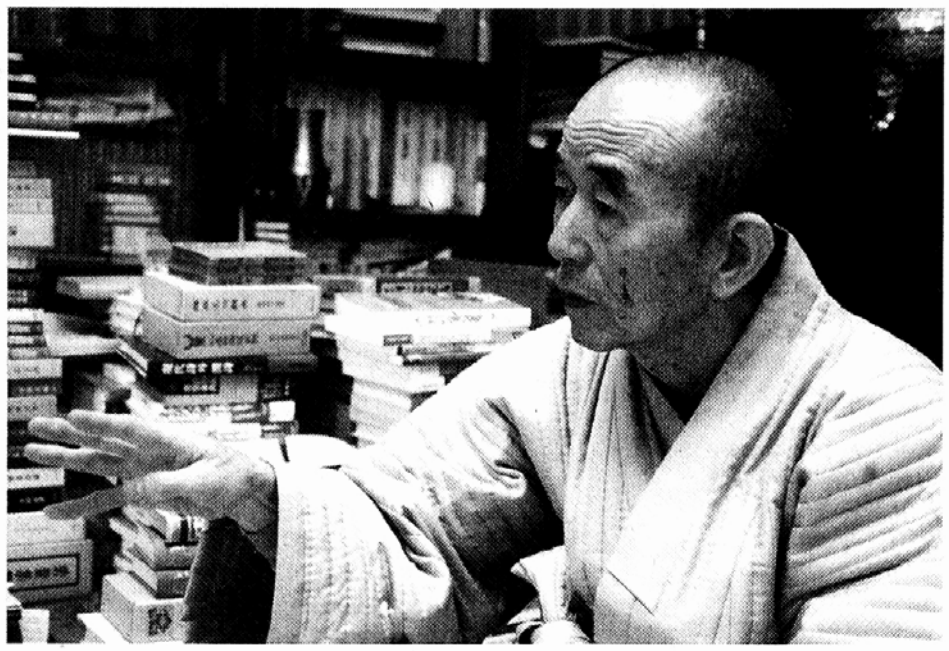
※49개, 컨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 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rn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자기업 신성기획 확장 이전
불자기업 신성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스님 및 불자님들의 꾸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불자기업 신성은
각종 불사현장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공법당
▲시공전선 전개도〈의장 16525호〉
▶ 특 징
1. 일체형 - 접촉 불량 無
2. 편리형 - 연등고리
3. 불자 기업 - 卍 표시
4. 절약형 - 가격저렴
5. 확실한 A/S
6. 반영구적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취급품목
· 연등 전기배선, 현수막, 간판, 판촉물 등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본 사: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공 장: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호
TEL:02)993-8903~4
H.P:011)369-3838 FAX:02)993-8905



◇정진중 짬을 내어 가끔 붓을 잡는다. 붓글씨를 통해 불자들에게 조사들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증성스님은 외국에서의 선에 대한 관심을 자랑으로 여기기보다는 더욱 정진하라는 경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는데, 스님께서는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은 누가 뭐래도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입니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전거(典據)를 대라고 하는데, 선의 근원인 삼처전심(三處傳心)은 〈선문경〉에 나옵니다. 또 〈선문경〉을 위경이라고 하는데, 왕안석은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화두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이 어째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학적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근본이 마음인가라는 원리를 안 뒤에 참선하라고 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에서도 차례를 건너뛰면 안된다고 했어요.

성철스님께서 백일법문을 하셨는데, 모두 교학을 말씀하셨어요. 화엄, 천태, 화두 드는 법, 과학 얘기를 하셨어요. 수좌들로 하여금 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일법문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임제선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시킵니다. 기초교리도 가르치고, 어록도 가르칩니다.

책이 왜 이리 많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4만권쯤 될텐데요. 선학서적으로 치면 대학의 도서관보다 많을 겁니다. 웬만한 선학서적은 모두 있습니다.

정치 과학 등 일반서적도 많습니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름대로 일가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매년 책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작년에는 상금을 주고, 올해는 몽블랑 만년필을 보내왔더군요. 이제 책은 그만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수행을 하고 싶어도 사찰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은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던지 쉽던지, 나는 애초부터 선 본위로 하려고 이곳을 임제선원이라 이름붙였어요. 일반 보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기초교리 가르치고, 화두 대신 선어록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화두 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화두 드는 법만 잘 알면 어디 가서도 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은 자기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두 또한 자기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긴 쉬워도 실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선원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신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 염불, 교리 등으로 포교한다고 하는데, 어려우나 쉬우나 선은 해야 합니다. 옛 조사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계삼천겁(持戒三千劫)
송경천만편(誦經千萬編)
불여일식경(不如一食頃)
단좌염실상(端坐念實相)

삼천 가지 계를 지키고, 천만편의 경전을 독송해도, 밥 한술 먹는 사이에 마음의 실상을 염하는 것만 같지 않다는 뜻이지요. 자기 주체를 세우는 가르침을 뺀 불교는 온전한 것이 아니지요.

—근래 여러 곳에 선원이 생기고,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가수행자에게는 지도해주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수행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선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온 불문율입니다. 몽산선사께서는 반드시 견성하고 문자에도 밝은, 종설(宗說)에 겸통한 대종장(大宗匠)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法器)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행해(行解)가 상응해야 함을 조사스님들이 역설하신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선지식은 성철선사, 서옹선사, 향곡선사입니다. 세 분 모두 공교롭게도 임자생으로 성철선사와 향곡선사께서 살아계신다면 올해 세수 여든아홉입니다. 서옹선사는 일찍이 어록의 왕이라고 하는 〈임제록〉을 연의하시고 착어를 붙여 내신 스님입니다. 지금도 선문제일서인 〈벽암록제창〉 법문을 하시고, 수행자들을 제접하고 계십니다.

성철선사는 내외전에 두루 해박했습니다. 〈선문정로(禪門正路)〉 〈한국불교의 법맥〉 〈본지풍광(本地風光)〉을 펴내셨는데, 참선자의 필독서입니다. 성철선사께서는 돌아가시면서 후학들에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해놓은 것을 보고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명안종사가 계시지 않는다면 남기신 저술을 보면 됩니다. 옛 가르침에도 "심조고교 고교심조(心照古敎 古敎心照, 마음을 옛 어른들의 가르침에 비춰 본다)라고 했어요.

물질 풍요해도 항상 불만
화두일념이면 망상사라지니
처한 자리에서 '나' 찾아야

—선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인간상을 스님께서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 하시는데, 어떤 것인가요.

▲내 말이 아니고 〈임제록〉에 나옵니다. 높고 낮음의 어느 위치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해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임제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불법은 인위적인 꾸밈이 필요하지 않다. 꾸밈이 없는 일상의 자유로움과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본래의 불법이니, 변소에 가고, 옷을 입고, 일을 하며,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웃지만 지혜있는 사람은 꾸밈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안다. 옛사람도 '밖을 향하여 공부를 짓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밖에서 끌어온 것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떠나버릴 것이니,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실의 눈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고 이르지 않았는가.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어느 곳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위의 높낮이, 하는 일의 귀천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처지에서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때 묻히지 않는 일만 할 수 없잖습니까. 사람의 빛남은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산삼 먹은 법용스님

오대산이나 설악산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 어쩌다가 산삼을 캐는 심마니를 만날때도 있고 또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캤다는 산삼을 보기도 한다. 휴전선 이남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이 가장 산삼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고 또 그곳의 산삼이 약효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산삼 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살고 있을 때다. 그곳 오대산에서만 내리 몇 철을 산 스님 가운데 '법용'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법용이라는 불명을 가진 스님이 두 분인데 그중 한 스님은 시력이 몹시 안 좋아서 무엇이든지 눈앞에다 대고 보아야 사물을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지독한 근시에 몸도 약했다. 눈이 나쁘면서도 평소에 안경을 쓰지 않고 지냈는데 왜 안 쓰느냐고 물으면 그냥 안경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 먼 법용스님'이라고 불렀다. 눈도 나쁘고 몸도 약했지만 마음은 썩 좋은 편이어서 우리가 '눈먼 법용스님' '눈먼 법용스님' 하고 불러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는 그런 스님이다.

늦은 가을날이었다. 결제를 앞두고 있는 때라 스님들 대부분이 밖에 외출하고 없었다. 법용스님은 혼자 남게 되었다. 무료한 나머지 이곳 저곳 산내 암자며 큰절(월정사)이

거금주고 산 귀한 산삼
맛이 어떤가 궁금하다고
한입에 먹어버린 객승

며 근처의 사찰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데 오대산이 워낙 큰 곳이라 며칠씩 걸렸다.

그런 중에 어느 사찰의 객실에 묵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차나 한잔 하라고 방으로 불렀다.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방안에서 싸하니 인삼냄새가 나는지라 무심코 "냄새가 썩 좋은데요" 한마디 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이 스님이 냄새만 가지고도 산삼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는 심마니한테 오래 된 산삼을 한 뿌리 샀습니다. 스님은 냄새만 맡고도 아시니 한번 보시고 감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닌가. 법용스님은 산삼에 대해서는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었는지라 어떻게 생긴 것인가 궁금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빙긋이 웃기만 했다. 주지스님은 산삼을 꺼내왔다. 우선 포장부터가 달랐다. 붉은 비단에 싼 보따리를 풀자 그 속에서 다시 오동나무상자가 나오고 오동나무상자를 열자 파란 이끼를 깔고 그위에 산삼이 누워 있더라는 것이다. 주지스님은 연신 "진짜가 맞지요? 몇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물었지만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법용스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는 "예! 예! 아주 좋습니다"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밖에서 주지스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주지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밖에 있는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법용스님은 그 산삼을 통째로 입안에 털어넣고 꾹꾹 씹어먹어 버렸다. 실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주지스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놀라 말조차 못했다. 거금을 주고 산 귀하디 귀한 산삼이었다. 그런 물건은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것인데 그만 생면부지의 객승이 먹어버렸으니 이런 기가 할 노릇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스님! 어찌 이럴수가 있소?" 이것은 처음에 나온 점잖은 말이고 화가 난 주지스님 입에서는 험한 욕이 나오기도 할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용스님은 "산삼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산삼이 또 맛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 먹었습니다"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다 .

주지스님의 입장에서는 실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산삼은 법용스님의 뱃속에 들어가고 만 것을. 사실, 그 산삼은 주지스님이 따로 긴히 쓸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화를 참고 "이미 먹은 것을 어찌 하겠소. 약효를 보려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두 세끼를 굶도록 하시오. 그리고 객실에서 잠이나 푹 자도록 하시오" 했다고 한다. 스님들에게는 이런 화통한 일면도 있는 것이다.



그림 · 문병성

산삼은 천하에 알려진 영약(靈藥)이다.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노인을 회춘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약이다. 산중에 사는 스님들에게도 공부를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공부에 일로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다. 반대로 젊고 건강한 스님이 탐해서는 안되는 약이기도 하다.

양기를 지나치게 강하게 하여 오히려 수행을 방해한다. 오음성고(五陰盛苦)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산삼을 먹은 것이다.

그후 법용스님은 겨울 내내 몸에서 나는 열기에 시달렸다. 오대산은 몹시 추운 곳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는 큰 방에 따뜻하게 불을 때고도 스님들은 추위에 시달린다. 그런데 법용스님은 큰방의 온기도 견디기 힘들다는 듯 몸에 열이 나 겨울 내내 내의를 벗고 지낼 정도였다. 기운이 넘쳐서 계속되는 공부에도 지칠 줄을 몰랐다. 납월 팔일 부처님성도절 용맹정진 때도 힘든줄 모르고 거뜬하게 해냈다. 보통 반결제를 지내면 모두들 힘든 공부에 지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법용스님은 도무지 지치지를 않았다. 모두들 산삼을 먹은 스님은 다르다고 놀려대면 웃으면서 "몸은 건강해졌는데 솟아나는 기운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줄 모르는구만"하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나도 저런 행복한 고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네"하고 놀렸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순수익금은(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 100일분을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1. 간이 나쁜사람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3.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줍니다.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15. 고혈압, 저혈압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7.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19. 불면증, 황달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대리점 및 판매사원 모집

전통민간요법 방식 제조/ 발명특허 제117954호
가시달린 뽕나무의 놀라운 효능!!!
꾸지뽕(산뽕) 엑기스 개발


꾸지뽕 나무


꾸지뽕 엑기스

1. 야생(산)에서 서식하는 꾸지뽕나무를 채취하여 제품 생산
2. 전통비법에 의한 열탕추출법(10시간이상다림)
3. 수안보 특산물 지정
4.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동 체결(생산기술, 연구실험, 위생관리 제휴)
5. 충청북도 신지식인 선정(배영환 사장)

▶ 꾸지뽕 엑기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각종암, 간질환, 당뇨, 고혈압, 변비, 성인병, 술 많이 드시는 분

꾸지뽕나무란?

꾸지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꾸지뽕(상백피)는 생김새가 보기 좋은 편이 못되고 흔하지도 않은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약재로는 꾸지뽕 나무처럼 여러 질병에 두루 뛰어난 효과가 있는것은 찾기 어렵다.꾸지뽕나무는 여러면에서 뽕나무보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뽕나무보다 그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박사 민윤식
- 보 도 MBC TV "고향은 지금", KBS TV "7시 뉴스", 중앙일보

구입문의… /수안보 본사 및 총판 (0441)845-0117
/청주점 (0431)213-2551 / 대전점 (042)255-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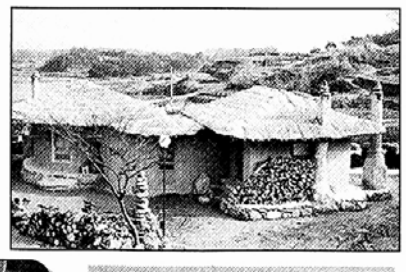
※ 전국 대리점 및 유능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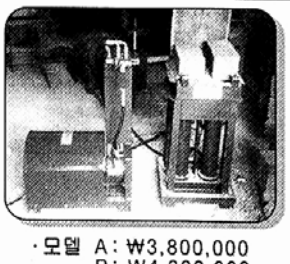
산학협동 충주대학교 TEL. (0441)841-5247
(주)뽕그린식품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33번지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건축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평지에 가깝게 세운 백제가람

금산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20

◇금산사 미륵전(오른쪽)과 대적광전은 지형을 탑은 건축물로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지혜도 담겨 있다.



호남선을 달리다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만경평야나 김제평야 등을 지나게 되면, 낮은 능선과 넓은 들판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경관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옛 백제의 중심지로서 이른바 '산도 들도 아닌'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험준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 경상도 - 옛 신라지역과는 대조적이다.

좋은 건축이란 우선, 땅의 생김새를 잘 이해하고, 지형에 잘 들어맞는 건축이다. 물론 좋은 땅을 고르는 기술 · 풍수지리술이 뛰어나야 하겠지만,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땅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축가는 땅의 약점들을 치유할 만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연과 친화력이 강한 한국 건축은 더욱 더 땅의 형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백제나 신라시대의 건축물들은 모두 사라져서 정확한 모습을 알 길이 없지만, 이 지역 땅의 생김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략의 윤곽을 상상할 수는 있다. 한국 건축물은 땅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다.

김제의 금산사는 한반도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을만한 대가람이다. 과거 전성기 때는 대사구, 광교원, 봉천원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각 영역에는 수십동의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현재의 가람은 대사구 영역에 불과하고, 다른 두 영역의 건물들은 다 없어져서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산사도 십여동의 우람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대사찰임에 분명하다.

금산사는 모악산 기슭의 넓은 경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해인사나 부석사와 같은 경상도의 사찰들에서 볼 수 있는 변화 무쌍한 지형의 변주는 들을 수가 없다. 모든 건물들이 놓여있는 자리는 거의 높이 차이가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가람에는 중요한 불전과 법당들의 위계가 정해져 있다. 어떤 건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야 하고, 어떤 건물은 중요도가 떨어져 약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물은 중심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덜 중요할수록 외곽에 자리를 잡는다. 경사지에 세워진 사찰이라면, 높은 곳에 중심 건물을 위치시켜서 그 중요도를 강조할 수 있지만, 금산사와 같이 평지에 세워진 가람의 중심 건물을 강조하기는 쉽지가 않다.

좁고 높다란 미륵전
넓고 낮은 대적광전
언덕사이 조화있게 배치

이 절에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과 보물로 지정된 대적광전이라는 빼어난 건물들이 있다. 미륵전은 현존하는 유일의 3층 건물로서 그 희귀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대적광전은 80년대 불에 타버린 것을 다시 복원한 것으로 품격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모든 모습은 불타기 이전의 것을 고증하여 정면 7칸의 기다란 건물이다. 미륵전이 좁고 높은 수직적 형상이라면, 대적광전은 넓고 낮은 수평적 모습으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두 건물의 기단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건물 모두, 기단을 낮은 두 개의 단으로 쌓아 기단의 높이감을 줄이고 있다. 대적광전의 형상도 수평적이지만, 높지 않은 기단을 그나마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건물은 아예 대지에 밀착된 듯한 느낌을 준다. 또, 수직적인 미륵전 역시, 기단의 높이감을 줄였기 때문에, 마치 땅에서 불쑥 솟아난 건물같이 보인다. 두 건물은 전혀 다른 감각의 건물로 보이지만, 이처럼 땅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공통성이 있다.

누각인 보제루를 들어서면, 정면에는 옆으로 길쭉한 대적광전이, 그 오른쪽에는 대적광전과는 직각방향으로 놓인 3층의 미륵전이 우뚝하다. 한 장면에 두 개의 중심건물들이 하나는 수평성, 다른 하나는 수직성을 강조하며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유심히 관찰하면, 두 건물 사이에는 송대라는 낮은 언덕이 솟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송대라는 자연 지형이 중심이고, 그 좌우로 대적광전과 미륵전을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다.

미륵전은 미륵불을 모신 미륵신앙의 전당이고,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화엄신앙의 표상이다. 금산사가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불의 사찰로 창건될 때는 미륵전이 중심불전으로 역할했지만, 후대에 화엄신앙이 습합되면서 대적광전이라는 또 다른 중심불전이 첨가되어 2불전제 가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두 건물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이라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강조한 것이고, 이 두 극단들을 송대라는 자연지형이 융합시키고 있다.

대적광전의 뒷산은 낮고 평퍼짐하게 펼쳐져 있다. 뒷산의 모습이나, 그 앞에 놓여진 대적광전의 수평적인 모습이 서로 닮았다. 반면, 3층 미륵전 뒤에는 가까운 배경산이 없어서 독자적인 수직성이 더욱 돋보인다. 이 역시 지형을 닮은 것이다. 두 건물 모두 평지라는 지형상의 난점을 훌륭하게 극복한 성공적인 작품들이다. 이런 기법을 '평지성'이라 부를 만 하며, 옛 백제지역에 세워진 유서깊은 가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다.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불교 사이버 시민운동 불붙어

불교정보센터 '불교NGO사이트' 묶어
평불협 내달 종합사이트 '부다넷' 개설
경불련 · 불교인권위 · 인드라망도 추진

"인터넷 시민운동이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을 폭로하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민단체들이 정치인, 관료, 재벌이라는 철의 3각 관계를 부수면서 일반 시민의 지원을 받는 중요한 세력이 되고 있다"(1월18일자 美 파이낸셜 타임스)

시민단체들이 낙천 · 낙선운동과 후보자 바로알기 운동을 잇달아 선언하면서 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기성정치에 대한 극도의 냉소 속에 선거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봇물을 이루면서 사이버 공간이 대안 정치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 시민단체들도 '사이버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4백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00년 총선 시민연대'(www.ngokorea.org)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www.ccej.or.kr)을 비롯,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www.koreango.org), 사이버참여연대(www.peoplecap.net) 등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돕는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어 '인터넷 참여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의 힘', 파를 과워의 매체로서 인터넷의 효용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늦은감은 있지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좋은벗들(www.jungto.org) JTS(www.jungto.org/jts) 불교환경교육원(www.jungto.org/baea) 생명나눔실천회(www.lisa.or.kr)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www.dharmanet.net/jaega) 등 2-3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을 모집해 온 불교시민단체들은 게시판을 통한 회원 또는 방문객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교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속보제공, 여론 조성에 발빠르게 대응해 온 '자비의 전화 불교정보센터'(www.budinfo.or.kr)는 재가연대의 지원을 받아 실천승가회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등 불교단체의 홈페이지를 같은 서버 아래에 두고 생명나눔실천회 등 기존의 불교NGO사이트를 연동시키는 '불교NGO 모음 사이트'로서의 변신을 논의하고 있다. 개별 단체들이 원할 경우 사이트 이름도 바꿀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회는 2월초에 종합 인터넷 사이트인 '부다넷(buddhanet)'을 개설, 불교통일운동을 대표하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다. 미 U.C.L.A.대 서버와 연동되는 이 사이트는 여행, 관광 등 불교문화사업을 안내하는 '부다랜드', 통일 및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니코', 불교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코미트'로 나뉘 운영된다. 부다넷에는 그간 축적된 불교통일운동 관련 자료가 방대하게 계재돼 시민들의 통일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실천승가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를 비롯,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불교인권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도 2~3월중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인권교육과 방송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대표인 진관스님 석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불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이버 직매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불교정보센터 신희권국장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보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국내 · 외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불교계도 사이버 시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정부에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네팔 불자모임 '열악한 인권상황' 고발



◇조계종과 이근후교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한 네팔불자모임.

'한국은 아직도 인권 후진국인가'

1월 2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 경불련) · 네팔불자모임(회장 인드라 구릉) 주최 '네팔 불자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는 이런 귀에 익은 화두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모임이었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에서 입국한 2천여명의 네팔 노동자 가운데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기념법회, 네팔 전경을 담은 비디오 상영, 네팔의 전통적인 새해맞이 축전인 '로사' 공연과 네팔 노동자들의 조계종(사회국장 정념스님 참석) 및 10여년간 네팔현지 무료의료 봉사를 펼친 이근후박사(이화의대 교수)에 대한 '감사의 선물'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눈에 띈 것은 행사 도중 한국에서 사망한 37명의 네팔불자 사진과 사망원인을 적은 슬라이드 상영시간. 한국에서 핍박받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이 시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37명의 사망자 중 70%가 과로사일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노동과 박봉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내 최류 외국인은 36만 8200여명, 이 가운데 34.2%인 12만600여명이 비자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다.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박봉에 열악한 생활환경, 한국인들의 멸시가 한국을 만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경불련 산하의 외국인노동자마을(02-757-7388)과 석왕사에서 운영하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이사장 영담스님, 032-654-0664) 등의 단체가 95년부터 네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황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여시아문 역시아문은 '들은바, 한 치의어긋남도 없이전한 경전'을 뜻하는 시대적책임의 탐구를 올린 출판사입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내세울 '나' 없다면 모든것에 자유로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합니까

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화가 날 때나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힘이 들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 학생이 무슨 말이건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께요. 흘려 버릴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군요. 그래서 얘기하겠는데, 나 아닌 나가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모두 그런 겁니다. 내가 없다면, 내세울 내가 없다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화가 나고 생각이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끼는 마음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누가 좋다, 어떻게 돼서 기쁘다고 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지어낸 잣대, 내가 지어놓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속상해 하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깥으로 다가오는 것에 속아서 울고 웃는 내가 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금강석같이 움직이지 않는 참 나의 자리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 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나는 마음에 속지 않고 답답히 지켜볼 수 있는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유로울 겁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전자에 입력된 구정물을 새물로 바꾸어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 씀씀이와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두들 타의에서만 꼭 그달리며 찾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복으로 나가서는 나를 발견하기 어렵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다 해 먹을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람,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나, 주인공을 믿고 (참나, 주인공은 또다른 이름입니다)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 행동 하나 하나 하는 거, 효도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서 하게 한다, 내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주인공에다 탁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뛰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모든 것을 학생을 이끌고 가는 근본 뿌리인 주인공에 맡기며 살아가길 바래요.

선업도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문 저는 뉴에이지 운동, 최면, 잠재의식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큰스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이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므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큰스님께서 좋은 업도 업이므로 공하다고 하신 부분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하면서 상대를 원망하고 증오하니까 딱 막혀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옆의 나무가 스쳤다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가 부러진 거는 자기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어째서 옆의 나무 잘못입니까? 옆 나무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원망이 돌아가고 증오가 돌아감으로써 항상 악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선업 짓는 것이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악업에 속하죠.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악업은 물론이고 선업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이 좋고 악업을 짓게 되면 선업이 좋으니 굉생, 아니 세세생생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놓아라,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공덕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내세워 봤자 절대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 나무가 살고 돌아가는 그 자체는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좋고 나쁘다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은 그 뿌리에서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관(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카가 너무 말썽을 피웁니다

문 스님께 합장 삼배 올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너무 말썽을 피워서 식구들의 걱정이 큽니다. 공부를 안하는 건 말 할 계제도 안 될만큼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하는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는 데다가 더 어려운 건 타이르거나 설명을 해줘도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수련회도 보내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그냥 가슴만 치고들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코너에서는 손 쓸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며 너무 늦었다고 한답니다. 지금 울케는 걱정이 너무 커서 신경성 병들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꼭 답변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스님, 건강을 소원하면서 어지러운 말들 접겠습니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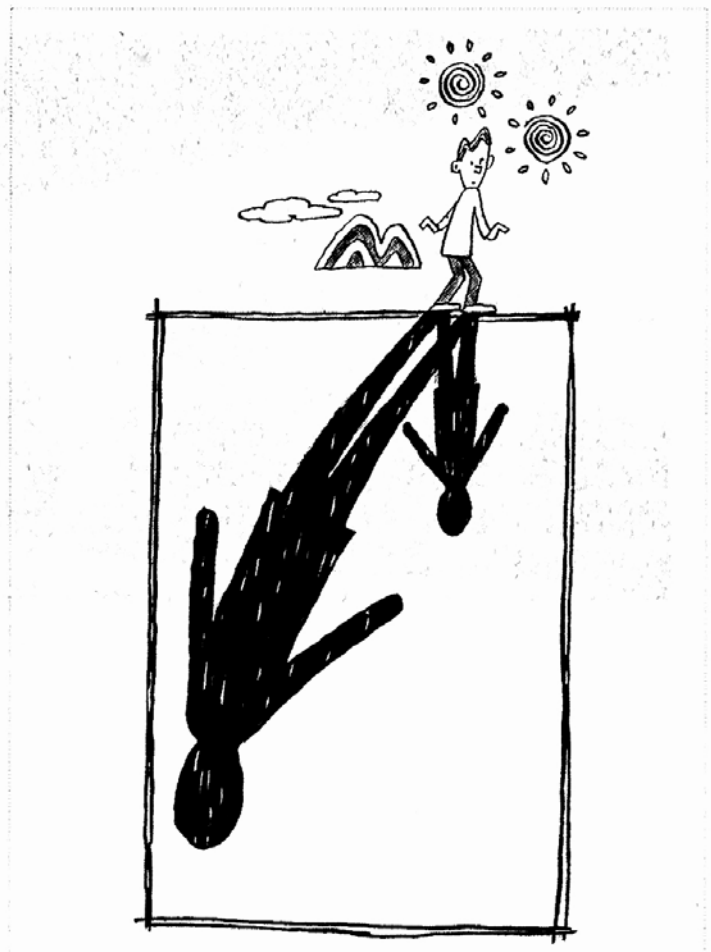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다해 삼배를 올립니다.

답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고 또 심으니까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가 또 열릴 수밖엔 없죠. 그래서 마음의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는 내가 탄생한 근본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는 부모님을 형성시킨 자리요, 형성시키는 데 에너지가 배출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이 말입니다. 외박을 하고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 천차만별로 부모들의 속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촛불 하나가 그것을 다 대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 생각 한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에도 갑니다.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만 마음은 물 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촛불 하나를 진짜로 믿고 위아래를 둥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 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상대방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질 않게 되죠.

예전에 어느 집 아들이 나가서 외박을 하고 본드를 들이마셔서 노랗게 돼가지고 다니더랍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 가서 만날 빌어도 선생님들은 퇴학시킨다고 그러자 여기를 오게 됐는데 이거는 한이 된 거죠. 3대 독자가 그러니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자나깨나 정말 진실로 말기며 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큰 김치 항아리를 모두 내놓고 씻어서 옮기고 있는데 아들이 오더니 "어머니, 제가 좀 옮겨 드리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또 어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만 보는데 일을 다 해놓고는 "어머니, 그동안 속 많이 썩혀드렸죠? 이젠 속 안 썩혀드릴게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게 됐으니까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 애도 그 애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입력시킨 수많은 의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풀려나와서 분탕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입력된 것은 과거에서부터 그 아이를 이끌고 온 그 근본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그저 아이가 나가서 안 들어와도, 또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겉으로는 아이에게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무조건 그 걱정거리를, 그것이 나온 그 자리에다가 맡겨 놓아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연을 맺게 한 것도 당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과거에서부터 얽혀있는 이 인연들을 녹이고 저 아들이 건강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당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지극하게 관해 나가신다면 그 아이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연결된 그 자리에서 불이 들어오게끔 할 것입니다.

☞ 16면으로 계속

위대한 것 보고 굽신거리지 말고 거지 보고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헐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주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책!

부처님을 닮아 가는 마음



자원 스님 지음
사륙판/240쪽/5,000원

효도, 수행의 자세, 보살의 마음가짐, 보시, 자비, 올바른 신행, 일상생활의 지혜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일반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대한 경전 속에서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생활 속의 이야기들로 녹여낸 이 책은 신행과 삶의 지침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명보살이 대승보살의 길과 그 공덕을 설한 책!

대장엄론경



구마라집 한역/황룡 역
신국판양장/422쪽
15,000원

이 경은 각종 역사와 전기, 우화, 비유, 인연, 본생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불교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즉 삼보 공경, 지계, 보시, 소욕, 다문, 인욕 등의 공덕을 설하여 우리 모두 대승보살의 불도를 닦는 데 정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헐빌딩 3층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com ● FAX:(0343)470-3116

마음 근본에 되맡겨 놓을때 참나 발견

☞ 15면에서 계속

마음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문 스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님의 가르침에 인연되어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부의 진짜 맛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법회시간이 소중하고,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를 꼭 해야만 하겠다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 자신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자리를 자나깨나 지켜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마음을 지켜보다 보니 요즘에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공은 나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어떠한 삶을 살게끔 하려는 걸까?" 하는 의정입니다. 이러한 의정이 나온 자리에, 다시 그 의정을 되맡기며 "나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끌어가는 주인공! 당신은 알고 있잖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고 계속 관하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저의 이러한 마음상태에 대해서 스님의 큰 가르침을 간절히 청하옵니다.

답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이기에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이 있어요. 형성을 시키는 데는 모든 게 합쳐져야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진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고 주인공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음을 믿고 맡기세요. 그 자리에 맡겨 놓고 나오는 대로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 자기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금새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 많이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 되면은 걸림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은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50% 물질세계만 알게 되니 그러면 걸려서 못삽니다. 지금은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되는 시대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으로 잡아 먹어야 잡아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쭉정이를 낳는 벼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을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이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자리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그 자리 아닌가 하고 되맡기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누가 금방 죽는다고 해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지만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 뛰죠. 그냥 배 안에 탄 중생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고 말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반드시 뒤집히고 말 거예요.

자기마음 못 다스리고 고개 숙이지 못한다면 쭉정이 벼이삭과 같아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떠나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고기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진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형상은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며 부처님은 형상으로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고 난 뒤에는 형상으로 보이는 저 부처님이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증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부가 익을 때까지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심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놓은 것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죽음의 의미 알고 싶어요

문 덕 높으신 스님께 강로법문 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는 사람, 고질병에 걸려 재산을 탕진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죽는 사람도 있고, 반면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나 자신이 갈 날을 예언하고 좌탈입망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현장에서 업무상 여러 죽음의 형태를 눈으로 자주 목도하면서 말 못할 여러 가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 죽음이란 것을 생각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또는 지인 등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통곡하며 한없이 슬퍼합니다. 어떤 도반은 살아있을 때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의미있는 진언을 합니다. 부처님 입종은 태연자약하셨고 자긴 자신과 법을 등불삼아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다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도반들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다가올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길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옷이 더러우면,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흙탕물을 튀어도 그냥 집에 가서 얼른 벗습니다. 남이 볼 때 흉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기가 찌그러지고 저기가 찌그러져서 아주 못생겨도 '아이구 죽으면 어쩌나!' 이러거든요. 그걸 다시 개조를 할 생각도 안 하구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보질 못해서 암흑이라는 게 아니에요 큰 것도 아주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똑바른 눈이 못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는 대로 그 눈이 맡입니다. 개가 사는 집도 좋게 보이고 또 사람이 사는 집도 아주 오막살이로 보이고, 자기가 한 것만치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욕심에 빠진 그 집착하는 의식이, 좋은 데로만 찾으니까 그런 것이 좋게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기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입력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개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닭집으로도 들어가고, 토끼집으로도 들어가고, 새둥우리로도 들어가고, 까치둥우리로도 들어가고 뱀 소굴로도 들어가고, 별 짓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컴하면 아니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자연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잠재의식 자체가 여기에서 자기가 모든 살아나간 거, 어려서부터 온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들어서도 알고, 자기가 알기도 하고, 그렇게 아는데 알고 있다가 죽는다 합시다. 그럼 보통 자기가 순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착한 보살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보살로 나투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보살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분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아주 곱게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주 악마로 살았다면 이건 그냥 큰 사자로 뿔이 돋히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 착이 많으니까 '나는 안 가' 하면은 '어, 그래 안 가?' 그러고 그냥 때려서 데려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천도를 시킨다, 49재를 지낸다, 100일재를 지낸다 하는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정성이 지극한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 탁 채어서 붙잡아 가지고 가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넣어준단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이 된 사람은 자유인이니깐, 그거야 뭐 누가 끌고 가고 자시고가 없겠죠.

그러면 부처는 어딨으며 그 보살이 어딨느냐,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한 대로 그 요술 주머니 속에 보배 주머니 속에서, 자기 마음 쓴 대로 보살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부처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신장으로도 나와서 자기를 친견하고, 또 사자 마구니로 생겨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을 잘 쓴 사람은 잘 쓴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고, 잘못 쓰는 마구니들끼리 모인 데는 마구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정말 우리 사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양면이 보이지 않는 미지수의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똑같이 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뜻은, 그러니 암흑이라는 것은 우리가 50% 밖에 모르기 때문에 암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비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상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렇게 깊어지면은 아무데도 속지 않습니다. 천만 가지 금을 가지고 와서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속지 않죠. 그리고 마음에 욕심도 없어지구요. 세상을 다 준다고 아무리 꼬여도 좋은 게 좋은 걸로 보이질 않는 거죠. 지금 생시에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작을 이룬대도 그 내막을 보면 그냥 고통은 더 커지는 걸 아는데 그런 걸 왜 자기가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주인공에 모두 맡겨 놔라. 맡겨 놓기만 하고 내 몸뚱이가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전부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맡겨 놓고 살아라. 나는 그냥 주인공에 의해서 움죽거리고 눈도 귀도 모든 것이 그 주인공에서 나를 이렇게 형성시켜 놓은 거 뿐이다. 한 몸에 모든 이름이 달린 거니 한 몸에다가 그냥 맡겨 버려라 이겁니다. 쓰긴 쓰되 그런 거죠. 그렇게 알고 들어간다면 어디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지껏 살아오면서 입력시켜서 아주 배고 밴 그 습을 다 떼는 방법이요, 앞으로는 거기에 속지 않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과거의 입력을 떼는 방법, 앞으로도 속지 않는 방법이니, 살아가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지 않고 가신다면 나와 남이 다 이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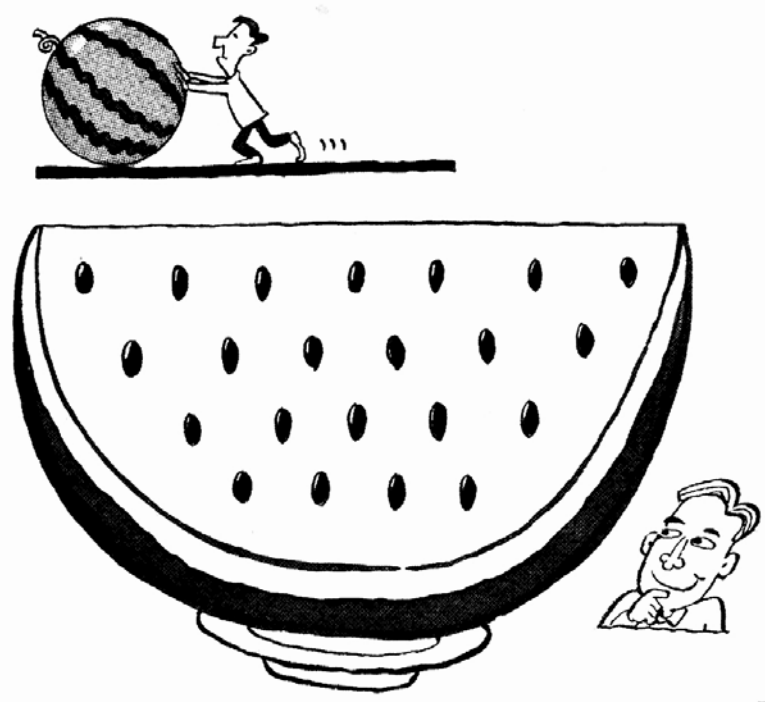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이 짓고 살아온 대로 부처 보살이 나와 친견도 하고 사자 마구니가 나투기도 해요

법공양 페이지

유 · 무위법 둘 아니게 보려면…

문 스님의 인도로 이제 발걸음은 떼고 나아갑니다. 오늘 올릴 질문은 유위법과 무위법을 같이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합니다. 공부에 진전이 있어 지혜가 생긴다면 유·무위의 세계를 둘이 아니게 차고 나갈 수 있으련만 아직 못 미치는지라 부딪치는 경계마다에 일방적으로 유·무위법을 구분지어 그것에 또한 착을 두고 나가는 습이 있기에 한 말씀 여쭙니다.

답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라, 따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일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깊이 알고 보면 마음의 과학이야말로 깊고 아름답고 선(善)한 참과학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무위(無爲)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유위법(有爲法)을 다루어 이치를 밝힙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여러가지로 편리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마음법은 보이지 않는 원리,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까지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완전한 상태로 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위행과 무위행이 두루 갖추어져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에든 자유롭고 드넓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일반적인 과학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산다면 우리는 끝끝내 우리 자신을 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들의 목표인 열반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시대에, 작게는 우리 자신을 자유인으로 이끌면서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위해 크나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자기 자신, 즉 주인공을 찾는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로부터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만이 나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국가, 인류의 문제도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모두에게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다면 그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밖에서만 찾는다면 분별하고, 다투고, 불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으로 깊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진실해지고, 무거워지고, 자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광대하고 묘한지,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텅 비었고, 텅 비었으나 거기에서 미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너를 초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비유하지요. "용광로에 다 낡아서 못쓰게 된 헌 쇠를 넣는다면 다시 새로운 갖가지 도구로 재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니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모두를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 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무위세계·유위세계를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그 뿌리, 주인공이니 그렇게만 믿고 실천행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나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암, 간경화 완치 보장
http://www.no3medical.co.kr
전이된암, 만성신장병
성인병, 원인모를병
치료후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일천만원) 드립니다.
032)3478-119~8/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B/D 405호
의 단 원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군 달 마 사 포 교 원 달마 스님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책 없이도 손만 펴서 중생의 운명을 인도하는 인생비법을 전수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뜻깊은 이 학문은 득도한 스님들이 잘 쓰는 역학입니다.
⊙조상의 길 · 흉과 연 관계를 알아내는 이 비법은 부처님 氣가 임하신 분은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
011)695-2320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제6기 무료강좌안내
⊙따주기 ⊙수족침요법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구인구직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재혼전문 정보회사
좋은 인연
⊙불자들만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만남주선
대표 02)538-6205

어떤 곳이라도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운전면허 有
■비구승
017)580-068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구함
보덕사
0348)952-790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30~40대)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40~50대)
목포시
011)665-7037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큰살림살이 자신있는 자로
책임지고 살아주실
40-50대 불심깊은 보살님을
구합니다.
0346)571-5424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적번호 : 0170-0298
◇주민번호 : 370715-2400518
◇성 명 : 류 정자 ◇법 명 : 범 일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판암동 54번지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2. 1.

기타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쳇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봉은사옆)
☎ 02)511-0108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치 소탁치
일엽치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염불 수행의 비법
· 불교 세계관의 결정체
·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 창조적인 염불수행
· 연락하시면 염불 수행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361)254-5397

사람을 살리는 **육각성의 비밀** (책자 무료) **책** 290쪽 2권 ₩13,000 (우송료 포함)
나도 좋은 집터, 명당을 얻을 수 있다.
1. 신비의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2. 육각성의 비밀 - 육각성은 수맥파도 차단한다
3. 경혈점(인체경혈도) - 내몸은 내가 고친다.
氣 측정기 무료
복가 등하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330p 정가 : 10,000원 우송료 3,000원
※성인병의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위, 장, 간, 신경통)
※전화를 주시면 사상체질과 氣를 check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035728 김건순
韓國氣功研究院 02)455-6944, 02)453-5851

사찰이
토굴전세
구합니다
◆ 가 액 ◆
1천만 ~ 5천만원
0446)
878-4266

권 민속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성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 (0345)495-4848,4845,4846 FAX491-8548
지점 :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생명에너지 위에서 상쾌한 아침을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해였습니다.
◆한달전기료는 15,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49만원(Q)부터 : 한정판매
氣 리빙스톤(옥스톤) 서울 송파구 삼전동 51-9 구입 · A/S : 02)424-9427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 (전철역)서 10분거리
◆부지 : 5,000평
◆건물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미륵불, 종각
◆가액 : 13억 8천만원(창건: 태종대왕원년)
◆특징 : 천연약수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납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 전국의 사찰, 포교원양도 하실 분 연락바람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근교
◇부지 : 300평
◇법당 : 12평
◇요사채: 25평
◇가액 : 2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임법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
◆ 건물만 20평
◆ 이주관계로 급
◆ 가액 : 절충
019)408-5264

사찰 안내
◇위치 : 인천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250평
◇가액 : 2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법당 : 31평
◇요사 : 90평
◇부지 : 1,000평
◇총공사비 : 6억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함안 가야읍에서 택시타고 5분거리)
◆ 평수 : 777평
◆ 건물 : 64평 1동
◆ 사찰명 : 천거사
◆ 가액 : 3억
0552)582-2220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황토방 안내
◆ 황토방 2칸
-> 1칸당 2천만원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902번지
※수행 높으신 노스님 구합니다.
011)8039-4862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 특징 : 3층건물의 도심사찰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하기에 최적지이며 사정상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양도코져 합니다.
◆ 가액 : 4억
서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읍 소재
◆ 대지 : 8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2동 60평
◆ 10년 경험의 사찰 중개 전문업소입니다.
◆ 사찰, 포교당 양도 ·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 가액 : 1억 5천만원
서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절골) 무주 구천동 인근
◆ 부지 : 약30만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 특징 : 이조 초기 절터임.
덕유산 줄기 시수, 천연 고로쇠
나무, 자작 나무, 잣 나무 등 경관
수려, 현재 사슴 농장으로 운영중
(주,야) 0598)942-2400

포교원(임법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고강본동(시장입구)
◆ 평수 : 32평(3층)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산신각)
◆ 내부시설 : 방1개, 주방, 상담실,
도시가스
◆ 가격 : 1,500만원(즉시가능)
017)289-7464

사찰 안내
◆ 위 치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학동부락 197번지
◆ 대지 120평, 방7개, 임법당
삼존불,108부처님 완성
◆ 법당 25평 집은 한옥 기와집
◆ 대도로에서 2분거리
◆ 가 격 : 4천만원
(답사후 결정)
011)655-3883

사찰 안내
◆ 위치 : 전주 남로송동 병우청 5거리
◆ 대지 78평, 대웅전 25평, 삼신불
후불 - 목금탱화, 칠성 - 목금탱화
신중 - 목금탱화, 홍송 삼단 법단 A급
◆ 시설일체, 큰방 2개, 별채 3개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2억 1천만원(전세 가능)
◆ 포교당 최고요지 전통한옥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서는 인연이 되시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652)285-6464/286-8484

지리산 계곡(토굴터)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12번지 外 3필지
◆ 현재 휴경지(논, 준농림지) 707평
◆ 가액: 매가 1천 5백만원
◆ 계곡 옆 남향
◆ 찾아오는 길:지리산 실상사→
마천방향 15km→ 한남 마을옆
장터목 산장에서 산길로
1.5km(장토목 산장에 문의)
011)9542-906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0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8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서울 부산시내 근교
사찰 암자 구함
◆전화 상담시 보안
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상담후 결정
02)2618-0767

사찰 안내
◆위치 :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60번지(서당마을)
◆평수 : 1,560평 중에 대지 200평(스레이트 주택 1동, 전기 · 전화, 상수도 有)
◆특징 : 산성산 밑에 있고 지목은 밭이며, 풍수지리상 묘터가 좋다고 하며, 이조시대에 인근에 고찰이 있었던 곳임, 현재 가옥 1동과 십삼년생 두충나무 약 4천그루가 있음. 차량출입가능.
◆ 가액 : 약 2억
053)427-3084(야간가능)

포교당 안내(사정상 급매)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수리산 밑
◆ 대지 : 45평, 건평 25평
(아파트 및 주택 밀접지역)
◆ 가액 : 1억 1천만원
(※공시지가 가격임)
◆ 방 2개, 거실, 목욕탕 및 주방
최신시설임
0371)763-1514
011)271-0669 스님 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평수 : 20평
◆ 법당 1, 방1
◆ 가액 : 보증금 200만(월 20만)
◆ 시설비 약간, 교통편리
016)507-6822

사찰 안내
◆ 위치 :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내동 6-1
◆ 대지 : 700평, 임야 약 2700평
◆ 법당35평(목조), 요사채 60평
산신각6평, 독성각20평,
토굴32평(목조기와지붕)
◆ 가격 : 답사후 절충
0591)758-9797
0591)758-0543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불자 세상보기

사이비종교 피해 '종말하자'

신흥종교단체 교주부부 긴급체포
신도상호보증 1천억원대 가로채

부처님께서 사밧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했다.

"훌륭한 바라문을 자칭하는 외도 가운데는 거짓의 도를 말하고, 삿되고 어리석어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 깨달아 열반으로 향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바른 소견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더더욱 열반으로 가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의 이같은 말씀은 옛날 인도에도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종교집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온갖 종류의 외도들을 단호히 비판하고 부정했다.

지난달 25일 모 신흥 종교단체의 교주 부부가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종교생활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단체가 '2000년 정월대보름(2월19일) 지구의 기(氣)가 쇠해 종말이 오지만 기수련을 쌓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며 신도들을 유혹, 상호 맞보증 등의 방식으로 1천억원대를 가로챘다는 것은 종말론이 여전히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었다.

사이비 종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포항 모교회 신도들이 집단가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았다. 87년 32명의 집단자살로 충격을 던진 오대양사건이나 9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사건도 아직 기억에서 생생하다.

이같은 사례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국에서는 남녀가 한데 모여 알몸으로 집회를 여는 사교가 극성을 부리는 등 지하 사교조직이 들끓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사교 교주의 엽색행각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미국 역시 700여개의 사교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옴진리교 사건으로 흥역을 치른 일본도 해마다 100여개씩 늘어나는 신흥종교 문제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이비 종교가 심각한 이유는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사교집단이 국내에만 200여개가 넘고 추종자만도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이비 종교문제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참된 신앙은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종교생활이란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심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정법'을 강조한 이유도 올바른 진리만이 공기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 근절은 사회의 계몽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개개인의 몫이다. 바른 소견과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이성으로 살펴 삿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은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허물이 생긴다. 바른 법은 대중을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선행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법을 믿을 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잡아함경〉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막오른 '시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 막이 올랐다. 총선시민연대는 지난달 24일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발표된 공천반대인사가 출마할 경우 '찍지 않겠다'는 국민이 85%에 달해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DNA 인공합성 성공

美연구팀, 유기생명체 창조 가능성

최근 미국연구팀이 생명체의 기본 구성분자인 DNA를 인공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유기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2년내에 새로운 유기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물을 '재설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생명복제보다 한단계 더 진보한 DNA 합성은 과학의 진보와 윤리적 문제사이에서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종양세포 등을 탐지, 공격해 소멸시키는 유기체를 만들어 질병치료에 이용한다든지, 생명체의 기능을 조종함으로써 특정기능을 갖게 하는 등의 인류복지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새로운 유기체 합성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섭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각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질서를 존중해 왔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질서는 무너뜨리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생명복제나 DNA합성 등과 관련한 불교계의 공식입장이 필요한 때다.

절약모르는 신세대

새옷 사며 헌옷 버리기

"새옷을 받은 비구들은 헌옷으로 무엇을 합니까" "낡은 법의로는 웃옷을 만듭니다" "낡은 웃옷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속옷을 만듭니다" "낡은 속옷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담요를 만듭니다" "낡은 담요로는 무엇을 합니까" "깔개를 만듭니다" "낡은 깔개로 무엇을 합니까" "발닦는 수건을 만듭니다" "발닦는 수건이 낡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잘게 썰어 흙에 섞어 벽을 바르거나 앉을 자리를 만듭니다"

〈자타카〉에 나오는 파사익왕과 아난존자의 대화다. 파사익왕은 아난존자로부터 수행자들의 검소한 생활과 절약의 의미를 깨닫고 많은 옷을 보시했다.

'새 옷을 사면 헌 옷은 버린다'는 신세대들이 늘고 있다. 등대문상가 옷가게들의 경우 이같이 버려지는 티셔츠, 청바지가 하루 평균 100여벌이나 되고 신발, 가방, 패션소품, 고급샌들, 가죽점퍼 등 값비싼 물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유행만 좇는 젊은이들의 그릇된 소비성향 때문이다.

'절약'을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그 미덕을 가르치는데 부모와 사회가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난존자와 파사익왕의 대화를 한번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대구지하철 또 붕괴사고
8년간 413명 사상

지난달 23일 일어난 대구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지하철은 지난 95년 4월 2백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8년간 모두 413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도시의 지하철에서 1년 평균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면 시체말로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 일'이다.

아마 정부당국자나 관련자 중 '3명밖에 죽지 않았는데…'라며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위낙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다보니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사고 관련 관계자들은 이런 부처님 말씀을 명심하기 바란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업만 남을 것이다."

사이버 도박 국내 성행

100만명 넘을듯…외화유출 심각

최근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달 적발한 외국 연계 국내 도박사이트 14개를 통해 도박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이버도박을 한 내국인은 2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처럼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도박을 하는 사람은 국내에만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도박으로 인해 연간 수백만달러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사이트 중 2개 사이트에서만도 지난해 4월 이후 27만달러의 외화가 외국 도박사이트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관공서나 기업체, 학교 등 사회 구석구석이 이에 만연돼 가고 있는 것은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부처님께서는 도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선생자경〉

시론

설은 축제다

만성 두통을 짐처럼 이고 설레임을 상실한 채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여유를 잃어버린 시대에, 명절이란 소외감과 절망을 반추하게 하는 아픔의 징표처럼 간주되고 있다. 고향을 찾는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의무감으로 천리길을 달려가야한다는 압박감에 사전 통증에 시달린다. 고향을 찾을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같은 참담함으로 비틀거리며 달력에 붉게 표시된 며칠을 보낸다.

궁핍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지만 나의 유년 시절의 설은 모처럼 얼굴에 화색이 도는 축제였다. 무엇보다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은 새옷, 새신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날 아침 차례를 마치고 개구장이들끼리 몰려 다니며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면 까만 동전 일망정 세뱃돈을 받았다. 어른에게 올리는 세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저 넙죽 엎드리고 몇마디 덕담과 음식과 나누어주는 세배돈이 그렇게 좋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랜만에 넉넉하게 군것질을 하고 시장 공터에 펼쳐진 가설극장에 가서 서커스를 구경할 수도 있었다. 쪼들리고 지친 날들이 지루하게 이어졌을 어른들도 설날을 전후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했다.



이우상 〈소설가〉

"제의의 엄숙성 잔치의 흥겨움 조화이뤄야"

인위적으로 과괴하려고 해도 되지않는 것이 전통이다. 설날의 수난사도 그런 것이다.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후에도 설날을 없애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이중과세, 구정, 민속의 날 등은 그런 시도에서 파생된 용어들이다. 그러나 설은 남산 위의 푸른 소나무처럼 지금까지 꿋꿋하게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박혀있다.

그러나 그 꿋꿋함에 부합되는 정신과 모습을 상실해가는 것이 작금의 설풍경이다. 축제란 제사와 잔치를 통합한 행사이다. 제의의 엄숙성과 잔치의 흥겨움이 겸비된 공동체 마당이 축제이다. 추석과 설은 고유한 전통의식과 현대적 정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넉넉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잔치에 목말라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날들에 광분하는 청소년들에게 흥겨운 잔치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설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날 잔치에는 프로그램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곁치는 당신들의 잔치를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다. 제사는 어떤가. 매에게 쫓기는 굉처럼 호들갑을 떨며 차례와 성묘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긍리에 급급한다. 늙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먹거리 몇점의 애잔함보다는 길이 막혀 고생할 일만 생각한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추위와 불편한 화장실, 친하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설날의 풍경으로 기록된다. 부인네들에겐 어떤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교통 지옥을 통과해서 고향에 당도하면 숨돌릴 틈도 없이 산더미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조상에 대한 아련한 추모의 정, 그리운 이들과 벌이는 한바탕 잔치와는 거리가 멀다. 욕먹지 않도록 부지런을 떨고 돌아와야 되는 숙명의 계절이 설날이다.

발상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형식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것이 설날 풍경이다. 정제된 형식에서 기품있는 내용이 나온다. 차례와 성묘는 엄숙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편의적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어느덧 너무 많은 약식과 생략에 익숙해져 버렸다. 원칙과 정식은 결코 우스광스런 행위가 아니다. 참선 수행이나 예불이 엄숙하고 단정하게 거행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엄숙하게 거행되어야할 의식들을 회화화시켜 후손에게 전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잔치에 대한 준비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같은 맏이와 객지에서 풍상을 헤치며 살아가는 아우들 그리고 검버섯 자욱한 노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기와 활력을 만드는 축제의 설이 된다면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하다한들 어찌 짜증이 설레임보다 클 수 있으랴.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후원회 : (02)705-5560-1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방송참여 : (02)705-5555~8
⊙ F A X : (02)705-5229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시간
05	00 아침 예불 (승가대스님)		05
	45 마음을 비우고 (박홍식ANN)		
06	00 뉴스 (박홍식ANN)		06
	10 정진공부 (일초스님-이선희ANN)		
	30 교수열전 (구민 外-이명학ANN)		
	40 교리강좌 (혜정정사)		
07	00 뉴스 (박홍식ANN)	05 선행 365일(김용림)	07
	10 선행 365일 (김용림)	10 참선 이야기	
	15 박종훈의 아침저널 1부 (박종훈)	(육라스님-최은경ANN)	
	(녹개발ANN)		
08	00 BBS 뉴스광장 (보도팀,장수연ANN) (08:25-08:30 L)	00 법고와 주비(선상산RE)	08
	30 박종훈의 아침저널 2부(이현정ANN중연) (L)	20 사찰순례 (최은경ANN)	
	(녹개발ANN)		
09	00 뉴스 (장수연ANN)		09
	05 차한잔의 선율 (진명스님) (금) 거목현 만남(도혜스님)		
10	00 뉴스 (이선희ANN)		10
	05 마비의 전화 (혜거원장 노래스님 최은경ANN)	00 라디오법회 (이명학ANN)	
	(대구 FM)		
11	00 뉴스 (박정원ANN)		11
	10 행복 스튜디오 항정원입니다 (항정원)	05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원/최은경ANN) (12:15-12:20 L)		12
	20 최영준의 백팔가요 1부 (최영준)	10	
13	00 뉴스 (박홍식ANN)		13
	05 최영준의 백팔가요 2부 (최영준)		
14	00 뉴스 (이현정ANN)		14
	10 퀴즈 대장경 (정유타/장수연ANN)	05 우리 가락의 향기 (송혜진)	
	50 교수열전(재) (구민 外)		
15	00 뉴스 (이선희ANN)		15
	10 BBS 생활상담실 (이현정ANN) (L)	05 일요 교양 강좌	
	월(서과-권순만) 화(한과-김용산) 수(소비자-도영숙) 목(한방-김동호) 금(의과-신종대) 토(법륜-제강묵성)	(최은경ANN)	
	(대구 FM)		
16	00 뉴스 (최은경ANN)		16
	10 음악의바을 (이선희ANN (L)	05	
17	00 뉴스 (최은경ANN) (L)	00 장명의 시간(이현정ANN)	17
	10 부명을 밝히고 (이명학ANN 최은경ANN)	20 일요초대석(김혜정)	
	BBS 캠페인 (녹개발ANN)		
18	00 저녁예불 (승가대스님)		18
	15 정연수의 정보 가이드 (정연수)	15 음비닉 농산(자용스님)	
19	00 BBS 저녁종합뉴스 (이명학/이숙윤ANN)		19
	30 부동산 정세 (이성태)	10 김을 찾아서 (김청)	
	55 우리농의 찬물가 (장수연ANN)		
20	00 뉴스 (이숙윤ANN)		20
	05 김병조의 다시한교실은노래 (김병조)		
21	00 뉴스 (이숙윤ANN)		21
	10 선행 365일(재)) (김용림)		
	15 정진공부(재) (일초스님)		
	35 반야심경(현문) (상수스님)		
	40 교리강좌(재) (혜정정사)		
22	00 교계뉴스 (이명학ANN)		22
	05 명곡음악실 (박홍식ANN)		
23	00 뉴스 (이명학ANN)		23
	10 BBS 역사산책 (최영주)	05	
24	00 삶며 생각하며 (초기스님)	00 그리운 등불 하나 (방귀희)	24
01	00 한밤의 명상 (이숙윤ANN)		01
	55 사물지원 (합장단)		

아이들과 함께 절에 오세요

불자자녀 교회·성당 다니는 사례 많아
불교 미래위해 어릴 때 불심 심어줘야

"참불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어릴적부터 불교를 접한 성인불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런데 불자가정의 아이들조차 일찍 불법과 만나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천주교, 개신교 집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다. 이렇듯 불자들의 자식들에 대한 종교적 관심부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불교는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자가정의 가장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사찰을 찾는다는 불자들을 만나봤다.

초등학교 2학년 임정화양과 여섯살박이 원형남매는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등에 업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불교가 무엇이고, 사찰이 어떤 곳이고, 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가족들이 절에 갈 때 함께 갈 뿐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요즘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가면 절을 하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한다. 그리고 사찰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아버지 임경환씨(36·서울 강동구 고덕동)씨는 "지난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뉴스에 스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작은아이가 갑자기 합장을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스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게 한 것이 안타까웠으나 그래도 합장하며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 조금은 가시더군요"하고 말하며 불교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1월 23일 양평 용수사에서 만난 윤병철씨(32·도봉구 방학동)도 절에 갈 때면 항상 아이와 동행한다. 윤씨가 초등학교 1학년인 민영이와 절에 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매일 방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지난해 초부터 휴일만 되면 서울 인근 사찰로 향한다. 윤씨가 사찰을 찾아 하는 일은 아이와 함께 부처님께 참배하고, 점심공양 그리고 인근 계곡이나 들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민영이가 느끼고 배우는 것은 기대 이상이다. 윤씨는 "내가 어릴적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갔던 경험들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불자로서 우리아이에게 불교적 심성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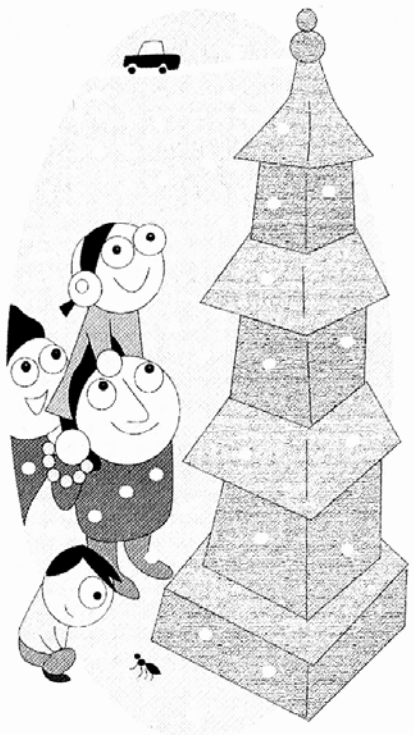
대부분 불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사찰에 가는 것을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족끼리도 종교가 달라져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타종교 가족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는(76)는 "다른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에 불화가 그치질 않아요. 몇해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산소에도 가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는 커녕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가족구성원이 한 종교를 믿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불교가정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절을 찾았던 것처럼, '가족불교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들어 가족들이 함께 사찰을 찾는 풍토는 불교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징후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생활정보

서울교통상황 1주일전 예보

교통 4월부터 서울의 각종 도로공사나 백화점 세일, 집회 등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상황을 종합한 정보가 신문과 라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요일 및 시간대별로 분석,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1주일 간격으로 미리 알려주는 '주간교통예보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6월부터는 주 1차례씩 서울시 교통정보마당 홈페이지(http://traffic.metro.seoul.kr)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의료 보건복지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출생 직후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의 미숙아에게 최고 80%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1월23일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의 미숙아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 한도내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해당 의료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전세금 이달부터 저리 융자

주택 전세 계약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이달부터 주택은행에서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차액보전금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월초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키로 발표했다.

학생 5만명에 PC무료보급

복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오는 2학기에 매달 2만원씩 3개월간 컴퓨터 교습비를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이중 5만명에게는 2학기중에 '국민 PC'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인터넷 사용료를 액수에 관계없이 5년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무보증 대출

금융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인 없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가계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들을 위해 보증을 대신해 주는 근로자보증보험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대출금액의 일정비율만 보험료로 내고 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여성 문화교실 열어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회장 정호스님)는 1월 26일 조계사내 원심회 법당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보급과 문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는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과정과 주부문화교실을 개설하는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실도 열 방침이다. 또 포교회는 금년에 어린이 연꽃캠프(7월27일~29일), 부처님오신날 거리포교, 여름(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2급 지도자 보수교육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사찰서 만든 간장 맛있어요"



◇금강독송회는 직접 농사를 지은 콩으로 매년 메주를 만들어 사찰과 불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봉은사등 보급… '무공해' 인기

옛부터 주부들에게 음력 정월은 장을 담그는 달이다. 최근 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전통 방법으로 제조·보급하는 사찰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의 장류는 순수 국산 콩만을 엄선해 일체의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고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부들 사이에 믿을 만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

사찰에서 판매되는 장류는 무해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외에도 소금 대신 죽염을 이용, 산성화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기능 및 자연치유력을 높여줘 건강증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판매는 사찰 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회원들이 직접 콩을 재배, 제조해 '복메주'라는 등록 상표로 전국에 보급한다. 또 봉은사 생활협동조합은 순창 민속마을 내 향적원과 충주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초정 장류를 판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관계로 쇄도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미리 예약 주문해 두는 것이 좋다.

△금강경독송회 02)742-0172 (전국 지회에서도 판매) △봉은사 생협 02)511-6069 △구룡사 02)575-7766 △경국사 02)914-5447 △석왕사 생협 032)668-0072 △축서암 0523)82-0011 △봉령사 0346)571-0556 △대구 법왕사 053)766-3747 △삼보사 02)352-6406 △대구불교회관 053)627-3747 △대전불교회관 042)627-0026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청소년단신

문화재 애호지침서 나와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제5권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을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서부터, 사찰의 구조, 불상의 종류, 불교회화, 법구, 불교조형물 등 불교성보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의 시행방향과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를 시도별로 상세히 소개해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보 문화재 애호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 목록도 함께 실었다.

파라미타는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애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파라미타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02)723-6165

어린이 불교학교 열어

경북 영덕 관음사(주지 무원)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불교학교에는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 사찰예절과 찬불가, 기초교리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음사는 이번 어린이불교학교를 계기로 어린이법회, 계절별 불교학교도 열 계획이다.

관문사 학생회 창립법회

천태종 관문사(주지 운덕스님) 중고등부 학생회가 창립됐다.

관문사는 1월 23일 총무 월도스님, 권무원 신도회장 등 서울 경기 강원도 등 전국 천태종 사찰 학생회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이웃과 함께하는 학생회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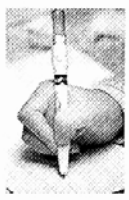
관문사 학생회는 지난해 7월 창단식을 갖고 정기법회를 갖는 등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벌여 이번에 창립법회를 갖게 됐다.

대불청 홈페이지 추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안호)는 1월 23일 공주 마곡사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99년도 결산과 2000년도 예산 및 사업을 확정했다.

조직강화와 교육을 기초로 이날 확정된 주요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과 1인 1메일 갖기 운동을 비롯 불청 워크샵(3회) 추진, 불청논문공모, 지역간담회, 대한불청 의제21설립사업 등이다.

천진동자 라이트펜 시판



새상품 봉축위원회의 캐릭터인 천진동자를 이용한 천진동자 라이트펜이 시판된다.

이 라이트펜은 어두운 곳에서 조명없이 독서와 필기가 가능하도록 펜 앞부분에서 빛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천진동자 라이트펜을 개발한 곳은 '반디라이트펜'으로 널리 알려진 (주)세아실업이다. 1개당 3천원이며, 목걸이, 선물용, 사찰홍보용 펜으로 개발되어 있다.

(02)735-7350

다향 속에 묻어나는 단아한 차이야기

"다인들은 차를 선이라 하네"





차는 울적한 기분을 흩어지게 하며,
차는 생기가 나게 하며,
차는 잠을 깨게 하며,
차는 잔병을 예방하며,
차는 남을 공경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예의를 닦게 하며,
차는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차는 도리를 따르게 하며, 차는 맛을 분별하게 하며
차는 스스로 몸을 다스리게 한다.

-劉貞一 「茶仙十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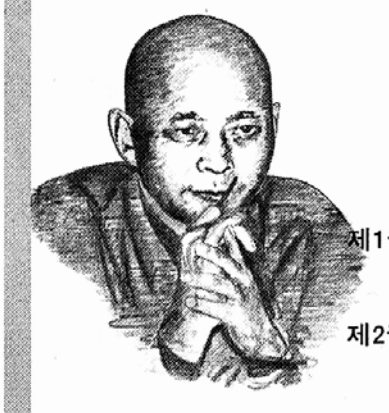
다인(茶人)들이 차를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을 으뜸으로 하며, 홀로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그 교차하는 만감이 차차 줄어들다가 맨 나중에는 공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허를 다시 조이면 성찰(省察)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찰을 거듭하게 되면 새삼스레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더오르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과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미운 생각이 들지 않고, 증오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용서하게 된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전에 지녔던 욕망과 집착, 손익, 오만 따위가 우습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차를 마시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지나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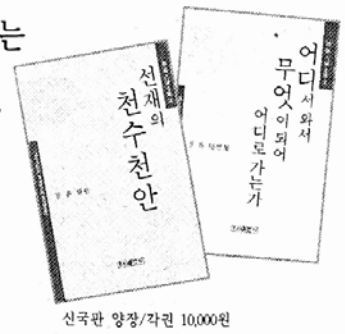
김봉호 에세이
신국판 352면
값 10,000원

茶人들은 茶를 禪이라 하네

21세기를 깨우는 할(喝), 정휴스님 전집 출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그러들지 않는 감동,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영혼의 언어가 우리 곁에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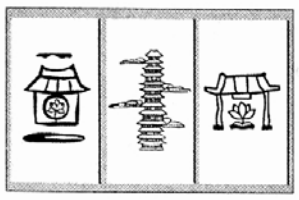
신국판 양장/각권 10,000원

제1권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제2권 선재의 천수천안

정휴스님전집 ❶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❷선재의 천수천안 ❸전강평전(田岡評傳) 근간 ❹종정법어집(宗正法語集) 근간 ❺백척간두에 우슨 절망이 있으리요 근간 ❻낮은 사람의 자유 근간 ❼고승평전집(高僧評傳集) 근간 ❽열반제 ❾무상 속에 영원을 산 사람들 근간 ❿슬플 때 내 곁에 오는 초인(超人) 근간 ⓫걸레스님 중광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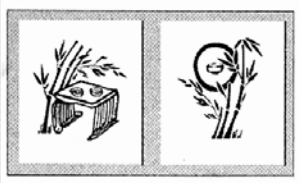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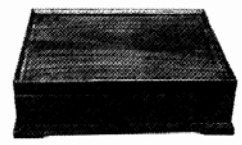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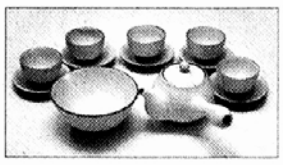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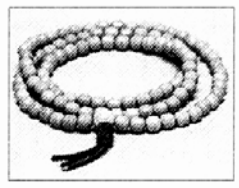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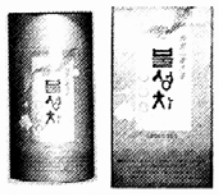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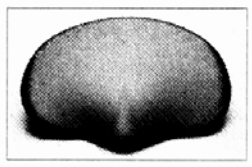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 199-025009
· 인체공학적 설계로 최적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브악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홍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가장중) 규격 4불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한지매수 20장
· 규 격 146cm X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아 질긴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오랜세월이 돼도 변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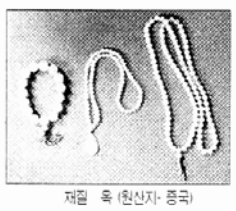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 자연향101	₩2,000	◦ 수국향(중)	₩5,000	◦ 만복한방지함향	₩15,000
◦ 자연향102	₩4,200	◦ 수국불일향	₩3,000	◦ 만복백화향	₩15,000
◦ 명품향201	₩2,400	◦ 수국전단향	₩1,000	◦ 만복한방지관향	₩13,000
◦ 명품향202	₩5,000	◦ 수국우리향(대)	₩2,000	◦ 만복침향	₩10,000
◦ 전단향301	₩3,000	◦ 수국우리향(중)	₩2,000	◦ 만복신자단향	₩15,000
◦ 자연향(일반향)	₩1,000	◦ 수국단군향(대)	₩1,000	◦ 만복천연목향지관	₩15,000
◦ 명품향(일반향)	₩1,400	◦ 수국단군향(중)	₩1,000	◦ 현상공덕향(지장보살)	₩8,000
◦ 칠성기도향	₩4,000	◦ 오분향 생기향세트	₩60,000	◦ 현상공덕향(석가모니불)	₩8,000
◦ 수국향(대)	₩5,000	◦ 만복보원향	₩20,000	◦ 현상공덕향(관세음보살)	₩8,000

달마순금판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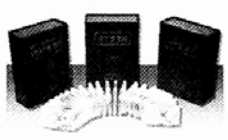
상반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5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566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천심즉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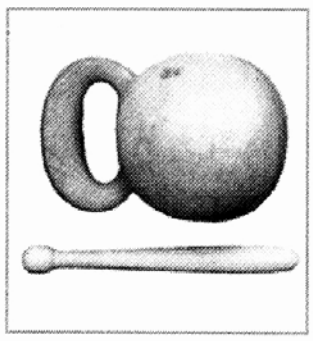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살구나무목탁(2.6인치)	₩13,500	• 살구나무목탁(4.5인치)	₩90,000	• 살구나무목탁(5.7인치)	₩117,000
• 살구나무목탁(2.8인치)	₩15,300	• 살구나무목탁(3.7인치)	₩75,600	• 살구나무목탁(6인치)	₩126,000
• 살구나무목탁(3인치)	₩19,800	• 살구나무목탁(4인치)	₩45,000	• 용무늬목탁(4인치)	₩81,000
• 살구나무목탁(3.2인치)	₩27,000	• 살구나무목탁(4.2인치)	₩50,400	• 용무늬목탁(4.2인치)	₩86,400
• 살구나무목탁(3.5인치)	₩32,400	• 살구나무목탁(4.5인치)	₩54,000	• 용무늬목탁(4.5인치)	₩90,000
• 살구나무목탁(3.7인치)	₩39,600	• 살구나무목탁(4.7인치)	₩72,000	• 용무늬목탁(3.7인치)	₩75,600
• 살구나무목탁(4인치)	₩45,000	• 살구나무목탁(5인치)	₩81,000	• 대추쌍목탁열쇠고리	₩5,000
• 살구나무목탁(4.2인치)	₩50,400	• 살구나무목탁(5.2인치)	₩90,000	• 목탁단주	₩7,000
• 살구나무목탁(4.5인치)	₩54,000	• 살구나무목탁(5.5인치)	₩99,000	• 벽조목외목탁열쇠고리	₩3,000
• 살구나무목탁(4.7인치)	₩72,000			• 목탁열쇠고리(향)	₩1,000
• 살구나무목탁(5인치)	₩81,000			• 목탁열쇠고리(대추)	₩5,000
• 살구나무목탁(5.2인치)	₩90,000			• 목탁열쇠고리(벽조목)	₩3,000
• 살구나무목탁(5.5인치)	₩99,000				



목어(木魚)

절에서 쓰이는 사물중의 하나이며 나무를 깍아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하고 속을 파내어 만든 목어는 어고목어고,어판 이라고도하며 배부분 안쪽의 양면을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물속의 모든 물고기를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목탁(木鐸)

불교의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구(佛具)로서목어에서 유래 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도 고기모양을 하고 있으며 긴 고기 모양의 목어와는 달리 둥근 형태로만들어진다. 앞부분의 입과 입 옆의 둥근 두 눈(구멍)으로 고기형태를 나타내고있다. 이것을 사용하는 수행자들이잠을 자지않는 물고기를 연상하여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유도하는 도구이다. 목탁의 구조는 둥근 본체와손잡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체의 속은 비워지도록 파여져 있으며 중심 부분을 수평으로 가로질러양쪽에 직경으로 구멍을 뚫고 위쪽은 양쪽 구멍을 경계로하여 두부분으로 갈라지도록 되어 있고 아랫 부분은통채로 손잡이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목탁을 칠때에는 가운데를 쳐야 소리가 잘나며 한쪽옆이나 밑부분의 통나무를 치게 되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목탁채는 목탁을 때리는 부분은 도톰하며 손잡이 쪽으로내려오면서 차차 가늘어지다가 맨 밑 부분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볼록한 방울 모양으로 끝을 맺고있다.목탁을 칠때는 왼손으로 목탁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고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목탁채를 잡아 손을움직이며 목탁을 친다.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협(오색입)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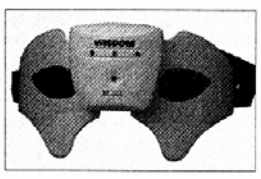
가격: ₩9,5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6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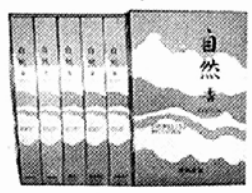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신년 연하장



謹賀新年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가격: 5,000원 ■매수: 10매
■지상 혜안스님 작품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의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귀향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 설날(2월5일)을 맞아 고향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약 0.6%가 증가한 2천742만명이 귀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귀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향은 인간뿌리의 근원이며 어머니품과도 같이 포근한 곳이다. 화해와 사랑이 있고, 이해관계를 떠나 편안하게 정(情)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길이 아무리 막히고 고단해도 설레임에 감춰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고향 대신 국내외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한다. 차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제사를 모시고, 세배를 나누면서 조상 숭배의 의미와 한 자리에 모인 가족의 소중함을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 본다. 〈편집자〉

친족끼리 서로돕고 공경하라

▨"밧지국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장아함 유행경〉

▨부처님께서는 장래에 사람들이 포악해져,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불효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스스로 정반왕의 관을 메고 화장터로 가셨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단향의 나무를 모아 화장을 하고, 유골을 모아 황금함에 담아 탑묘에 안치하셨다. 〈불설정반왕열반경〉

▨부모가 있으므로 우주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이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이 모두가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봉양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가를 잘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해야만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자손대대로 많은 복을 누리며 부귀하게 살 수 있다. 〈삼세인과경〉

▨사람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물질을 급여함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였다. 어느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몸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 바라문을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미덥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두려워 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뒤에는 지옥에 나게된다. 〈중아함 천사경〉

▨늘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쉬는 일 없거라. 〈화엄경〉

▨부모는 좋은 복전(福田)이다. 〈성선천자소문경〉

신행 캘린더

2월2일 (수)

■설맞이 만수무강 음식 보내기=서울시립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은 설을 맞아 생활보호자 및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음식보내기'를 실시한다. 130여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래떡과 닭고기를 전달한다. 02)385-1351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4개월 과정의 참선 기초 교실을 연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7시 하루 2차례 2시간식 참선 기초이론과 자세, 단전호흡, 마음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051)466-4080

2월3일 (목)

■전북불교대 동창회 재소자위문=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회장 김백호)는 전주 교도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위한 설날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암도스님의 법문, 위문품 전달, 모범장기수들에게 영치금 전달, 불자 재소자들의 찬불가 음성공양 등이 있을 예정이다. 0652)226-7878

1월28일 (금)

■유성 광수사 입춘불공=대전 유성 ,천태종 광수사는 오전11시 대적광전에서 입춘불공을 봉행한다. 042)823-0332

2월5일 (토)



◇절에서 차례를 지내면서 망자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불자 가정이 늘고 있다.

■금강정사 설차례 모시기=금강정사는 오전10시 불자들의 설날 차례를 지낸다. 02)893-2700

천태종 15개 유치원 원아 모집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소속 전국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새해를 맞아 원아를 모집한다. 15개 유치원이 모두 2천6백97명을 모집한다. (괄호안은 모집인원)

△부산 광명사 051)582-4112 (340명) △마산 유성 0551)246-6366 (190명) △진주 월경사(250명) 0591)753-6415 △통영 서광사(250명) 0557)649-3311 △밀양 삼양사(140명) 0527)353-4898 △울산 정광사(200명) 052)277-7107 △대구 동해(390명) 053)652-5760 △안동 해동사(200명) 0571)856-1207 △김천 금강사(170명) 0547)435-6725 △춘천 삼운사(100명) 0361)257-6231 △횡성 광제사(80명) 0372)343-9280 △원주 성무(90명) 0371)744-2104 △영월 삼태사(97명) 0373)373-9003 △홍천 강룡사(120명) 0336)433-3121 △단양 광법사(80명) 0444)423-9193

2월7일 (월)

■〈천수경〉 강의=금강정사는 오전10시 전 불자를 대상으로 〈천수경〉을 강의한다. 동일스님(금강정사 부주지)이 2개월 동안 진행한다. 금강정사는 또 이날 오전 10시 정초 7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02)893-2700

■화성 수도암 상량식=경기도 화성군 등고산 절 수도암 상량식이 오전11시30분 봉행된다. 0339)353-1852

■수원포교당 인도성지순례 사진전=수원포교당은 지난해 11월23일~구랍2일 주지 성관스님과 신도 등 30여명이 다녀온 인도성지 순례 사진전을 불교문화원 만불보전과 관음전에서 연다. 매일 인도 8대 성지 슬라이드 상영과 주지 성관스님의 사진설명회로 진행된다. 19일까지. (0331)253-0108

■강남포교원 위빠사나 수행법 강좌=강남포교원은 오후7시~9시 3층 수선당에서 김열권씨의 지도로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강좌를 연다. 교재는 〈대념처경〉 〈청정도론〉이다. 02)539-2631

2월8일 (화)

■KBS 2TV '달마와 함께 하는 선기행' 방영=KBS-2TV는 밤12시10분부터 50분간 '달마와 함께 하는 선기행'을 방영한다. 이날은 제3편 '달마가 한국으로 온 까닭은?'을 주제로 외국 수행자들이 한국 선을 찾는 이유와 그들의 수행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법회안내

기초교리 법문



무진장 스님은 국청회에서 9일 오후 7시 불교기초교리에 대해 법문한다. 스님의 불교기초교리 법문은 3월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있을 예정이다. 02)730-1249

삼법인 주제 설법



보각 소쩍새마을 원장 스님은 2일 오후7시30분 만해교육원에서 '삼법인'에 대해 법을 설한다. 02)730-9108

21~24일 '유마경' 강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21~24일 오전10시30분 새천년 불교강좌로 개설된 〈유마경〉을 강의한다. 02)3411-6167

'보리도차제론' 강설



허일범 진각대 교수는 가산불교연구원 부설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이 3일 오후5시30분 마련한 불교어학연수과정 '티베트어 연습' 강좌에서 〈보리도차제론〉을 강설한다. 02)765-9602

중국 선종사 강연



이은윤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1일 오후 6시30분 무불선원에서 중국 선종사에 대해 강연한다. 02)541-0002

게시판

알림

▲청소년 전문상담실 운영=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및 가족 전문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예약제로 실시되며, 3명의 임상상담 전문가들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02)817-8052

▲오대산 지장암 기린선원 하안거 방부=오대산 남대지장도량 지장암 기린선원은 16~17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하안거 방부를 받는다. 0347)332-6668

모집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은 1년 과정의 2급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주·야간반 각각 1백명. 접수는 2월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02)929-5004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신도림복지관은 미용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행된다. 02)2631-9792

▲미용사 자격증반=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3개월 과정의 미용사 자격증반을 개설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실직자는 감면 혜택이 있다. 02)2282-1100

▲주민도서실 자원봉사자=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에 개설된 주민도서실 도서대여 및 정리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월~금요일 주 1회 시간선택 가능하다. 032)677-0108

▲생보자 생필품 후원자=덕유사회복지관은 27~28일 양일간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한다. 어려운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눌 후원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생=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 50명, 2월17일~19일. 0561)770-8108

▲노인 차량봉사=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을 센터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차량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월~금요일 오후3시40분부터 약 1시간 소요. 02)806-1375

▲노인보호센터 자원봉사자=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래지도, 기초서예, 레크리에이션, 한글지도, 운동보조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2)852-0525

▲불교서적 후원자=충남지방경찰청 경승실은 법당에 비치해 둘 불교서적 후원자를 기다린다. 042)226-5540

▲박물관 대학 수강생=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제2기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미술,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등 33개 강좌로 이루어진 이번 박물관대학은 3월10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마감 2월29일, 선착순 100명.

▲위의 작법수강 학인=송광사 율원은 삼학의 근본인 계율을 배우고 당당한 승가의 모범이 되는 위의작법을 익히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학인을 모집한다. 2년 과정. 접수마감 3월2일 오후2시까지. 0661)755-1782

▲동방불교대 신입생=동방불교대학은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마감은 26일. 전형일시는 2월27일 오전 10시. 전형료 3만원 전형장소 본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02)763-0229

구인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통민요, 맛사지, 미술활동,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를 기다린다. 02)365-3677

▲간병인=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공근로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요보호 대상자 가정상담을 통한 간병 서비스' 참가자, 간병인 사회복지 상담분야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우선, 주5일 근무, 급여 월60만원. 032)325-2161

▲전통문화학교 교수=전통문화 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재청이 설립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조경 전공과 문화재 관리 전공 교수 약간명과 국어, 한문, 영어, 일어, 컴퓨터 등 교양과정 교수 각1명씩을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3일까지. 0463)830-7111

잘 먹고 싸고 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쉼이
최고의 깨침이자 사랑인
-혁명중의 혁명-『하나한』- 비전중의 비전

食事를 진지(眞知)로
배설을 이바지(以波止)로
취침을 주무심(住無心)으로

見을 觀으로
聽을 請으로
접촉을 滿足으로
呼吸을 숨(靈)으로
의식을 여의주로 다듬어

프라스틱 몸을 프리즘으로
요지경 마음을 조요경으로
富身 영혼을 當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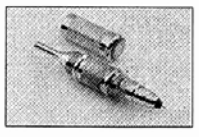
5박 6일 진진한 놀이 통해
애벌레 아닌 나비로 사는 비결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교의없이 가능하도록
언어 이전의 존재 자체 속에 담긴 신비 만끽
(자기감옥 탈출에서 대상과의 합일거처 스스로가 길이요 생명까지)

▶ 일시: 매월 셋째 월 15:00~토12:00(장소관계 1회 10명 통보받은 분만 가능)
▶ 장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 회비: 求救(99)만원에서 參夢(33)만원까지 입금구좌 농협 111-12-336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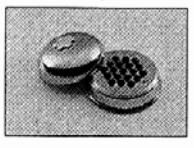
◎ 칭찬자 일시구님은 육사를 나와 월남전에서 피아의 시체를 골어안고 인간을 펴부하기로 결심한 후 30년간 오직 궁극과 현실을 어하히 쉽고 간결히 관통하느냐에 매진. 구름사이로 하늘 본지 30년 만에 구름얹고 하늘땅 사는 법을 일반에 심가 공개함.

해외에서 호평받는 최고의 효도상품
하니콤

실용신안출원 27279호 00592호 하니콤은 순은과 자석이 결합된 특수TIP을 육각형으로 배열하여 우주에너지가 공진공명 하도록 하여 인체 기혈의 부조화를 개선시키는 氣제품으로 기공도장, 체육관, 찜질방, 발관리실, 마사지실, 이용원, 약국 및 온 가정의 상비품이며 고마운 분에게 보내면 항상 보낸 분을 잊지 못하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하니콤 2000


하니콤 에이스


하니콤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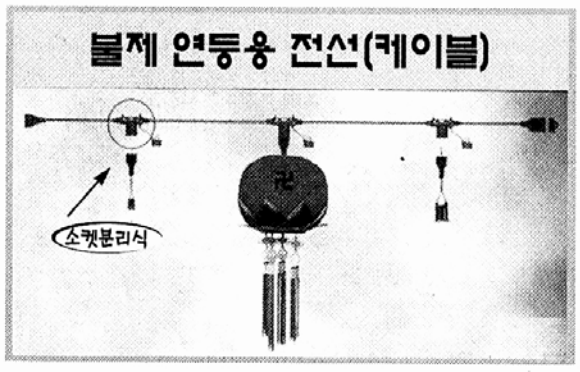
21세기는 氣의 세계, 놀라운 氣제품 하니콤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킵시다.
우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것입니다

막힌 경락이 뚫리고
온 몸이 시원해 집니다.

하니콤 ※대리점 및 특약점을 모집합니다.
☎ (02)3432-0457, 4578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24-10 서은빌딩 501호
※전화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사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卍 大圓企業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부산신도회 '시민대상' 제정

시민단체 연계 환경·사회운동 나서

만화포교모임 결성…불교캐릭터 공모도

부산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단체인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시민대상'을 제정,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중포교 활성화 등 새 천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계획을 확정해 그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1월31일 코모도 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교화사업, 기획사업, 조직사업 으로 나눠 2000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류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불교신도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참신한 기획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펼치도록 하자"고 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이번 신년계획은 현재 가입된 60여 신도 및 신행단체의 힘을 모아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린이포교, 군포교 분야에 지원 등에 재가자들이 적극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두드러진 사업으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대상 시상을 비롯 대 시민 불교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환경 및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시민대상을 제정·시상하게 된다. 또 10월중 실추된 불교위상을 고양하고 불교계 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교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중에는 청소년 포교를 위한 겨울나기 자원봉사 활동도 벌인다.

기획사업부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만화포교모임 결성과 불교캐릭터 및 사찰로고 공모전이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만화나 로고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친근하고 쉬운 불교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 또한 만화모임이나 로고 공모전 결과물들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포교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역 신행단체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기획력있는 불교 만들기에 앞장서게 된다. 이로써 문제진단과 방향제시가 탁월한 신도, 신행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공모전을 통한 사업들이 곧바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

이밖에도 신도회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조직사업으로 회원정비작업, 교계 지도자 수련회와 환경 공동체 대안 마련을 위한 부설 연구소 개설 등도 주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변화와 진보의 격랑가운데 33주년이라는 오랜 연륜을 지닌 부산불교신도회가 연륜에 걸맞는 재가불교운동의 핵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올 사업 성과에 대해 교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원을 연꽃피는 도시로

3월 첫 생명해방축제…세미나·전시회 등 행사

월드컵 문화상품도 개발

수원이 연꽃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수원시불교연합회는 아름다운 수원,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1회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옛문헌에 수원은 연꽃 4대 서식지 중의 하나로 유명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수원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기초작업이 주목적이다.

이번 축제는 3월 중순경 개최할 '연꽃의 생태와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4월2일(예정)에는 만석공원 저수지에 연꽃을 심는 한편 연꽃그림 및 사진 전시회, 환경장터, 연꽃관련 전통음식 시연회, 문화공연 등도 열 계획 중이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수질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연꽃 및 환경친화 식물을 식수해 일반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02년 월드컵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한다.

연합회는 경기불교회관, 대불청 경기지부, 서울농대교수불자회, 수원시약사·교사불자회, 경기도청·수원시청·수원교도소·수원구치소불자회, 수원포교당 거사회 등 불교계 단체들을 비롯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회, 수원 KYC, 수원경실련, 월드컵범시민운동본부, 수원시청, 수원문화원, 경기문화복지재단 등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생명해방의 대축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의 중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문빈정사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석장)는 녹색교통운전본부와 공동으로 '생활도로를 살립시다' 란 주제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문빈정사는 "생활도로의 주인은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는 손님"이라며 '생활도로를 살립시다'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고 있다.

또 2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전자들의 안녕을 위한 연중기도와 축원법회를 봉행한다. (062)222-2202 주용직 광주지사장



동해시 찬불가 경연 동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행스님)가 주최하고 동해불교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제9회 찬불가 경연대회가 1월22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소속 스님과 길인기 동해시장, 최연희 국회의원, 양승웅 시의회의장, 최경순 상공회의소회장 등 기관장과 신도연합회 회원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초·노원 사암련 신년법회

불우이웃에 1천만원 성금

서울 서초구 및 노원구사암연합회는 1월 25, 31일 각각 구민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거행했다.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혜덕·일승종 종회의장)는 1월2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관문사 부주지 춘광, 광명선원 주지 초격, 여래원 주지 운원, 극락사 주지 남은 스님과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대법회를 거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운덕스님은 법어에서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해서 IMF당시의 어려움을 잊으면 안된다"면서 "불자들이 앞장서 국가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노원구사암연합회(회장 도원·학림사주지)도 1월31일 노원구청(구청장 이기재) 강당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노원구민을 위한 신년기원법회를 거행하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2백여명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정부 지리산 함양댐건설 추진

"실상사등 사찰환경 파괴"

교계·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낙동강 하류의 갈수기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리산 함양댐 등 5~6개의 갈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찰과 주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실상사와 함양불교사암연합회가 참여한 '지리산 함양댐 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부경남에 2개의 대규모 갈수기조절용 식수댐을 건설하려 하는 것은 1500만명의 젖줄인 낙동강을 포기하자는 것이며, 지리산 일대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지리산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서울불교청년회도 1월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리산의 환경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오는 댐 건설에 주력할 경우 환경단체와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김영구 간사는 1월27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지리산 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댐이 건설될 경우 실상사 등 인근 사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안에는 갈수조정댐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반대하면 절대로 댐을 세우지 않겠다"며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댐을 만들지 않고서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약사사 일대 동양의학 명소로

강서구, 허준기념관 2003년 완공

최근 MBC의 특별기획드라마 '허준'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여래불의 영험으로 유명한 서울 개화산 약사사 일대가 동양의학의 명소로 육성된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구암 허준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강서구 탑산 및 개화산 약사사(주지 영배) 등 인근 문화유적지를 국제적인 동양의학 명소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서구는 탑산 일대에 허준기념관을 2003년까지 완공하는 등 2005년까지 '한강변 문화벨트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청룡사, 불교대학 현판식

경남 창원시 청룡사(주지 웅철)는 1월 25일 원효종 종정 법흥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극락보전목조삼존불 봉안 및 창원불교대학 현판법회를 봉행했다. 2백50여평 규모의 청룡사는 젊은 불자를 대상으로 한 도심 포교도량으로 역할할 전망이다.

종단소식

조계종

인드라망 공동체 수련회

실상사(주지 도법)는 1월 22~24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21세기 새로운 문명대안과 불교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기적 생명관으로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문명대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태고종

대륜스님 부도 법륜사 봉안



대륜대종사 열반 21주기를 맞아 대륜문도회는 1월 24일 대종사의 생전 주석처였던 서울 법륜사에 대륜스님 부도를 새롭게 조성해 봉안했다. 부도는 사각형 하대석위에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져 탑신부는 둥그런 석종형으로 만들었으며 높이 4m크기이다(사진). 이날 열반21주기 기념 다례식과 부도 봉안 법회에는 덕암종정스님, 혜초 전 총무원장, 지성 총무부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해 스님의 유덕을 기렸다.

재만스님 종무원장 취임식



대구 경북 종무원은 27일 종무원내 설법전에서 제11대 김재만(만성사 주지·사진) 종무원장스님의 취임식 및 제47회 정기종회를 개최했다. 대구 경북 종무원은 올해 방생법회와 선암사 장경각 정대불사 등 종단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덕사 마정수기 법회

순천 장덕사(주지 청암·사진)는 19일 사찰창건 3주년과 마애열반상, 10대제자상 완공불사를 기념하는 부처님진신사리 친견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청암스님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된 것을 인연공덕으로 국가경제의 회복과 남북통일, 통서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태종

관문사 불우이웃돕기 후원

관문사(주지 운덕)는 종단 사회복지사업 동참행사의 일환으로 불우이웃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관문사내 신도들로 생활이 어려운 편부모 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장시투병환자 가족,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는 각 지회 및 사내 각 신행단체장, 신도들의 추천이 있으며 된다. 접수마감 2월말. 관문사는 불우이웃 지원사업을 관내 주민과 타 종단 불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2)3460-5300

진각종

청소년지도자 리더십 연수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1월 18-21일 3박4일간 경주 보문 유스호스텔에서 제1회 진각청소년지도자리더십 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보이스카우트 경북연맹 1500단 진각스카우트가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70여명이 야영법과 야영기술 습득, 건강과 안전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이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열반종

분원설치 위해 미국 답사

총무원장 김해근법사는 열반종 분원설치를 위한 현장답사차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리치몬드 시를 다녀왔다. 열반종은 올해안에 미국에 분원을 설치, 해외포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運(운)이 약한자를 운이 강한자로 만들어 주고,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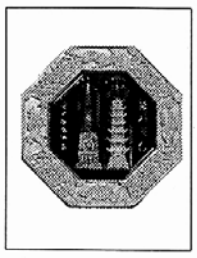
12품 八相塔呪(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중에서 다음의 2가지 품목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의 운세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每事(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목걸이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규격 : 5cm×5cm
◇소재 : 순도 99.9%의 순금으로 도금
◇가격 : 70,000원



▲규격 : 8cm×8cm
◇가격 : 60,000원

사람의 運氣(운기)와 운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또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도 운기와 운세는 주기적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한다. 운기가 약할 때 사고나 재난을 만나게 되면 크게 나고, 사기꾼들을 만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재물도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내리막 운세일 때 삼재가 들면 나쁜 영향을 더욱 많이 자주 받게 되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목걸이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팔상탑주의 축소판과 뒷면에 팔괘만다라를 새겨 넣어 생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지니고 다니면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중요한 계약이나 시험 보러갈 때 몸에 지니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삼재든 사람이 몸에 지니면 약해지는 운기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 초상집 등에 갈 때 필히 몸에 지니고 가는 것이 좋다.-상문을 전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외국여행이나 기타 오랫동안 외부를 돌아다닐 때도 필히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했으면 한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재난이 있는 곳은 저절로 피해서 가게 되고 차량 사고시나 비행기 사고시에도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 관재가 있거나 소송건에 얽혀 있는 사람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꼭 지니고 다녔으면 한다.
-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다면 한 품씩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해주면 밖에 나가서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학업에도 열중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것은 분실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시킨다.

"대문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앞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이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氣)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놓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특히 앞집 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적살방이라 하여 기가 약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한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긴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 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어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에 상서로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서 출입자에게 강한 운을 제공한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대문용 팔상탑주가 있으면 이사할 때 방위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사가는 집 대문에 본인의 이사짐이 들어가기 전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부착하고 나서 들어가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잡신들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승사자도 대문용 팔상탑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꿈을 꾼 불자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불자재소자 문예활동 참회도 하고 상도 받고

신행수기 우수상-창작찬불가 장려상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지금도 마치 날카로운 매의 부리로 가슴을 쪼아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생생하게…'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서재만씨(39)는 불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면서도 진솔하게 참회한 글을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 본사가 주최한 제5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

올해로 수형생활 13년째인 대전교도소 최봉종씨(29). 지난달 17일 조계종 제2회 창작 찬불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합창곡 '업(業)'을 직접 작사·작곡해 당당히 수상자 명단에 낀 최씨는 16세때 무기수로 입소했으나 이곳 재소자 불교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이번 수상은 대전교도소 개소 이래 외부 문화관련 분야 공모에서 첫입상이어서 불자 수형자들을 더욱 기쁘게 했다.

역시 본사 주최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에 당선된 청송교도소 정호귀씨(40)는 틈틈이 글을 써오다 이번 수상으로 포교사가 되겠다는 꿈에 더욱 자신을 가지게 됐다. '부처님의 감로법 이제 알았네'라는 수상작 제목이 말해주듯 그의 글에는 불법에 다가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다. 어느새 글쓰기가 신행생활이 되어버린 정씨는 이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차분히 씻어가고 있다.

최근 전국 40여개 교도소와 구치소의 재소자 불자들이 이처럼 글쓰기, 서예, 음악, 미술 등의 특별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수형생활은 물론 신행과 문예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예활동은 수형자 자신의 정서를 함양하고 신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작품을 통해 참회와 거듭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가석방된 이연보(42)씨는 교도소 내에서도 알아주는 명필이었다. 13년 수형생활동안 줄곧 서예반에서 솜씨를 갈고 닦아 법무부가 주최하는 교정작품전시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됐다. 또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한진태씨(40)도 지난해 감호소내 서예작품전에서 입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붓끝에 늘 부처님과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으려 몸부림쳤기에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한편 대전교도소의 경우는 많은 불자 재소자들이 민원실에 마련된 교정작품전시장에 작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위문법회와 법보시된 불서 등을 읽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 재소자들의 작품엔 잘못으로 점철된 과거를 반성하고 불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불자 재소자들의 문예활동사례를 모으고 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계의 지원을 늘려 보다 왕성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자재소자들의 문예활동은 신심을 바탕으로 참회와 거듭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신행활동이 되고 있다. 사진은 여주 신륵사를 참배하고 있는 재소자들.

떡국 나누기…민속놀이…효도잔치

교계 설날행사 '훈훈하다'

교계 복지관들이 '설날맞이 떡 나누기 행사'를 일제히 개최하는 등 민속의 명절 설을 맞아 교계 복지관과 사찰, 신행단체들이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설'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능인·길음·용호·두송·덕유·금오·옥수·백천사회복지관과 강북장애인복지관 등 교계 20여 복지관들은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지역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영세가정 등을 대상으로 떡국이나 쌀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들 복지관은 떡국이나 쌀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제공한다.

1월 29~30일 사회복지기금 마련 설날 제수용품 알뜰장터를 열었던 천태종 관문사는 3일 조계사와 공동으로 영등포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들에게 떡국을 제공하며, 이에 앞서 2일에는 소년소년가장 10명에게 위문품과 생활비를 전달한다.

소쩍새마을은 4일 연만들기, 민속놀이 등의 행사에 이어 5일에는 널뛰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행사를 벌이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조를 편성해 2일과 3일 이틀동안 독거노인에게 '문안전화드리기' 행사를 실시한다.

은평노인복지관은 1일 복지관 경로당 노인과 서당교실 어린이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경로당 잔치'를 개최했으며, 연꽃마을도 1일 거동불편노인들을 대상으로 떡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9일 공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시내 노인 5백여명을 초청, 민요와 길놀이 공연 등의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한명우 기자

울산에 불교실버타운 생긴다

노인병원·요양시설·영탑공원등 조성

불교 의료법인인 울산 양산군 소재 효성양방한방병원(이사장 시연)이 1월 22일 기독교계가 운영해 으던 의료법인 태영재단을 인수하고 불교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대대적인 확충불사에 착수했다.

시연스님은 가지산 자연공원내에 위치한 효성병원에 실버타운 300실을 증축하고 150평 규모의 한국목탑 형식을 띤 3층 법당과 108미터 열반와불좌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만위의 영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하 영묘사리탑과 테마공원 등을 건설해 1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불교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등을 운영중에 있으며, 104실의 실버타운 등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효성양방한방병원은 일단 병원 이름을 효성병원으로 내걸고 정신병신경성 질환이나 당뇨병, 중풍,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 줄 계획이다. 단 입원실 사용료와 식비는 실비를 받는다.

시연스님은 "이 시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스님들의 노후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53)655-2227

한명우 기자

불교단체 16곳 '총선연대' 참여

재가연대 '2000년 총선…' 포럼 열어

불교계의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불교단체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등 5개 단체에서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새시대불교포럼, 우리는선우, 교수불자연합회, 좋은벗들, 조계사청년회, 자비의전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동문회를 포함한 16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16개 단체는 1월28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2000년 총선에 따른 불교계공동 대응방안 및 공동조직체 발족에 관한 건'을 주제로 불교제단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연대활동방향과 조직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1월24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2000년 총선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인 손혁재 참여연대 사무처장(재가연대 자문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안에 공익적 시민단체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순수 종교단체의 선거운동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교시민단체는 공익적 시민단체인 만큼 낙선운동을 통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양천구 체육센터 운영자 교체 재고"

정대스님, 구청에 건의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1월 25일 서울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성륜스님) 위탁과 관련, 양천구청에 건의서를 보내 "개관 이후 3억원의 시설투자와 성실한 운영으로 수익금 10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양천구에 적립했다"며 "운영자를 바꾸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95년 개원 이후 조계종(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 양천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스님은 건의서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권이 반납된다면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허용하라"

경불련등 불교시민단체 정부에 촉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좋은벗들,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1월21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총불교학생회가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한 것과 관련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한국 초청을 허용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달라이 라마를 격려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인권·민주정부를 자임하는 국민의 정부와 국민들이 도와야 할 일"이라면서 "천만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의 한국 초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의 모든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 주재 티벳망명정부 사무소의 카르마 겔렉 대표는 달라이 라마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방문을 마친 뒤 며칠 간의 한국 방문을 위해 한국정부에 곧 입국비자를 공식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월 26일 "달라이 라마가 입국 비자 신청을 해 올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지만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 입국을 허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입문' 2천권 지원

조계종 포교원, 운불련에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출판사가 1월26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 이하 운불련)의 회원교육을 위해 〈불교입문〉 2천권을 지원했다.

운불련이 최근 회원의 불교적 소양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하고 순회방문 교육을 계획해 이뤄졌다.

강지연 기자

싯다르타 건달로 묘사 주간조선에 사과요구

주간조선이 기획 연재물에 싯다르타(부처님의 수행자 시절 이름)를 폄하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간조선은 1월 27일자 '인도, 인도 사람들'이란 기획 연재물을 통해 싯다르타를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던 건달", "수자타가 없었다면 성불은 커녕 들까마귀의 먹이가 됐으리라"고 묘사했다.

이를 본 불자들은 담당 기자에게 전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불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부처님을 깎아 내리는 기사"라며 성토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도 1월 26일 주간조선에 정정 기사 게재와 재발방지,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재가연대 정보화 무료강의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임완숙·임동주)는 7, 9일 2회에 걸쳐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1차년도 제1강좌'를 무료로 실시한다. 조계종 종무원과 불교단체 활동가 1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불교 시민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오후 6시에는 컴퓨터 사용법을, 9일 오후6시에는 홈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 최용원 불교정보센터 제작자가 강의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진각종 훼미리카드 발급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삼성카드사와 제휴, 진각종 훼미리카드를 만들어 종도들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에 나섰다. 1년간 년회비가 면제되는 진각종 훼미리카드는 다른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다른 카드와 관계없이 보너스포인트가 적립되며, 특히 사용금액의 일부가 신도회 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밖에 할인혜택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경숙 기자

불과회-불자가수회 '결연'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판수)와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가 1월 26일 자매결연을 맺고 동반활동을 다짐했다.

불교방송 3층에서 열린 이날 합동법회에서 정판수 회장은 "대한불교제과인회와 불자가수회가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된 곳에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동문 졸업·41기생 모집중>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12주)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6. 특 전 사 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현대불교신문 사장상)

부처님 가피 온몸에 감돌고 ㊦

이 귀 인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지리산 천왕봉서 하산하다 넘어져
인대가 끊어지고 무릎뼈가 파손됐다

수술전후 아픔이나 고통이 전혀없어
불보살님의 큰 가피력이란 생각을…

이렇게 불교신행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무렵 어느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의 꿈을 꾸었다. 안개인지 수증기인지 구름같은 모양이 땅에서 뭉게 뭉게 피어나는 깊은 산속인데 선생님은 하얀저고리 검정치마에 머리는 족을 찌어 올리신 단정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끄러지듯 가깝게 오시는가 싶더니 한마디 말씀도 없이 어느덧 멀어지다가 사라지셨다. 은사이신 김선생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당시 초등학교는 6.25동란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어 학교시설은 미흡하기만 했다. 초가지붕의 엉성한 임시교실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공부해야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어머니같이 항상 자상하셨고 깔끔하셨다. 흰색 저고리와 까만 치마,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찌신 모습은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였으며 연세는 50대로 기억된다. 조용하시면서도 숙제를 안해오면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시는 엄한 분이셨다. 우리 6남매중 나와 남동생, 여동생 등 3남매의 은사이시니 그 인연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30여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내 꿈속에 나타나신 선생님은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사라지시니 안타까웠다. 꿈의 선명함과 의문점을 간직한 채 열흘 정도 지난 어느날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초등학교 등창중 마음이 잘 맞는 7명의 친구가 부부동반으로 2개월에 한번씩 만나는 모임으로서 선생님의 아들도 회원이었다. 그 친구옆에 앉아 담소하던 중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00아, 몇월 며칠이 혹시 선생님 제사날 아니었니? 제사는 잘 지내드렸지?" 하니 그 친구는 네가 어떻게 어머니 제삿날을 아느냐고 깜짝 놀라며 한편 당황해했다. 내가 말을 이으려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내옆구리를 쿡 찌름과 동시에 큰 소리로 대화를 바꾼다. 모임이 끝나고 말문을 막은 친구와 같이 오면서 선생님의 집안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뜻밖이었다. 친구아버지는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자 작은부인을 들여 5남매를 두었고 그 자녀중 한명이 언급한 친구였다. 선생님은 홀홀단신으로 말년까지 외롭게 사시다 돌아가셨으니 제사인들 누가 신경써서 모시겠냐며. 그래서 화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친구가 어떻게 선생님 기일을 알고 있냐고 물길래 꿈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도 의아해했다. 이제야 꿈에 나타나신 선생님의 뜻을 알것 같았다. 평생을 교단에 서시면서 배출한 많은 제자중에 선생님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영가를 모실 수 있는 제자라는 생각에 꿈에 나타나셨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즉시 고향 면사무소 호적계에 전화를 걸어 선생님의 제적등본 1통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상님들의 영가가 안치된 법당에 같이 모시고 일심정성으로 기도드렸다.

그해 늦가을 생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 봉행하는 '조상령천도 49재 지장기도법회'에 동참,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으로 원만히 회향해 드린 며칠 후, 꿈속에서 밝은 미소로 권안히 앉아계신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상님도 선생님도 다같이 받들고 섬겨야 할 대상이니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지심으로 서방정토 극락왕생 발원하리라 굳게 다짐한다.

99년 2월, 2년과정인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수행정진과 경전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동산법당을 가득 메운 재가불자들의 열기는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무아미타불 십만팔천번 사경, 교과목 이수후 원고지 30~40매의 리포트 작성제출, 조별로 운영되는 팀워크의 중요성, 나태해진 신상을 재충전 시켜주는 성지순례, 북한동포와 아프리카 기아난민돕기 운동, 지진참사국 돕기, 만일염불회 동참 등등.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실천한다면 학생의 대부분이 기성불자로 진정 불교가 무엇인가를 배워 실천하기 위한 수행자로서 사찰에서 신행단체를 이끌거나 모범적인 불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포교사 시험에도 높은 합격률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포교사들은 음지를 양지로 바꾸는 부처님 사업에 동참하는 숨은 보살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99년 6월 19일 토요일 불교대학 수업을 마친 후 오후 10시, 불자산악인 모임인 금강메아리의 정기산행인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 대절버스에 몸을 실었다. 산악대장은 몇 개월전부터 천왕봉은 민족의 영봉이요,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니까 모두 함께 올라가자며 도봉산을 오르게 하는 등 체력단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는 체력이 약한 편이고 무릎이 좋지 않아 걱정이 앞섰지만 대장님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참가하기로 했다.



그림 · 이준석

토요일 밤 10시 30분 대절버스는 출발하였고 순식간에 안개가 끼고 검히는 자연의 조화속에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역시 지리산은 명산이었다. 정상을 알리는 석주(石柱)를 배경으로 기념촬영과 잠시의 휴식을 취한 후, 장터목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자며 급히 하산을 서둘렀다. 호사다마인가? 경관을 감상하며 하산중 돌부리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 연골부위 아래가 도끼날 같이 날카로운 돌에 찍혔고, 순식간에 울컥울컥하는 소리를 내며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로 10cm, 깊이 2cm 정도 벌어진 상처는 하마입을 연상케 할 정도로 깊이 패였다. 누군가가 서둘러 담배 두 개피를 상처에 넣고 압박붕대로 동여매니 피가 멈추었다.

응급조치를 한 후 배낭을 둘러멘 채 하산하여 20여분만에 장터목산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장 관리요원에게 상처를 보여주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깊은 상처를 당하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담배부스러기를 모두 꺼낸 후 소독하고 부목을 대어 상처를 고정시켜 주었다. 산장관리 요원들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고마웠다.

헬기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우여곡절끝에 전라남도 소속 119헬기에 탑승하여 순천에 위치한 한국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X-RAY촬영결과 인대가 으스러져 끊어지고 무릎뼈의 일부가 파손됐다며 수술하고 6주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보호자로 따라온 회원이 수술서류에 서명하자 3층에 있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전신마취를 위하여 척추에 꽂혀지는 주사바늘의 따끔함만 기억될 뿐, 눈을 뜨니 수술실 천정에 있는 수많은 전구가 시야에 들어왔다. 내입은 무어라고 중얼거리는데 다름아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나도 모르게 염송하고 있었다. 잠시후 의사가 들어와 4시간 반동안 수술하였는데 정말 잘됐다고 하면서 참 건강하시네요 한다. 순천은 연고지가 아니므로 다음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는데 담당의사도 놀랄정도의 빠른 회복을 보여 2주일만에 퇴원하고 재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경과를 말하는 이유는 부상을 통하여 경험한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말씀드리려 함이다. 넘어진 당시나, 붕대를 동여매고 20여분을 혼자 걸어내려 올 때나 수술전후나 치료기간중에 고통이나 아픔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으며, 퇴원후 바로 정상생활로 복귀하였으니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조금 늘어나도 6개월씩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원 며칠 후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으로 계신 법사님의 권유로 전방 군부대 대법당 부처님점안식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군법당의 지도법사를 요청받았다. 두려움이 앞서고 망설여졌으나 사양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요, 거기가 멀어서 싫다고 한다면 이곳 전방을 지키는 병사들이 부처님법 만나기란 더욱 어려운 것 아닌가, 또한 군대가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들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감의 주제를 정하고 밤을 새워 정리한 경전내용을 일요법회 시간에 전달하며 씩씩한 병사들을 대할때면 환희심이 절로 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는가!

인신난득(人身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 만난 지금 용맹정진 멀리하고 게으르고 방일하면 억만겁 윤회로다. 앞으로 계속 탁마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무엇을 주저하리.

자신을 태우는 양초가 수천만년 어둠을 일시에 거두어 가듯, 이 한몸 불법승 삼보 위해 그렇게 쓰인다면 이 세상 태어난 소명이리라. 나무아미타불!

인터넷 마하몰

새 천년 새 희망

마하몰 불교상품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리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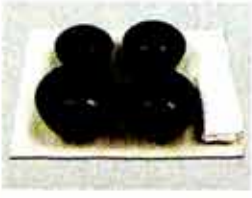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방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덩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가 격 : 25,000원 ■1세트 : 10개入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새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육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斬力), 감력(堪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財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 16개 큐빅 / 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